

이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다. 정신의 강약, 사상의 건부(健否), 번성의 이둔(利鈍), 성패를 나누는 것은 사람이다. 반도에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일으켜 먼저 인심의 흥기(興起)를 촉구하고 시무(時務)를 나누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충청남도 도민 유지는 이미 연맹을 조직하고 강령이 제시한 바를 준수하면서 활발한 실천행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여름 희유의 한해에 조우하여 국민이 겪는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하지만 하늘이 어려움을 내리는 것은 그 사람을 실험하기 위한 것이다. 한 번의 흥작으로 어찌 할 바를 모른다는 것은 전시 하 국민으로서의 자각과 궁지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관 당국의 시조(施措)는 홍대(鴻大)한 천은(天恩)을 받들어 애당초 선후 대책에 게을리 하지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피해 도민의 약기(躍起)와 협력을 통해 비로소 재해의 영향을 벗어나 갱생부흥의 내실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통해 함양 체득한 총후국민의 본분에 철저하여 그 열렬한 정신력을 발휘하여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는 본직이 본 대회에의 성과에 대해 바라는 바이다. 도내 관민은 이를 잘 인락(認諾)하여 대처해주기 바란다.

(9) 국민정신총동원 경상북도연맹 대회에서의 총독 고사 (1939년 12월 10일)

국민정신총동원 경상북도 연맹대회의 개최에 즈음하여 한마디 하고자 한다.

지나사변이 발발한지 벌써 2년 반이 경과되었다. 그동안 천황 폐하의 능위(稜威) 아래 황군은 커다란 전과(戰果)를 올렸고, 적(敵)정권은 궁지 상태에 빠졌다. 하지만 아직까지 흥아대업의 전도는 결코 용이하지 않다. 구주동란의 영향은 결코 낙관할 수 없다. 거국의 관심을 하나로 응집시키고 물심양면에서 전시대세를 강화함으로써 만년을 극복하는 것 이외에 방법이 없다. 생각건대 세상의 모든 사물, 이를 움직이는 것은 사람이다. 정신의 강약, 사상의 건부(健否), 번성의 이둔(利鈍), 성패를 나누는 것은 사람이다. 반도에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일으켜 먼저 인심의 흥기(興起)를 촉구하고 시무(時務)를 나누려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경상북도 도민 유지는 이미 연맹을 조직하고 강령이 제시한 바를 준수하면서 활발한 실천행동을 전개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여름 희유의 한해에 조우하여 국민이 겪는 고통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하지만 하늘이 어려움을 내리는 것은 그 사람을 실험하기 위한 것이다. 한 번의 흥작으로 어찌 할 바를 모른다는 것은 전시 하 국민으로서의 자각과 궁지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관 당국의 시조(施措)는 홍대(鴻大)한 천은(天恩)을 받들어 애당초 선후 대책에 게을리 하지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피해 도민의 약기(躍起)와 협력을 통해 비로소 재해의 영향을 벗어나 갱생부흥의 내실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통해 함양 체득한 총후국민의 본분에 철저하여 그 열렬한 정신력을 발휘하여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이는 본직이 본 대회에의 성과에 대해 바라는 바이다. 도내 관민은 이를 잘 인락(認諾)하여 대처해주기 바란다.

(10) 국민정신총동원 경상남도연맹 대회에서의 총독 고사 (1940년 1월 23일)

기원 2600년 신춘 1월, 국민 모두는 신무건국(神武建國)의 이상에 감명을 받아 흥아유신의 웅도(雄圖)

를 새롭게 결의하였다. 바로 이때 국민정신총동원 경상남도 연맹대회를 개최하여 본 운동의 강화를 도모하는 것은 시의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다.

생각건대 시국 하 반도의 총후태세는 서전 이후 해가 갈수록 견훤해지고 있다. 특히 지난여름 중남선지방의 농촌에서는 미증유의 한해에 조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심은 미동도 하지 않았다. 관민은 서로 일치하여 어려움을 견뎌내고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았다. 이는 필경 국민정신 훈련의 결과이다. 본직은 깊이 감사하고 반도를 위해서도 축복할 일이다.

지금 지나사변이 발발한지 4년차에 접어들었다. 황군의 전과(戰果)는 실로 크다. 하지만 세계화란(世界禍亂)의 귀추는 아직 분명하지 않다. 동아신질서 건설의 전도 또한 극히 다난하다. 이에 대한 우리의 각오는 안으로 국민정신의 이완을 경계하여 전시경제의 운행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일억일심의 결속을 강화하여 국가총력의 발휘에 매진하고, 이를 통해 제3국의 책모를 봉쇄하면서 지나 항일당군(抗日黨軍)을 기사(氣死)시켜야 한다.

지금 일본의 역사는 흥아유신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 금년을 계기로 찬란한 일대 광망(光芒)을 세계사에 던질 때가 왔다.

내선일체를 심화시켜 모든 동이민족의 단결에 솔선수범하고, 총후태세를 정비하여 이를 기운(機運)의 추진력으로 삼아야 한다. 우리 반도의 약진을 내외에 발양시킬 준비가 되어야 한다. 본직은 본도에서의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진전 상황을 많이 알고 있다. 여러분은 더욱 협심육력(協心戮力)하여 의의가 큰 금년을 계기로 더욱 약진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한마디 소회로 고사를 대신한다.

부(附)

(1) 각 도 정동연맹 사무담임자 타합회에서의 문서과장 인사 (1939년 12월 4일)

이번 정동 조선연맹의 주최로 각 도 정동연맹 사무담임자 타합회의 개최에 즈음하여 총독부 사무당국의 입장에서 한마디 희망을 말씀드리니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선에 국민정신총동원이 시작된 지 약 1년 반, 각 도에 이 기구가 조직된 지 1년 내외가 되었습니다. 작년 전 조선적으로 그 체계가 정비되고 사무적으로도 연락, 협력하여 보조를 맞출 수 있게 된 것은 국가를 위해 기뻐할 일입니다.

사무와 운동이 상대로 하고 목표로 하는 것은 사람의 정신, 사람의 사상입니다. 이는 원래 형태가 없는 관계상, 각각 형태가 있는 것을 목표로 하는 다른 일반 행정사무와는 매우 달라, 무언가 막연하여 목표를 상실한 것처럼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한발 더 나아가 생각할 때, 정신이나 사상이란 것은 형태가 없지만 결국 그것은 각자의 생활태도나 사회의 풍습으로 표출되고, 국력의 강약으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 사물을 바라볼 경우, 어떤 한사람의 말이나 일거수일투족에서 그 사람의 정신과 사상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만약 많은 사람들 사이에 개인적 공리주의 사상이 팽배해져 자기 개인의 이복(利福)이 첫째이고 국가사회는 두 번째라는 사고방식이 우세하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국가사회에 화근으로 작용되어

분명 성전 수행에 커다란 장애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 사이의 정신현상, 사상현상을 이런 의미에서 중대시합니다. 형태가 없는 것이 모습으로 나타나는 부면에 대해 국가의 의사를 체행(體行)하고 강력하게 영도하는 일에 목표와 의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일에 관여하는 자 스스로 소위 명경지수(明鏡止水), 한 점의 오점도 담아두지 않겠다는 대장부의 심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부언할 필요도 없습니다.

잘 아는 바와 같이 본 연맹의 실천사상은 다방면에 걸쳐 있습니다. 민중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 정한 필행 2칙은 '궁성요배'와 '근로, 저축'입니다. 말로 약속하면 정말 간단합니다만, 그 취지를 각자의 생활에 적응시켜 충분히 살려내는 일은 정말 어렵습니다. 궁성요배라는 것은 단지 형식적, 기계적으로 궁성을 요배해서는 그 본지가 죽고 맙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위해, 무슨 이유로 궁성을 요배하는가를 충분히 이해시키는 것입니다. 즉 마음으로부터 황국신민이라는 고마움을 느끼고, 시국 하에서 황국신민으로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것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그 의미는 없어지고 맙니다.

또 근로, 저축이라는 것도 결코 입발림 소리가 아니라, 전시 하에서 최대 국책의 하나입니다. 악성인플레이가 염려되는 물가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생산부문에서는 근로정신을 불러일으켜 생산을 증가시키고, 소비자로서는 극력 물자의 절약에 힘써 전시경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도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가 모든 계층과 개인에게 철저히 침투함으로써 비로소 정신운동의 목적이 달성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본 운동의 목적과 객체는 분명해집니다. 사업 또한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운동의 목적과 사명이 크고 어렵지만, 한정된 소수 사람들의 운동이어서는 안 됩니다. 조직과 기구에 한사람이라도 많은 지도자적 인물을 포용하고, 다른 일반 행정부문과도 밀접한 연락을 유지하면서 운동의 효과를 올려야 합니다. 생산의 조장, 교육, 경찰과 같은 각종 행정과도 물심양면에서 국력의 증강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목적은 완전히 일치하기 때문에, 독선의 폐해에 빠지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목적하는 바를 향해 함께 나간다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본 운동을 전개함에 있어 필히 명심할 것은 첫째로 '공기를 만든다'는 것, 둘째로 '급소를 찌른다'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의 상태는 많은 사람의 경우, 이리저리 움직이고 환경에 영향 받기 쉬운 특징이 있기 때문에, 본 운동은 모든 기회를 동원해 국민일치협력의 정신을 부각시키는 공기를 만드는 것이 한 가지 수법입니다. 또한 사물에도 모두 급소가 있습니다. 눌러보아 아픈 곳에 몸에 도움이 되는 뜸을 떠서 처치하는 것이 긴요합니다. 신문을 보기에 따라서는 시대착오라고도 생각되는 강담소설이 여전히 계속되는 것은 옛날이야기의 재구성이 일본인의 마음의 급소를 찌르기 때문입니다. 신문지상에 강담(講談)소설이 계속되는 한, 일본의 국민성은 괜찮다고 말하는 사람조차 있습니다. 본 운동의 성과를 올리기 위해서도 항상 인심의 세세한 살피고 그 심리의 급소를 파악하여 가장 유효한 방법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농촌지대에서는 7개년에 걸친 농촌진흥운동의 훈련이 이미 전개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본 운동을 병행한 결과, 금년의 대한발 시에는 그 강력한 정신력을 입증했습니다. 앞으로도 두 운동은 일체불이(一體不二)의 관계로 결합되어 물심(物心)을 개척할 것입니다. 지금 많은 점을 고려하여 본 운동은 특히 도회지에서의 투철한 실사가 필요합니다. 이는 내지에서도 그렇습니다. 국내에 잔존하는 사상상

의 악기류를 숙정한다는 의미에서도, 본 운동은 주력을 도읍에 집중한다는 방침이 필요합니다.

도읍은 농촌과 생활양태가 다르고, 직업도 계급도 다양합니다. 이런 관계로 조직과 훈련의 완벽을 기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상, 문화, 경제 등 모든 세력의 중심이 도읍에 집중된 것을 감안할 때, 어떠한 곤란이 있더라도 바로 여기에서 자각운동의 근원을 개척해야 합니다. 연맹의 금후 과제가 도시개혁에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지방의 사정에 입각하여 연구해주시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총독부 사무당국에서 작성한 요망사항은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국민정신총동원 전매연맹 1주년 기념식에서의 문서과장 축사 (1939년 12월 10일)

오늘 국민정신총동원 전매연맹 1주년 기념식을 거행함에 즈음하여 축사를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입니다.

지나사변이 발발한지 벌써 만 2년 반이 경과되었습니다. 그동안 천황 폐하의 능위(稜威) 아래 황군은 커다란 전과(戰果)를 올렸고, 적(敵)정권은 궁지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제3국의 마수(魔手)는 아직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으로 구주동란의 여파가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느낌도 있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정말 복잡괴기하고 파란중첩의 구미외교의 귀추가 과연 어떻게 될지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 영향력을 전혀 예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미 일본과 미국의 국교에서는 그 화근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모두 하나가 되어 조국(肇國)의 물심을 집중하고 전시태세의 강화를 도모하여 국난극복의 내실을 올리면서, 만세(萬世)의 동요 없는 동아신질서 건설의 기초를 완성하는 것이 초미의 급무입니다.

특히 시국 하에서는 그 어떠한 관직이나 지위를 불문하고 솔선하여 민중에게 모범을 보이는 신도(臣道) 또는 이도(吏道)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모든 시설, 그 가운데에서도 만민후생(萬民厚生)의 길은 모두 정신작용과 국민운동조직의 강화 집중에 있다고 믿습니다. 전매국은 직원의 총력으로 관계 민중을 지도함에 있어 상당한 성과를 올렸습니다. 작년 7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이 결성되자, 이를 계기로 더욱 연맹운동의 철저강화에 기여하고자 작년 겨울 바로 오늘 조선의 모든 관계자 25만 명이 하나가 되어 국민정신총동원 전매연맹을 결성하였습니다. 이후 만 1년간 연맹원은 더욱 협력전통의 전매일가(專賣一家)의 미풍을 바탕으로 운동과정에서 많은 미담을 남기는 등 영광스러운 1주년 기념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기쁜 일이자 총후반도의 진전을 봄에 있어 마음 든든합니다.

우리 반도는 지금 비상시국 하에서 미증유의 한해에 봉착하여 하늘의 일대시련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를 당한 도(道)의 여부를 떠나 정말로 긴축이 필요할 때입니다. 이의 타개극복은 국민정신의 양양과 더불어 산업의 일대진전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의 재정과 더불어 반도산업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전매연맹원 여러분은 이를 명심하고 더욱 일본정신의 양양에 노력하기 바랍니다. 당국의 방침에 따라 동요하지 말고 전매연맹의 기치를 높이 들어 모든 조선에 모범을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2. 정동 기본 통첩류집

1) 국민정신총동원 실시에 관한 건

관문(官文) 제694호

1937년 8월 24일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오노 로쿠이치로(大野綠一郎) 앞
척무차관 하기와라 겐조(萩原彦三)

본 건에 관해 본일 별지 요강대로 각의 결정함에 따라 참고로 송부한다.

〈별지〉

국민총동원실시요강(각의제출안) (1937년 8월 24일)

(1) 취지

거국일치 견인불발의 정신으로 현하 시국에 대처함과 더불어 금후 지속해야 할 시난(時難)을 극복하여 황운을 부익하여 받들기 위해 이번 전국(戰局)에 관한 선전방책 및 국민교화운동방책의 실시로서 관민일체를 이루어 일대 국민운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2) 명칭

국민정신총동원

(3) 지도방침

- ① ‘거국일치’, ‘진충보국’의 정신을 견고히 하여 사태가 어떻게 전개되고 아무리 장기에 걸치더라도 ‘견인지구’로 모든 곤란을 타개하여 소기의 목적을 관철하고자 국민의 결의를 강고히 할 것.
- ② 위의 국민의 결의는 실천을 통해 구현할 것.
- ③ 지도의 세목은 사상전, 선전전, 경제전, 국력전의 견지에서 판단하여 수시로 이를 정하고, 모든 국민이 국책의 수행을 추진할 것.
- ④ 실시에 즈음하여 대상 인물, 시기 및 지방의 정황을 고려하여 가장 적당한 실시계획을 정할 것.

(4) 실시기관

- ① 본 운동은 정보위원회, 내무성 및 문부성을 계획 주무청으로 삼아 각 성 모두가 하나가 되어 실시할 것.
- ② 본 운동의 취지달성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에 민간 각 방면의 유력한 단체를 망라한 외곽단체의 결성을 도모할 것.
- ③ 도부현(道府縣)에서는 지방장관을 중심으로 관민합동의 지방실행위원회를 조직할 것.

- ④ 시정촌(市町村)에서는 시정촌장이 중심이 되어 각종단체 등을 종합적으로 총동원하고 여기에 부락과 정(町) 내 혹은 직장을 단위로 실행할 것.

(5) 실시방법

- ① 내각 및 각 성은 각각 소관 전무 및 시설과 관련하여 실행할 것.
- ② 널리 내각 및 각 성 관계단체를 동원하여 각각 그 사업과 관련하여 적당히 협력할 것.
- ③ 도부현에서는 지방실행위원회와 협력하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 실행할 것.
- ④ 시정촌에서는 종합적으로 부락 또는 정마다 실시계획을 수립 실행할 것.
- ⑤ 회사, 은행, 공장, 상점 등의 직장에서는 그 책임자가 실시 계획을 수립 실행할 것.
- ⑥ 각종 언론기관과는 본 운동의 취지를 간담하여 적극적인 협력을 요구할 것.
- ⑦ 라디오의 이용을 도모할 것.
- ⑧ 문예, 음악, 영화 등의 관계자의 협력을 요구할 것.

(6) 실시상의 주의

- ① 본 운동은 실천을 지(旨)로서 국민생활의 현실에 침투할 것.
- ② 종래 도시의 지식계급에 대해서는 철저히 빠짐없이 이 점을 유의시킬 것.
- ③ 사회의 지도적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는 솔선공행을 요구할 것.

(7) 실천에 필요한 경비

임시의회에 상당액을 요구할 것.
11시 반 각의에서 결정되었다.

2) 국민정신총동원 비상시 재정경제에의 협력 강조의 건

관비(官秘) 제348호

1937년 11월 29일
제1차 소속관서장 앞
정무총감

국민정신총동원의 방책으로서 일반국민에게 비상시 재정경제에의 협력을 요구하고 시난극복(時難克服)에 매진하는 것은 시국에 비추어 아주 긴요한 일이다. 정부의 방침에 호응하여 별지 요항에 따라 소비절약 기타 재정경제에의 협력을 강조하여 실시하고자 한다.

별지 요령은 지방의 지도자를 위해 참고로 만든 것임으로 물론 각 지방의 실정에 따라 적당히 취사 선택할 수 있고, 사태의 추이에 따라 금후 개정될 수 있다. 이를 감안하여 적당히 이용하여 각 가정에 이르기까지 철저히 도모하여 성과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별지요령 가운데 소비절약의 실시는 그 취지를 오해하지 않고 쓸데없이 민심을 위축 침체시키지 않

도록 유의해야 한다.

동 건(同件)

제목의 건에 관해 별지 사본과 같이 정무총감이 제1차 소속관서의 장에게 통첩한 것이니 알아두기 바란다.

〈별지〉

비상시 경제에 대한 국민협력요항

이번 일반국민에게 재정경제정책에 협력을 바라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1) 소비의 절약
- (2) 저축 및 국채의 응모
- (3) 폐품의 이용(자원의 회수)
- (4) 대용품의 사용
- (5) 매점과 매석의 자제
- (6) 금의 사용절약
- (7) 국제수지 무역외 지불 감정(勘定)의 감소

그 개요는 다음과 같다.

제1 소비의 절약

사변경제정책이 목표로 하는 바는 직간접적으로 군의 수요를 충족하여 군사행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서는 적합한 물자 및 자금의 수급과 더불어 국제수지의 균형을 유지하여 파탄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경제계의 위축침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국민의 소비절약에 대해 취할 방침 대요는 다음과 같다.

- (1) 군수자재 및 수입품과 수입품을 원료로 하는 국내제품을 소비절약(선택적 소비절약이라고 칭한다)할 것.

이번 사변에 의해 군수자재로서 소요되는 물자는 아주 많다. 따라서 해외로부터의 수입은 더욱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군수자재와 관련된 물자에 대해서는 수입품은 원래부터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도 군수(軍需) 이외의 일반 용도로의 사용은 가능한 한 절약할 필요가 있다. 또 군수 관계품의 수입증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기타 물품의 수입은 극력 감소할 필요가 있다. 특히 면화, 양모 등과 같이 국내에서 소모되면서 해외 수출품의 원료가 되는 것은 수출무역을 극력 증진할 필요가 있음으

로 그 원료의 공급을 확보하고, 특히 국내소비로 충당할 부분의 소비절약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위의 수입품이라 불리는 물품은 현실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수입되지만, 그와 동일한 물품 또는 동일 용도의 물품으로서 국내에서 생산되는 것(예를 들어 국내산 동, 철과 같은 것)도 물론 똑같이 절약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물자의 소비는 필연적으로 같은 종류의 물자부족을 야기하여 해외로부터의 수입을 늘게 만들고, 현실적으로 수입하지 않더라도 소비증가의 결과 수입이 필요하게 된다. 또한 일만일체(日滿一體)의 예측을 감안하여 만주산품을 국내산품과 동일하게 생각해야 한다.

- (2) 시국의 관계상 소득이 증가하는 방면에서는 원칙적으로 종래에 비해 생계를 향상 확대하지 말고 소비증가를 억제시킬 것.

앞으로 다액의 군사비의 국내 살포에 따라 국민의 일부는 상당한 수입이 증가할 것이다. 이들이 증가하는 소득을 모두 소비하여 생활 정도를 상승시킬 때는 일반적으로 물자의 수요증가와 공급부족을 초래하여 물가의 폭등을 촉진시켜 국가경제와 개인경제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또 개인의 생활을 보더라도 사변 중 한번 생활 정도를 올렸을 때는 훗날 사변이 종료하여 소득이 감소할 경우에 그 정도를 낮추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이번에 증가하는 소득에 따른 소비의 증가를 자제하고, 이로써 생기는 여유를 저축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개인적으로도 필요하다.

- (3) 일반적 소비절약은 필요 없음.

위의 (1)과 (2)의 소비절약 이외에 일반적으로 소비를 절약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약간 지나친 느낌이 있다. 원료가 국내에서 생산되고 그 제조가공도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물자는 공급이 부족하지 않는 한, 특히 소비를 절약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종류의 물자에까지 소비를 절약할 때는 경제 및 산업계를 위축 침체시켜 오히려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소비절약은 앞의 (1)과 (2)에 한정하는 방침을 정하는 것이 적당하다.

제2 저축, 국채응모 등

직접 군의 수요(전쟁비용) 또는 국방산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이번에 일반국민에게 저축을 장려해야 한다. 동시에 시국의 관계상 소득이 증가하는 자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 소비의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더욱 저축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다음 방법으로 저축 및 국채의 응모 등에 대한 국민의 협력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 (1) 국채를 매입하게 할 것(우체국 매출을 이용할 것, 매입자에게 현금이 필요할 때는 언제라도 팔 것)
- (2) 은행예금, 우편적금 기타 각종 저금을 장려할 것
- (3) 할증금이 부여된 저축채권에 응모할 것
- (4) 간이생명보험, 양로보험 등에 가입할 것

제3 폐품이용(자원의 회수)

양모, 철, 고무, 종이 등 부족물품의 재제(再製) 원료로 충당하기 위해 각 가정 등에서 이들 폐품은

버리지 말고 그 처리에 충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제4 대용품의 사용

수입품의 사용절약은 단순히 소비의 절약만이 아니라, 대용품의 사용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완전한 대용품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순양모 양복 기지를 대신하여 일정량 이상의 혼용품의 사용을 장려하는 것이 그것이다.

제5 매점과 매석의 자제

사변에 의한 물자수급 관계의 변화 등을 이용하여 물자의 매점과 매석을 통해 물가를 현저히 증가시키는 행위는 국민경제상 극심한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므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엄중히 일반소매인과 각 가정의 자제와 협력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제6 금의 사용절약

국내 보유 금은 이번에 가능한 한 해외로부터의 필요품 수입의 결제수단으로 충당하기 위해 특히 다음과 같이 국민의 협력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 (1) 장식품 기타 금의 사용을 억제시킬 것
- (2) 각 개인이 보유한 금제품은 가능한 한 정부에 매각할 것

제7 국제수지 무역외 지불 감정(勘定)의 감소

국제수지의 현상을 고려하여 이번에 가능한 한 무역외 수지에서 지불 감정의 감소를 도모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해 국민의 협력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 (1) 해외여행을 가능한 한 억제할 것
- (2) 어쩔 수 없는 해외여행의 경우는 가능한 한 우리나라의 선박을 이용할 것
- (3) 해외에의 전보는 가능한 한 무선으로 할 것(해저전선에 의한 경우에 비해 우리나라 수득분이 많음)
- (4) 외국으로부터 귀국하는 자의 토산품 구입을 가능한 한 억제할 것

제8 일반국민에게 협력을 요구하는 방법

비상시 재정경제정책에 관해 앞의 각 호에 대한 일반국민의 협력을 충분히 얻기 위해서는 그 실행방법에서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 (1) 국민에게 소비절약의 협력을 요구할 물자는 별지 제1의 '국민에게 소비절약을 요구할 물자의 종류 일람표'에 게재되어있다. 국민에게 이들 물자를 원료로 제조하는 각종 일용품 등에 대해 별지 제2의 '물자의 소비절약을 위해 국민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요구할 것인가'의 방침에 따라 소비를 절약하거나 혹은 대용품의 사용을 장려한다.

- (2) 국민의 물자소비 기타 경제활동의 동향을 결정하는데 긴밀한 관계를 지닌 지도자 계급의 자각협력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즉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① 소학교 훈도 기타 학교의 직원은 그 지도방침에 따라 아동, 생도, 학생의 운동화, 모자, 양복, 종이, 기타 물자의 소비절약에 다대한 영향을 준다. 이번에 이 방면에 대해 긴밀히 연락할 필요가 있다.
 - ② 학교 직원 등이 아동, 생도 등을 통해 각 가정에서 소비절약을 장려하는 것은 아주 유효한 수단이다. 이런 의미에서 학교 직원에게 본 운동의 본지를 충분히 이해시킬 필요가 있다.
 - ③ 은행, 회사, 기타 단체의 지배계급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소비절약을 계획 실행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다.
- (3) 신문잡지 등의 가정경제란의 기사는 가능한 한 본 운동의 취지에 따르도록 협력을 의뢰할 필요가 있다.
- (4) 물자의 소비절약 저축 등은 가장 관계가 깊은 가정주부의 자각을 촉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운동의 주요한 방향을 가정주부의 지도에 두고, 각종 수단도 이를 대상으로 극히 간명히 실행할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가정에서 본 운동의 취지를 철저히 하기 위해 별지 제3의 '가정에서는 이렇게 비상시 재정경제에 협력하자'를 일반에게 주지할 필요가 있다.
- (5) 물자의 최종 소비자인 일반국민 이외에 그 상품의 제조업자, 상인 등에 대해서도 협력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즉 이는 다음과 같다.
- ① 제조업자에 대해서는 국산품 또는 대용품을 사용하여 상품을 제조하면 처음에는 신제품의 고장 등 약간의 불량일 있을 경우에도 이를 제조하려는 마음자세를 지닐 필요가 있다.
 - ② 백화점 기타 일반 소매상의 소비조합 등의 자각을 촉구하고, 박래품(舶來品)의 사용을 장려하는 것처럼 선전광고 등의 실시와 더불어 나아가 국산품 또는 대용품 취급을 하고 선전에 노력하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 (6) 폐품 처리 방법을 철저히 하기 위해 일정한 날을 '○○데이'로 설정하여 실행할 때는 효과가 크다.
- (7) 폐품을 재제(再製) 원료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으로부터 이를 모집하는 방법이 효과적이다. 공공단체 기타 단체에서 적당한 방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3) 국민정신총동원연맹 결성 및 조직대강 제정에 관한 건

사교(社敎) 제136호

1938년 7월 22일

각 도지사 앞

정무총감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의 결성 및 그 취지의 주지철저에 관해서 귀도(貴道)에서도 각각 각지의 실정에 비추어 가장 포용력이 큰 강력한 단체로서 총후국민진의 완벽을 도모하고 있으리라 믿는다. 본 연맹은

널리 반도 내의 단체 및 개인을 망라하여 황국정신의 양양과 내선일체의 심화를 도모하여 진정으로 거국일치와 진충보국의 효과를 거두어야 한다. 일단유사시에는 반도국민총동원 아래 희생적 봉공을 이루겠다는 목표로, 목적 수행을 위해 별지와 같이 조선연맹에서 그 조직대강을 결정하였다. 앞으로 이에 따라 귀관의 주도 아래 연맹 조직을 지도하기 바란다.

〈별지〉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조직대강

(1) 조선연맹

- 도연맹 및 전 조선을 구역으로 한 단체로 구성한다.

(2) 도연맹

- 부군도연맹 및 도를 구역으로 한 단체로 구성한다.

(3) 부군도읍면연맹

① 부연맹

- 정동리연맹 및 부를 구역으로 한 단체, 기타 부 내의 각종연맹 및 개인으로 구성한다.

② 군도연맹

- 읍면연맹 및 군도를 구역으로 한 단체로 구성한다.

③ 읍면연맹

- 정동리부락연맹 및 읍면 내의 각종단체, 기타 각종연맹 및 개인으로 구성한다.

(4) 정동리부락연맹 및 각종연맹

① 정동리부락연맹

- 부는 정동리, 읍면은 정동리부락을 구역으로 하고, 구역 내의 개인으로 구성한다.

- 읍은 토지의 정황에 따라 부연맹의 조직에 준할 수 있다.

② 각종연맹

- 부읍면 내의 관공서, 학교, 회사, 은행, 공장, 대상점 등 일상적으로 다인수를 포용하는 곳에서는 그 소속인원으로 구성한다.

(5) 애국반

① 정동리부락연맹 및 각종연맹은 그 기저조직으로서 애국반을 조직한다.

② 정동리부락연맹의 애국반은 모두 10호로 조직한다.

③ 각종연맹의 애국반은 해당 연맹의 정황에 따라 적절히 구분하여 조직한다.

④ 애국반은 인보협력하여 본 연맹의 기저조직으로서의 임무를 다한다.

⑤ 빌딩, 아파트 기타 일상적으로 다인수를 포용하는 사무소 등에서는 실정에 따라 앞의 각 항에

준하여 연맹 또는 애국반을 조직할 수 있다.

⑥ 연맹의 정황에 따라 애국반 조직을 생략할 수 있다.

4) 국민정신총동원연맹에 관한 건

사교(社敎) 제25호

1939년 3월 16일

각 도지사 앞

정무총감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은 결성 이후 이미 반년이 지나 그동안 중앙과 지방 모두 조직 및 실천망의 결성을 완료하였다. 저번에 실시한 일본정신발양주간의 행사는 실행 단계에 들어가 그 사명이 중대하다는 것을 통감하는 바이다. 내외 시국의 추이는 더욱 본 연맹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황국신민운동의 투철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 이번에 기존의 각종단체 가운데 연맹과 사업목적이 동일한 것은 이를 연맹으로 통합하거나 재검토를 통해 가능한 한 해체를 촉진해야 한다. 또 동시에 정동리부락연맹, 애국반 이하에 해당하는 것은 종래의 명칭을 바꾸거나 적어도 본 명칭을 함께 사용하여 전 조선의 통일적 조직을 갖춘 연맹을 촉진하도록 적절한 방도를 강구하기 바란다.

5) 국민정신총동원운동에 관한 건

관비(官秘) 제63호

1939년 4월 15일

총독부 각 국장, 관방부과장, 제1차 소속관서장(도지사 제외) 앞

문서관장

표기의 건에 관해 정무총감으로부터 각 도지사 앞으로 별지 사본과 같이 통첩이 내려졌기에 이를 알린다.

〈별지〉

국민정신총동원운동에 관한 건

관비(官秘) 제63호

1939년 4월 15일

각 도지사 앞

정무총감

국민정신총동원운동에 관해서는 지난여름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및 각 지방연맹의 결성 이후 이

를 중심으로 실시되어 왔다. 이후 시국의 추이와 연맹 성립 이후의 제반 정세의 변화로 인해 새로운 사태에 즉응(卽應)할 수 있도록 더욱 공부할 필요가 생겼다. 이에 관계 방면의 연구 결과에 의거하여 이번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앞으로 이러한 취지를 이해하고 더욱 본 운동의 강화철저를 도모하기를 바란다.

기(記)

(1) 국민정신총동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해 총독부에 국민정신총동원 위원회 및 동 간사회를 설치한다.

(2)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에 이사회 및 참사회를 설치하여 관계(官界) 및 민간으로부터 이사 및 참사를 선출하여 연맹의 중요사항을 기획 실시한다.

(3) 국민정신총동원 위원회 및 동 간사회의 위원 및 간사는 동시에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이사회 및 참사회의 이사 및 참사가 되어 양자 사이에 항상 밀접한 연락을 유지한다.

(4) 총독부의 국민정신총동원 위원회, 동 간사회 및 연맹에 관한 사항의 주무과는 관방문서과로 결정함에 따라 종래 학무국에서 관장하던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에 관한 사무는 문서과로 이관한다.

6) 국민정신총동원 연맹에 대한 군 측의 협력에 관한 건

관비(官秘) 제66호

1939년 4월 15일

각 도지사 앞

문서과장

조선군은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실시기구에 가입하지 않지만, 그 정상적인 발전에 적극적으로 원조하겠다는 뜻을 전달해왔다. 이러한 취지에 의거하여 지방연맹기관에 대해서도 동일한 협력의 의향이 있다. 필요하다면 다음과 같이 지방연맹기관에 수시로 협력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염두에 두기 바란다.

기(記)

○ 도 연맹기관

- 요새참모 또는 요새사령부 고급부원
- 사단사령부 부(附)
- 헌병대장 또는 동 분대장
- 연대 부(附) 사관 위관(학교 배속 장교를 포함, 이하도 같음)

○ 부군(도) 연맹기관

- 연대 부(附) 사관 위관

- 헌병분대장
- 읍면 연맹기관
 - 필요하다면 연대 부(附) 사관 위관
 - 헌병의 장

7) 국민정신총동원운동에 관한 건

문비(文秘) 제29호

1939년 5월 6일

각 도지사 앞

정무총감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은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기구를 중심으로 모든 조선의 관민일치 아래 실시되었다. 조선연맹의 운동과 농촌진흥운동 기타 기존의 운동과의 연락조정에 관한 근본방침에 대해 누차 검토한 결과, 저번에 개최된 도지사회의에서의 본 건 자문 답신의 취지도 참고하여 이번에 다음과 같은 방침을 결정하였다. 이를 유의하면서 더욱 본 운동의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특단의 배려를 바란다.

기(記)

- (1)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의 운동은 시국을 고려하여 신속히 일본정신의 양양, 반도 민중의 황국신민화를 도모하여 거국일치의 정세를 견확(堅確)히 할 목적으로 하는 정신운동일 것.
- (2) 이를 위해 위로는 조선연맹으로부터 아래로는 애국반에 이르기까지 반도를 통틀어 일제히 계통적 세포조직의 철저한 확충을 도모할 것.
- (3) 농산어촌진흥운동은 정신적 기초 위에서 농산어촌의 경제개생을 도모하여 충량한 황국신민을 육성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는 물심일여(物心一如)의 운동이지만, 그 정신적 지도는 더욱 연맹의 지도 원리의 목표로 순응 유도할 것.
- (4) 농산어촌진흥운동은 시국 하에서 더욱 확충 강화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지도기구와 공려조직의 강화를 도모할 것.
- (5) 농산어촌진흥운동도 그 정신적 지도는 연맹의 지도 원리의 목표로 귀일할 필요가 있다. 이들 운동과 연맹의 운동은 상호 중복하고 병행하여 시국에 상응할 수 있도록 더욱 강력 유효하게 전개할 필요가 있으므로 더욱 긴밀한 연계를 유지할 것.

8) 국민정신총동원 연맹원 필행 2칙 제정의 건

문(文) 제32호

1939년 5월 10일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이사장 앞
문서과장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은 귀 연맹에서 결성 당시 제정한 연맹강령 및 실천사항에 의거하여 실시되어왔다. 이 가운데 실천사항은 21항목 중 당면 특별히 실천력을 집중해야 할 사항을 적출하여 애국반장의 이해와 기억을 통해 용이하게 반원을 실천 지도할 수 있도록 간명한 필행 사항을 결정할 필요를 느꼈다. 이에 저번 총독부 정신총동원 위원회와 동 간사회에서는 검토를 통해 현재 실시중인 궁성요배와 더불어 근로저축을 추가하여 당면한 필행 2칙으로 결정하였다. 귀 연맹은 이러한 취지를 양해하여 이사회 기타 필요한 기관에 회부하고 논의 결정하여 연맹원에게 지급 통달하기를 바란다.

기(記)

- (1) 궁성요배
- (2) 근로저축

비고

- (1) 본 필행 2칙은 연맹 실천요목인 21항목에서 적출하여 당면 특별히 실천에 주력을 집중하는 것이다.
- (2) 본 필행 2칙은 애국반장이 이해하여 반원에게 곧바로 실천시킬 사항이기 때문에 간명해야한다.

9) 조선에서 지나사변 2주년 기념행사 실시에 관한 건

문(文) 제42호

1939년 6월 13일

제1차 소속관서의 장 앞
정무총감

위의 건에 관해 지난 7월 7일 지나사변 발발 2주년 당일 별지 '조선에서의 지나사변 발발 2주년 기념행사 실시요강'에 의거하여 지방의 실정에 따라 국민정신총동원연맹과 협력하여 실시하였다.

동 건(同伴)

조선연맹 총재 앞
정무총감

위의 건에 관해 지난 7월 7일 지나사변 발발 2주년 당일 별지 '조선에서의 지나사변 발발 2주년 기념 행사 실시요강'에 의거하여 지방의 실정에 따라 모든 조선에서 일제히 실시하기로 하였기에 협력을 바란다. 또한 당일을 중심으로 전후 하루씩 적당히 소비절약일, 폐품회수일 등으로 정하여 지방의 실정에 맞는 애국반 행사를 필히 실시하여 연맹운동의 의의를 높이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이 가운데 근로보국작업 및 위문보따리 모집은 실시하는데 특히 유감이 없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추가로 도지사를 비롯해 제1차 소속관서의 장 앞으로 귀 연맹과 협력하여 실시하도록 별도로 통첩을 보냈다.

참고)

총독부 각 국장, 관방부 과장, 조선의 33개 신문사 사장에게는 문서과장이 각각 본 건의 취지를 통첩 하거나 의뢰하였다. 또한 척무성 조선부장, 내각 정보부장, 조선군 참모장에게도 동일하게 보고하였다.

<별지>

조선에서의 지나사변 발발 2주년 기념행사 실시요강

(1) 취지

오는 7월 7일은 지나사변 발발 2주년에 해당한다. 현하 국제정세의 변화와 흥아대업의 의의를 더욱 깊이 인식하고, 거국일치 체제 아래 내선일체의 내실을 거두어야 한다. 국민정신을 총동원하고 국가총력의 증강을 도모하고, 제국의 소기 목적의 관철에 매진하여 더욱 국민적 결의를 견고히 하고자 한다.

(2) 실시방법

① 국기계양

- 각 호에 국기를 계양한다.

② 소원(訴願) 및 추모

- 신사(神社), 신사(神祠) 등지에서 출정 장병의 무운장구 소원제를 거행할 것.

- 신도, 불교, 가독교 등에서는 전몰장병의 위령법요 및 국위선양 황군장병의 무운장구 소원을 실시할 것.

③ 칩어봉독

- 관공서, 학교, 각종단체, 회사, 은행, 공장 등에서는 '지나사변 1주년에 즈음하여 하사된 칩어'의 봉독식을 거행할 것.

④ 묵도

- 정오를 기해 각자 소재지에서 전몰장병의 영령을 추모하고 출정 장병의 무운장구를 소원할 것.

⑤ 근로보국작업

- 당일을 기하여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은 모든 조선에서 일제히 애국반의 출동을 요구하고, 근로보국대의 활동을 통해 각각 지방에 적당한 작업을 실시하여 기념일이 시국인식에서 가장

의의가 있도록 조치할 것.

⑥ 위자(慰藉) 및 위문

가. 군인유가족 위자 및 위문은 군사후원연맹과 국민정신총동원연맹과 협력하여 가정방문, 가업 협조 등 적당한 방법을 강구할 것.

나. 위문 보따리(또는 위문금)의 모집은 대개 연맹 애국반 모두가 1개 반마다(농산어촌에서는 대체로 부락연맹마다) 1개 정도를 모집하여 부군도 군사후원연맹 앞으로 송부할 것.

⑦ 일채(一菜)주의의 실행

실질강건, 인고결핍에 견뎌낼 수 있는 정신의 함양과 더불어 황군장병의 어려움을 생각하기 위해 일채주의를 실행하고, 식사의 간소절약을 도모할 것.

10) 지방출장시의 애국반 활동상황 시찰요항의 건

문(文) 제51호

1939년 6월 22일

총독부 각 국장, 관방부 과장 앞
문서과장

이번 총독의 지방순찰의 결과, 연맹 애국반의 활동이 아직 철저하지 못하여 유감스러운 점이 있어 앞으로 상당한 지도계발이 필요하다. 이에 귀관 및 부하 직원의 지방출장 시는 주관사항 이외에 다음 각 항을 시찰하여 본 운동의 목적달성에 배려하기 바란다.

참고로 애국반의 현황은 별지를 참조하기 바란다.

기(記)

(1) 주로 시찰할 사항

- ① 애국반은 연맹조직대강에 의거하여 결성되었는가.
- ② 애국반의 오늘까지의 활동상황.
- ③ 애국반장은 그 직책을 알고 있는가.
- ④ 애국반원의 시국인식의 정도.
- ⑤ 애국반과 상급연맹과의 연계는 어떠한가.
- ⑥ 애국반의 타 단체와의 관계.
- ⑦ 연맹 및 애국반에 대한 도, 부, 군, 읍, 면 간부의 지도상황.
- ⑧ 애국반의 활동을 촉구하기 위해 앞으로 특히 무엇에 힘을 쏟아야하는가.

(2) 기타 참고 사항

11) 국민정신양양순회강연회 실시의 건

1939년 8월 3일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이사장 앞
문서과장

위의 건에 관해 별지 실시요강대로 학무국장이 문서를 발송하였다. 귀 연맹은 강연회 주최자를 비롯해 지방 파견강사의 할당, 회장(會場) 설비, 각 도와의 연락 기타 모든 사항에 대해 준비하여 빠짐이 없도록 준비하기 바란다.

참고로 각 도지사에게 대해서는 별지 사본대로 통첩하였으므로 알아두기 바란다.

동 건(同件)

각 도지사 앞
문서과장

오는 8월과 9월 중에 조선연맹 주최로 다음 실시요항에 따라 위 제목의 순회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임으로 귀 도 개최 시에는 가급적 이를 참조하기 바란다.

기(記)

(생략)

〈별지〉

국민정신양양순회강연 실시요강

(1) 취지

지나사변 제2주년을 맞이해 시국은 더욱 중대해지고 여기에 제3국과의 교섭 또한 매우 심각 미묘하여 국민으로서의 윤안(倫安)이 불안한 상태이다.

이번 기회에 각 도에 남녀강사를 파견하고, 대중에게 시국의 추이를 인식시킴과 더불어 총후국민으로서의 결심과 견고한 각오를 새롭게 하고자 한다.

(2) 강사후보자

별지와 같음(생략)

(3) 강연제목

- ① 시국추이에 대한 인식
- ② 정신총동원

- ③ 100억 저축
 - ④ 생활쇄신
 - (4) 순회 지방 및 기간
 - ① 각 도 8월, 9월 중으로 한다.
 - ② 순회일수는 왕복 10일간 이내로 하고 강사의 형편을 참조하여 결정한다.
 - ③ 강연지 및 일정은 ②에 의거하여 각 도의 결정에 따른다.
 - (5) 수당(생략)
 - (6) 경비(생략)
 - (7) 기타
 - ① 각 후보자에 대해 강사(학무국 일시 촉탁) 수락 조회 위에 총독부 또는 다른 장소에 모여 타합할 것.
 - ② 타합회에서 전국(戰局)의 추이 등에 관한 강연을 청강시킬 것.
 - ③ 강연 자료를 모집 교부할 것.
 - ④ 이상 결정 위에 각 도연맹에 통첩할 것.
 - ⑤ 각 강사에게 각지 연맹 애국반의 철저 상태를 조사하게 하고 그 보고서를 모아 본관 앞으로 2통 제출할 것.
- 6월 24일자 본관 명의를 통첩 '지방출장 시 애국반의 활동상황 시찰요항(要項)의 건'에 준하여 시찰요항을 작성 교부할 것.

12) 흥아봉공일에 관한 건

문(文) 제73호

1939년 8월 15일

각 도지사 앞

정무총감

이번 내각에서는 매월 1일을 흥아봉공일로 정하여 모든 국민이 당일 특별히 전쟁터를 우러러 자숙과 자성을 적확(的確)히 실제생활에 구현하고, 일억일심 흥아의 대업을 부익함으로써 국력의 증강을 도모하고 강력한 일본진설로 매진하는 날로 항구 실천의 원천으로 삼았다. 조선에서는 지난 1937년 지나사변 발발 이후 이미 매월 모든 조선에 걸쳐 애국일 행사를 실시해왔다(1937년 11월 17일자 사교(社敎) 제225호 정무총감 통첩, 애국일의 일반실시에 관한 건 및 1937년 9월 15일자 학(學) 제256호 학무국장 통첩, 학교에서의 애국일 설정에 관한 건). 황국정신의 선양을 도모하면서 근로보국작업을 실시하고 있고(1938년 6월 26일자 사교(社敎) 제106호 정무총감 통첩, 국민정신총동원운동 근로보국운동에 관한 건), 그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취지에서는 이번 창정된 흥아봉공일과 완전히 그 성격이 같다. 종래의 애국일을 흥아봉공일로 대신하고, 앞의 통첩에 따른 애국일 행사의 철저한 실천을 촉구한다. 더불어 생

활의 쇠신과 자숙자성을 병행함으로써 항구 실천의 원천으로 삼고자 오는 9월 1일부터 이를 실시한다. 별도로 총독 유고(諭告)의 취지를 체현함과 더불어 관내의 관민이 필히 실시함으로써 전통적 정신력을 집결하고 국가충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격단의 관심을 바란다.

참고)

총독부 각 국부장, 관방과장, 제1차 소속관서의 장(도지사 제외) 및 조선연맹 총재에게는 본 건 취지의 통첩을 발송하였다.

흥아봉공일에 관한 건

1939년 8월 19일

각 도지사 앞

문서관장

8월 15일자 문(文) 제73호 정무총감 통첩인 위의 건에 관한 명칭에 대한 의문으로 조회가 있는 바, 위는 전국적으로는 '흥아봉공일'이라고 부르지만, 조선에서는 '애국일(흥아봉공일)'로 부르고 여기에 새롭게 자숙, 자성, 생활쇄신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것이라고 이해바라며 이에 통지한다.

참고)

총독부 각 국부장, 관방과장, 제1차 소속관서의 장(도지사 제외) 및 조선연맹 이사장에게는 본 건 취지의 통첩을 발송하였다.

13) 휴일 시 애국일(흥아봉공일) 실시방침에 관한 건

1939년 9월 13일

제1차 소속관서의 장 앞

문서관장

위의 건에 관해서는 이미 배려 중이라고 생각하는 바, 당일 일을 쉬는 관공서, 학교, 은행, 회사, 공장 등에서는 특별히 출근 또는 등교하지 않고 휴일로서 애국일(흥아봉공일)을 의의 있게 보내도록 노력해야 한다. 가정인으로서 소속 애국반에서 행사에 솔선 참가하여 본 취지의 준수 면행을 도모하도록 배려하기 바란다.

참고로 총독부에서는 애국일(흥아봉공일) 행사인 요배식은 다음날 실시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아두기 바란다.

참고)

총독부 각 국부장, 관방과장 및 조선연맹 이사장에게는 본 건 취지의 통첩을 발송하였다.

동 건(同伴)

(9월 13일자 통첩 관련)

1939년9월 23일

학무국장, 각 도지사 앞
문서과장

위의 건에 관해 척무성 조선부장으로부터 별지 사본과 같은 내용이 전달되었기에 참고하기 바란다.

참고)

조선연맹 이사장 및 이왕직 서무과장에게 본 건 취지를 전달하였다.

〈별지사본〉

일요일 시 흥아봉공일 실시에 관한 건

관행(管行) 제1호

1939년 9월 14일

조선총독부 관방문서과장 노부하라(信原聖) 앞
척무성 조선부장 다나카 다케오(田中武雄)

일요일의 흥아봉공일 실시방침에 관해서는 9월 8일자 관행(管行) 제1호로 통첩하였다. 당일은 휴일로서 심신단련하거나 위안휴업을 추구하는 경향도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기회에 건전한 위안수련의 기회를 부여함과 동시에 지방단체의 주민으로서의 상식의 함양과 공공생활의 훈련에 노력한다는 취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강구하고자 한다. 기타 적절한 시설을 일반에게 개방하는 등 지도에 배려하라는 내각 정보부로부터의 지시에 의거하여 이를 이첩한다.

기(記)

- (1) 관공 시설의 운동장 및 정원의 개방
- (2) 각종 공공시설의 공개
- (3) 각종 교육적 관람시설의 입장료 할인 또는 무료공개(예를 들면 동물원, 박물관 등)
- (4) 신사 불각(佛閣)의 보물 등의 관람료 할인 또는 무료공개

14) 애국일(흥아봉공일)의 방송자료에 관한 건

1939년 9월 16일

총독부 각 국부장, 관방과장,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이사장 앞
문서과장

이번 경성중앙방송국에서는 매월 1일 애국일(흥아봉공일) 당일 오후 6시 25분부터 10분간 '총후시국 독본'의 시간을 개설하여 아나운서를 통한 국민정신총동원, 시국인식 기타 총후보국운동의 사항을 적절히 방송할 계획이다. 방송국으로부터 방송자료의 의뢰가 있을 때에는 특히 편의를 제공하여 귀 연맹에서도 이를 이용하여 가능한 한 위의 방송자료를 제공하도록 배려하기 바란다.

15) 애국일(흥아봉공일) 행사실시의 건

1939년 8월 21일

총독부 각 국부장, 관방과장 앞
문서과장

총독부에서는 앞으로 매월 1일 애국일(흥아봉공일) 행사로서 다음과 같이 요배식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를 귀 부하직원에게 주지시켜 필히 정각까지 모이도록 시달하기 바란다.

기(記)

요배식 실시요령

- (1) 일시 : 매월 1일 오전 9시(정각 5분전에 전원 집합할 것)
- (2) 집합장소 : 조선총독부 정문 현관
- (3) 식순
 - ① 집합
 - ② 궁성요배
 - ③ 국가합창
 - ④ 묵도
 - ⑤ 황국신민의 서사 제창
 - ⑥ 천황폐하만세
 - ⑦ 해산

비고)

애국일 당일 우천 시에는 대강당에서 거행하고, 휴일의 경우는 다음날 실시한다.

16) 공사(公私)생활을 쇠신하여 전시태세화하는 구체적 방책에 관한 건

문(文) 제62호

1939년 9월 6일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이사장 앞
문서과장

지금 제국의 정세는 정치적, 사회적 태세를 비롯해 공사의 모든 생활을 바쳐 전시태세화하여야 한다. 종전의 폐풍을 타파하고 국민적, 봉공적 생활태도의 강화 철저가 초미의 급무이다. 이번 내지의 국민정신총동원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정부에 답신한 ‘공사생활을 쇠신하여 전시태세화하는 기본방책’(별지)을 정부에서 채택하고 내각 척무성을 통해 이를 이첩하였다. 그 대부분은 조선에서 이미 실행중이지만, 이를 계기로 조선에서는 귀 연맹을 중심으로 다음 사항을 더욱 강화철저에 노력해야 한다. 취지를 이해하고 하부 연맹 및 애국반원의 자발적 활동을 촉구하는 등 최선의 방책에 의거하여 실행하기를 바란다. 참고로 본 건은 실시를 위해 각 도지사에게 협력을 요구하는 별도의 통첩을 발송하였다.

기(記)

(1) 애국일(흥아봉공일) 행사의 면행 철저

종래 실행중인 애국일 행사, 즉 ① 신사(神社) 및 신사(神廟)참배(단, 원격지에서는 국기계양 탑 밑에 모인다), ② 궁성요배, ③ 국기계양, ④ 국가제창, ⑤ 강화(講話, 매번 하지 않아도 된다), ⑥ 황국국민의 서사 제창, ⑦ 천황폐하 만세삼창 및 근로작업 등의 면행을 철저히 함과 동시에 특히 전쟁터를 바라보며 자숙, 자성, 생활의 쇠신을 도모하여 항구실천의 원천으로 삼을 수 있도록 가장 적당한 사항을 철저히 실천해야한다.

(2) 당면 필행 2칙의 면행철저

이전에 정한 다음과 같은 국민정신총동원 연맹원의 당면 필행 2칙의 면행철저를 도모한다.

- ① 궁성요배
- ② 근로저축

(3) 생활쇠신 항목

우선 다음 사항을 쇠신항목으로 삼아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이 지방연맹과 긴밀히 연락하면서 필히 실행하고, 실천지도를 위해 일정시기에 그 성과를 조사 검토하여 적절히 독려해야 한다.

- ① 학생의 금주, 금연
- ② 여관(요리집 겸업자의 요리부는 제외)에서는 밤 10시 이후 주류를 팔 수 없다
- ③ 관혼상제에 따른 폐풍을 타파하여 식을 간소히 한다. 그 가운데 결혼피로연의 간소화, 경조시의 향응 등의 폐지를 실행할 것
- ④ 중원(中元), 세모 기타 증답(贈答)을 절대 폐지하고, 형식적 연하장, 계절 인사장 등을 폐지할 것
- ⑤ 양복은 ‘블랙 코트’, ‘모닝 코트’ 등은 공식의례 이외에는 입지 않고, 표준복 또는 평상복에 천을

두름으로써 경조의 뜻을 표할 것. 또한 양복을 새로 만들 필요가 있을 경우는 신사복이 아니라 표준복으로 할 것

- ⑥ 남자학생, 생도 및 청소년의 장발 폐지
- ⑦ 부녀자의 '파마 웨이브' 기타 부화(浮華), 경박한 머리묶음과 화장 및 복장을 폐지할 것
- ⑧ 기차통학 이외의 학생, 생도의 전차, 버스 등 특별한 경우 이외의 통학을 폐지할 것
- ⑨ 일하는 사람에게 도보 통근을 장려할 것
- ⑩ 의례적인 환송과 환영의 폐지
- ⑪ 연회, 회식의 정리 긴축(단체마다 신고하여 이를 면행할 것). 또한 이런 경우에는 헌수(獻酬)를 절대로 폐지할 것
- ⑫ 시간의 철저한 면행
- ⑬ 7분도 쌀과 배아미 및 대용식 혼식의 장려
- ⑭ 조기(早起)의 면행

〈별지〉

공사생활을 쇄신하여 전시태세화하는 구체적 방책에 관한 건

관행(管行) 제1호

1939년 7월 19일

조선총독부 정무총감 오노 로쿠이치로(大野綠一郎) 앞
척무차관 다나카 다케오(田中武雄)

위의 건에 관해 이번 내각 서기관장으로부터 별지와 같은 통첩이 있어 귀 관하에서도 본 취지를 철저히 이해하고 특단의 배려를 내리기 바란다.

〈별지〉

내각각갑(內閣閣甲) 제156호

1939년 7월 11일

척무차관 다나카 다케오(田中武雄) 앞
내각서기관장 오타 게이조(太田耕造)

이번 국민정신총동원위원회로부터 '공사생활을 쇄신하여 전시태세화하는 기본방책'에 관해 별지와 같은 보고가 있었다. 그 취지가 대체로 상당(相當)하다고 인정됨으로 관계 각 방면에서는 실행할 수 있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이를 실행에 옮겨 더욱 공사(公私) 생활을 쇄신하고 전시태세의 강화에 노력하도록 조치할 것을 내각 결정하였다. 이에 통첩한다.

<별지>

각정정(閣情精) 제11호

1939년 7월 6일

내각총리대신 남작 히라누마 키이치로(平沼騏一郎) 앞
국민정신총동원위원회 위원장 남작 아라키 사다오(荒木貞夫)

공사 생활을 쇄신하여 전시대세화하는 기본방책에 관해 당 위원회에서 별지와 같이 결정하였기에 보고한다.

<별지>

공사생활을 쇄신하여 전시대세화하는 기본방책

(1939년 7월 4일, 국민정신총동원위원회 결정)

시국에 조응하여 정치적, 사회적 태세를 시국화하는 일은 이번에 제반 방면에 걸쳐 이루어져야 한다. 그 가운데 공사생활을 쇄신하여 전시대세화를 도모하는 일은 각자의 노력을 통해 일상생활에 살릴 수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활쇄신운동으로서 특히 강조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세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적 생활태도의 폐풍을 숙정하여 더욱 국민적, 봉공적 생활태도를 강화해야 할 시기이다.

사태는 쓸데없는 논의에 시일을 낭비할 수 없다. 개선의 필요성이 절실한 것의 경중을 따지지 말고 그 실천을 통해 국민정신의 긴장을 촉구하여야 한다. 특히 도시에서 그 필요성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구체적으로 실행사항을 정하고, 국민이 서로 협력하여 철저히 실천하도록 매진해야 한다.

(1) 국민생활일의 설정

정부는 매월 일정한 날을 국민생활일로 정하였다. 특히 당일은 모든 국민이 전쟁터의 노고를 생각하여 강력한 일본 건설을 향해 매진해야 한다. 엄숙 활달한 기분으로 국민생활강요(國民生活綱要)에 따라 일본정신을 여실히 현현(顯現)하고, 자숙자성을 실제생활 위에 구현함으로써 항구실천의 원천으로 삼는 날이 되어야 한다.

(2) 국민생활강요의 제창

‘거국일치’, ‘진충보국’, ‘견인지구’의 지표 아래 국민생활강요를 만들었다. 특히 매일 엄수 면행할 항목을 더욱이 강조하여 지방의 실정과 대상에 따라 이를 구체화하고 철저히 보급해야 한다.

국민생활강요(綱要)

- ① 조기(早起)면행 ② 보익감사 ③ 대화(大和)협력 ④ 근로봉공
- ⑤ 시간엄수 ⑥ 절약저축 ⑦ 심신조련

(3) 제1기 쇄신항목

우선 쇄신항목으로서 다음 사항을 정하여 강력 실천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 정부는 각각 그 소관사항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고, 더불어 국민정신총동원 중앙연맹은 이를 철저히 보급하는데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제2기에는 앞의 성적을 검토하고 더욱이 쇄신항목을 추가해야 한다.

- ① 요리점, 음식점, 카페, 대합(待合), 유흥장 등의 영업시간 단축
- ② 네온사인의 억제
- ③ 일정 계층의 금주, 일정 장소의 금주
- ④ 관혼상제에 따른 폐풍 타파, 그 가운데에서도 사치스러운 결혼피로연 등의 폐지
- ⑤ 중원(中元), 세모의 증답(贈答) 폐지
- ⑥ 복장의 간소화
 - '블랙 코트', '모닝 코트'의 착용은 공식의례에 한정하고, 기타는 평상복으로 대신할 것
 - 남자학생 생도의 장발금지
 - 부녀자의 '파마 웨이브' 기타 부화(浮華)한 화장과 복장금지

(4) 철저방법

공사(公私)생활의 전시대세화를 철저히 하기 위해 기존의 실행조직을 정비한다. 각 관공서, 회사, 공장 등은 직장별, 시정촌의 구(區), 정(町) 내의 부락 등은 지역별, 각종단체 학교별로 지도 독려의 담임자를 결정한다. 이들은 국민 각 개인에게 침투하도록 스스로 솔선실행하고 지도 독려해야 한다.

공사생활을 쇄신하여 전시대세화하는 기본방책의 구체적 분담

(항목 중 ○인은 조선 측 추가분)

	내지 측			총독부 측		
	담임관청	주요협력관청	주요협력단체	담임국부과	주요협력국부과	주요협력단체
1. 애국일 행사 및 당면 필행2칙의 면행철저○	-	-	-	관방문서과	각 국부관방과 외 국	조선연맹
2. 요리점, 음식점, 카페, 유흥장 등의 영업시간 단축	내무성	내각정보부 후생성	중앙연맹	경무국	관방문서과 학무국	조선연맹
3. 네온사인의 억제	내무성	내각정보부	중앙연맹	경무국	관방문서과	조선연맹
4. 일정 계층의 금주, 일정 장소의 금주○	문부성 철도성	내각정보부 내무성 후생성	중앙연맹	학무국 철도국	관방문서과 경무국	조선연맹
5. 관혼상제에 따른 폐풍타파	문부성 후생성	내각정보부 내무성	중앙연맹	학무국	관방문서과 경무국 내무국	조선연맹
6. 중원(中元), 세모의 증답(贈答) 폐지	상공성 후생성	내각정보부 문부성	중앙연맹	관방문서과 식산국	학무국 경무국 내무국	조선연맹
7. 복장의 간소화	후생성	내각정보부	중앙연맹	관방문서과	경무국	조선연맹

		문부성 상공성		학무국	내무국 식산국	
8. 남자학생 생도의 장발금지 기차통학 이외의 전차 버스 등의 승차 제한○	문부성			학무국	관방문서과 철도국	조선연맹
9. 부녀자의 '파마 웨이브' 기타 부화한 화장과 복장금지	후생성	내각정보부 내무성 문부성 상공성	중앙연맹	관방문서과	학무국 내무국 경무국 식산국	조선연맹
10. 형식적 연하장, 계절 인사장 등의 폐지 및 의례적인 환 송과 환영의 폐지○				관방문서과	학무국 경무국	조선연맹
11. 연회 회식 등의 정리 긴축 및 헌수(獻酬)의 폐지○				관방문서과	학무국 경무국	조선연맹
12. 시간의 철저한 면행○				학무국	관방문서과	조선연맹

비고)

1. 담당 국부과(局部課)는 신속히 구체적 계획을 입안하고 주요 협력 국부과 및 관방문서과를 통해 조선연맹과 협의를 거쳐 실시할 것.
2. 담당 국부과 입안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협력 국부과를 추가할 것.
3. 조선연맹은 가맹단체 및 기타 단체와 협력하여 실시할 것.
4. 관방문서과는 필요에 따라 국부과 또는 단체 상호간의 연락조정을 도모할 것.

17) 애국반의 활동을 적극적, 자발적으로 만드는 방책에 관한 건

1939년 9월 6일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이사장 앞
문서과장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실천조직망인 애국반은 모든 조선에 빠짐없이 결성되어 본 운동의 실천적 활동을 담당해왔다. 애국반의 활동을 강화하고 더욱이 자발적 적극적 활동을 촉구하여 긴박한 시국의 국민총동원 태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그 적절한 방책을 강구하던 바, 총독부 정신총동원 간사회에서 우선 다음과 같은 각 항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다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이에 귀 연맹에서 이를 참조하여 적절한 방책을 수립 실시하기를 바란다.

참고로 귀 연맹에서 이들 방책을 연구 수립하기 위한 요령을 회부한다.

기(記)

- (1) 조선연맹 총재로부터 간단한 격문(국어 또는 언문 등 적당히 사용할 것)을 애국반장 앞으로 발송

하여 분기를 촉구할 것.

- (2) 부락연맹마다 애국반장의 회합을 수시로 개최시켜 상호 연락을 충분히 나누고 분기를 촉구할 것. 단 경비가 필요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 (3) 근처 애국반을 상호 시찰하여 계발에 도움이 될 것.
- (4) 각 애국반마다 신청을 통해 적당한 권장제도를 만들어 실행사항의 필행을 도모할 것.
- (5) 특히 도회지의 은행, 회사 등에 연맹 및 애국반의 결성을 촉구하고, 정신총동원운동의 철저 특히 생활쇄신의 내실을 거둘 것.
- (6) 절약저축의 철저를 도모하기 위해 은진(殷賑)산업 종사자 등에게 일정 기준의 원천징수(天引) 저금을 시키거나 또는 국채로 지급할 것.
- (7) 철저한 애국작업, 좌담회 등을 통해 올바른 일본정신을 주입하여 인심이 의거할 바를 알릴 것.
- (8) 중견인물을 양성하는 시설을 강구할 것.
- (9) 적극적으로 폐품회수운동에 협력하여 물건의 절약 및 애호관념을 철저히 할 것.
- (10) 우량 애국반의 표창제도를 실시할 것.

18) 만주사변 8주년 기념행사에 관한 건

1939년 9월 8일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이사장 앞
문서과장

오는 9월 18일은 만주사변 8주년 기념일이다. 동 사변은 결과적으로 동아신질서 건설의 초석을 만든 정말로 의의 깊은 날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나사변의 진전과 구주 상세(狀勢)의 대전환에 따라 지금 제국은 복잡하고 다난한 시국에 대처하기 위해 올바른 시국인식의 철저와 격단(格段)한 민심의 긴장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기념일에는 국기계양, 전사 장병에 대한 감사 묵도 등 적당한 행사를 실시하고자 군 당국과 협의한 결과, 본 행사는 그 성질을 감안하여 귀 연맹의 주최 아래 시행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그 시행에 배려해주기 바란다.

참고로 본 건 실시는 군부에서 특히 희망하는 바, 귀 연맹은 이를 고려해주기 바란다.

19) 포상(褒賞)조례 제2조에 의한 공익단체로서의 인정 건

1939년 9월 12일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이사장 앞
문서과장

귀 연맹을 1939년 9월 8일부터 1943년 9월 7일까지 위 제목의 공익단체로 인정하여 본일 통보한다.

동 건(同伴)

1939년 9월 18일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이사장 앞
문서과장

위 제목의 건에 관해서는 9월 12일자로 통지한 바 있다. 인정 기간 중에는 특히 총재로부터 다음 사항에 대한 문의가 있을 때에는 유의하여 준수하기 바란다.

- (1) 기부행위, 규칙, 임원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는 신속히 그 내용을 당 과(課)에 보고할 것.
- (2) 매년도 출납 폐쇄 후 3개월 이내에 재산목록, 세입세출 결산서, 사업보고서, 차년도 세입세출 예산서 및 차년도 사업계획서 각 4부를 당 과에 제출할 것.

20) 100억 저축강조 실시에 관한 건

1939년 6월 6일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이사장 앞
문서과장

이번 내지에서는 6월 15일부터 1주간 백억 저축강조주간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조선에서도 이에 호응하여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추축으로 상여국채 등 지급운동과 병행하여 3억 저축을 목표로 별지 요강에 따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각 도 및 금융기관에 대해서 그 실시 협력을 둘러싼 재무국장 및 체신국장으로부터 통달이 있었다. 이는 본 운동의 본질을 감안하여 귀 연맹을 주체로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한다. 이를 참조하여 계획을 세우기 바란다.

<별지>

100억 저축강조주간 실시에 관한 건

1939년 6월 7일

각 도지사 앞
재무국장 및 체신국장

저축의 장려는 각각 배의(配意) 중이라고 생각한다. 내지에서 이번 달 15일부터 1주간에 걸쳐 백억 저축강조주간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금 사변은 이미 새로운 단계에 들어가 저축의 강화철저는 더욱 긴요해졌다. 지금은 현단계에 적응하고 나아가 시국인식의 철저를 도모하여 상여국채지급운동과 병행하

여 저축의 면행에 노력할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내지와 호응하여 별지 요강에 따라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과 연락 협의를 유지하면서 백억 저축강조주간을 실시함에 따라 관내의 각 금융기관 및 우편국과 밀접한 연계를 도모하여 실시지도에 배려하기 바란다.

참고로 귀 관하의 회사, 은행, 공장, 광산, 각종단체 등에서 상반기 말 상여의 지급은 국채 및 저축채권의 소화에 기여하기 위해, 별도 통첩 '상여를 국채 및 저축채권으로 지급하는 건'에 의거하여 상여국채지급운동의 철저를 더불어 배려해주기 바란다.

<별지>

100억 저축강조주간 실시요강

(1) 명칭

100억 저축강조주간

(2) 기간

1939년 6월 15일(목)부터 1939년 6월 21일(수)까지 1주간

(3) 실시사항

'1939년도 저축장려 방책'에 의거하여 특히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 저축장려운동의 강화를 도모할 것.

- ① 새로운 제창 '일억일심(一億一心) 100억 저축'의 취지를 철저히 할 것.
- ② 저축조합을 정비 확충하고 특히 도시 및 은진산업 방면의 저축조합을 강화하여 조합저축 증가운동의 철저를 도모하고 목표액 달성에 노력할 것.
- ③ 상여(賞與) 고율저축 및 상여 국채지급운동의 취지 철저를 도모할 것.
- ④ 저축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생활 전반을 검토하여 간소생활의 풍조를 조성하고, 일반물자에 대해 극력 소비절약에 노력할 것.
- ⑤ 각 금융기관, 우편국은 상호 밀접히 연락을 취하고 관공서, 학교, 회사, 공장, 상점, 각종 사회 교화단체, 각종 조합 등 각종 단체의 협력을 요구할 것.
- ⑥ 각종 금융기관, 우편국은 저축의 편의를 도모할 방책을 강구할 것.
- ⑦ 라디오 이용
주간 중 수 일을 택하여 저축 장려에 관한 방송을 실시할 것.(내지 중계방송을 포함)
- ⑧ 신문잡지를 통한 선전
주간 전 및 주간 중에 저축에 관한 표어 및 기사를 잘 보이는 위치에 게재할 것.
- ⑨ 기타 유효적절한 계획을 세울 것.
- ⑩ 총독부에서는 저축 장려에 관한 표어 및 포스터 현상모집을 실시할 것.

(4) 실시상의 주의

- ① 본 주간의 실시에 즈음하여 기왕의 실적을 감안하고 또 농촌방면은 농번기라는 사정을 고려하여 도시에 중점을 두고 지방의 실정에 따라 적절한 실시계획을 수립할 것.

- ② 관공서, 학교, 기타 각종 직장, 지역단체 및 저축조합은 생활쇄신, 저축실행에 관한 구체적 실천항목을 결정하여 그 면행을 도모할 것.
- ③ 각 방면에 걸쳐 생활쇄신, 저축실행의 취지에 배치되는 사항을 극력 억제할 것.
- ④ 특별한 사정이 있는 지방에서는 본 주간의 기일을 다소 변경하여도 무방하다.

〈별지〉

100억 저축강조주간 실시에 관한 건

1939년 6월 7일

각 금융조합 대표자 앞

재무국장

저축의 장려는 저번 제2회 저축장려위원회에서 본년 저축목표를 3억 원으로 결정하고 기타 각 도 목표액 및 저축장려 대책 등을 수립하였다. 내지에서는 이번 달 15일부터 1주간에 걸쳐 100억 저축강조주간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금 사변은 벌써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어 말할 필요도 없이 앞으로 더욱 거액의 자금과 다량의 물자가 필요하다. 저축의 강화철저가 더욱 긴요함으로 이번에 현단계에 적응하고 나아가 시국인식의 철저를 도모하면서 저축보국을 강조하고 그 실천에 노력하는 것이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이에 내지와 호응하여 각 금융기관 상호간의 연락 위에서 별지의 백억 저축강조주간 실시요령에 따라 별도로 의뢰하고, 상여 국채지급운동의 진과도 관련하여 그 실시를 배려하기 바란다.

21) 국민정신총동원운동 조직도해(組織圖解)에 관한 건

1939년 9월 23일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이사장 앞

문서과장

7월 10일자로 도착한 위의 건은 아국의 가족제도(조선에서도 동일)가 개인은 전부 가(家)에 포함되기 때문에 귀 연맹에서도 개인은 별도로 연맹가입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가에 포함된 상태에서 가입하는 것이 당연하다. 6월 28일자 위의 건에 따라 '애국반' 밑에 '호'를 붙여 '개인'을 삭제하는 것이 적당함으로 이를 알린다.

(부)

정동운동 조직도해에 관한 건

1939년 7월 10일

문서과장 앞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이사장

6월 28일자로 국민정신총동원운동 조직도해 중 정정 신청이 있었다. 이에 '부연맹의 하부조직 정동리 연맹 및 읍면연맹의 하부조직 정동리부락연맹의 하부 각 애국반과 개인과의 사이에 호를 추가한다'로 정정한다.

22) 국민정신총동원에 관한 사무분장의 건

1939년 10월 13일

각 도지사 앞

문서과장

국민정신총동원운동에 관한 사무를 도부군도사무분담 규정상 독립된 1항목으로 명시하여 '사회교화에 관한 사무' 등에 포함시킬 의향은 없다. 하지만 본 사무는 현하 총독시정의 주요항목으로서 반도의 현상 또한 본 운동의 적극적 발전에 의지하는 바가 크다. 앞으로 더욱 강화철저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총독부 사무분장규정 중에도 독립된 항목(제2조 문서과 주관사항)으로서 규정되는 것에 준하여 각 도 부군도에서도 사무분장규정 중 '국민정신총동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 삼입함과 동시에 직원배치에서도 이를 배려하기 바란다. 또한 본 운동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본 건에 관한 요원을 중앙과 지방에 걸쳐 내년도 예산에 요구중이다.

23) 국민정신총동원운동에 관한 특수사항 실시에 관한 건

1939년 10월 14일

체신, 철도, 전매 각 국장, 각 도지사 앞

문서과장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진전을 위한 참고사항과 관련하여 귀관이 실시하는(현재 및 장래) 특수사항 중 주요한 사항의 실시요령을 통보하니 관하로 통달되는 것은 그 통첩 사본 1부를 송부하기 바란다.

24) 세모(歲暮)의 증답(贈答) 폐지에 관한 건

문(文) 제109호

1939년 11월 9일

총독부 국부장, 관방과장, 제1차 소속관서의 장 앞
정무총감

표기한 건에 관해 각 성 차관회의의 결정에 의거하여 전국적으로 면행하기로 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철저를 도모하도록 통첩한다.

기(記)

- (1) 관공리는 솔선하여 세모의 증답 폐지를 실행할 것.
 - (2) 은행, 회사, 상점, 공장 등에 세모의 증답 폐지를 실행시킬 것.
- 이를 위해 각 국 및 각 과는 감독하는 각종단체, 조합 등에 대해 세모의 증답 폐지를 통첩할 것.

25) 경제전 강조운동 실시에 관한 건

문(文) 제1012호

1939년 11월 16일

총독부 국부장, 관방과장, 제1차 소속관서의 장 앞
정무총감

내지에서는 오는 12월 1일부터 1개월간 전국적으로 경제전 강조운동을 실시한다. 이에 조선에서는 종래 실시해온 것을 여기에 합류시켜 별지의 요강에 따라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본 운동의 취지를 철저히 배려하기 바란다.

참고)

조선연맹 이사장에게 본 건의 취지를 통첩하였다.

〈별지〉

경제전 강조운동 요강

(1) 취지

이번에 구주전쟁이 발발되었지만, 아국은 이에 개입하지 않고 오로지 지나사변의 처리에 매진하면서, 복잡다난한 국제정세에 대처하여 강력한 일본을 건설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군비의 충실, 생산

력의 확충, 대륙의 건설에 더욱 진중한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일억 국민은 구주 전국(戰局)의 추이에 이목을 집중하면서, 더욱 종합국력의 발휘를 향해 매진해야 한다. 특히 세말을 맞이하여 경제전 강조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2) 기간

12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

또한 12월의 애국일(홍아봉공일)에는 경제전 강조의 취지를 철저히 할 것.

(3) 실시사항

- ① 경제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안으로 우리 경제력의 강화가 더욱 긴요한 이유 및 경제력 강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 특히 물가의 인상금지 등 최근의 물가정책에 대한 철저한 이해를 통해 전국적 협력을 강조할 것(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식산국장이 통첩한다)
- ② 물자활용 및 소비절약을 면행하고 공사생활을 쇄신하여 전시태세화하여야 한다. 특히 세말을 맞이하여 강조해야 할 사항의 철저를 도모할 것(구체적인 사항은 별도로 문서과장이 통첩한다)
- ③ 전시 식량의 충실을 도모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소비절약을 면행할 것(별도로 농림국장이 통첩한다).
- ④ 국민저축의 증가를 도모해야 한다. 특히本年度 전반의 저축실적을 올리고, 3억 저축달성을 위해서는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여 연말의 상여와 수당 수익 및 생활쇄신, 소비절약을 통해 얻은 잉여금을 극력 저축할 것(별도로 재무국장이 통첩한다).

(4) 실시에 즈음하여 특히 유의할 사항

- ① 도시에 주력을 쏟을 것.
- ② 은진산업 관계자 및 사회 상층부의 실천을 특히 촉구할 것.
- ③ 구주전쟁이 우리 경제계에 미칠 영향을 낙관하여 쓸데없이 전쟁경기를 구가하는 것이 가장 경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
- ④ 경제 통제를 위반하는 행위는 증오할만한 비국민적 죄악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

경제전 강조운동 실시에 관한 건

1939년 11월 17일

총독부 각 국부장, 관방과장, 제1차 소속관서의 장,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이사장 앞
문서과장

이번 달 16일자 문(文) 제112호 정무총감 통첩 위의 건에서 제3항의 (2)는 다음과 같이 실천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배려하기 바란다.

기(記)

(1) 소비절약

- ① 물자의 사장(死藏)을 배제하고 적극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용 및 애호의 방법을 강구할 것.
- ② 물자의 소비를 극력 절약하고 특히 불급불요품을 구입하거나 사치품은 절대로 구입하지 않을 것.
- ③ 기타 일상생활은 극력 간소히 할 것.

(2) 생활새신

- ① 증답품(贈答品)의 폐지(금년 11월 9일자, 문(文) 제109호 정무총감 통첩, 세말의 증답 폐비에 관한 건 참조).
- ② 망년회, 신년연회, 연학회례는 가급적 열지 않고, 어쩔 수 없는 경우는 극히 간소화할 것.
- ③ 연하장 폐지.
- ④ 소나무결기 기타 신년 향례의 행사는 시국을 고려하여 극히 간소화할 것.
- ⑤ 도소(屠蘇)를 축하하는 것은 우리나라 고래의 관행으로 금지할 필요가 없지만, 도소(屠蘇)의 이름을 빌려 음주의 경향을 조장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비고)

이상 각 항목 이외에 전년도의 실시사항 등을 참조하고, 나아가 지방의 실정에 따라 더욱 철저히 시행하도록 배려하기 바란다.

3억 저축축진 경제전 강조운동에 관한 건

(1939년 11월 16일자 文 제112호, 정무총감 통첩, 경제전 강조운동에 관한 건 관련)

1939년 11월 18일

총독부 각 국부장, 관방과장, 제1차 소속관서의 장 앞
재무국장, 체신국장

경제전 강조운동 실시사항 가운데 제4항의 3억 저축강조는本年度 전반기의 저축실적을 강조하고 목표액 달성을 위해서는 더욱 노력이 필요하다. 다음 사항을 유의하면서 각각 구체적 방책을 수립하여 저축증가에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기(記)

- (1) 이번은 별도로 저축강조주건을 실시하지 않는다. 본 운동기간에 3억 저축의 축진을 강조하고 기왕

의 저축강조주간의 실적을 감안하면서 지방 실정에 적응하는 계획을 세워 저축성적의 향상을 도모할 것.

(2) 국제정세의 변전(變轉)에 동반한 국내물자의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소비절약과 저축증가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하고 있음을 일반에게 철저히 알릴 것.

(3) 관공서, 은행, 회사, 공장 등의 근무자는 연말 상여를 극력 저축할 것. 특히 은진산업 관계기타 수입의 증가한 자는 고율저축을 실행할 것.

(4) 각 저축조합은 연말에 수입증가의 실정에 따라 특히 저축률의 상승 등 연말구매력의 흡수수단을 강구할 것.

(5) 상여 국채지급운동은 별지의 요강에 따라 철저히 실시하고, 국채 또는 저축채권의 응모에 노력할 것.

〈별지〉

1939년 말 상여 국채구입(지급)운동 실시요강

(1) 취지

연말 상여가 지급됨에 즈음하여 고율저축의 실현을 도모하고, 또 한편으로 국채 및 저축채권의 소화에 기여하기 위해 각 관공서, 은행, 회사, 공장, 광산, 각종단체 등은 본년도 말에 지급된 상여, 기말수당, 임시수당 등의 일부를 지나사변 국채 혹은 저축채권으로 지급한다. 또 상여수당 등의 수급자로 하여금 지나사변국채 혹은 저축채권을 구입하도록 전국적인 운동을 전개하여 백억 저축의 촉진을 도모한다.

(2) 지급표준

① 국채 혹은 저축채권을 지급하거나 구입할 금액은 다음 표준에 따를 것.

상여, 기말수당, 임시수당 등 100원이하인 자	1할 상당액 이상
상여, 기말수당, 임시수당 등 250원이하인 자	1할 5분 상당액 이상
상여, 기말수당, 임시수당 등 500원이하인 자	2할 상당액 이상
상여, 기말수당, 임시수당 등 1000원이하인 자	2할 5분 상당액 이상
상여, 기말수당, 임시수당 등 5000원이하인 자	3할 5분 상당액 이상
상여, 기말수당, 임시수당 등 5000원을 넘는 자	4할 5분 상당액 이상

② 은진산업 방면은 특히 위의 비율보다 높을 것.

(3) 실시방법

① 각과는 물론 그과에서 실행하지만, 소속 각과, 관계회사, 관계단체 등에 취지의 보급철저를 도모하여 실행을 요구할 것.

② 도청은 관내 은행, 금융조합, 회사, 공장, 광산 등에 대해 대표자의 회동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취지의 보급철저를 도모하고 그 실행을 요구할 것. 대표자 회동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석상에서 실행 신청을 실시할 것.

③ 작년 말 또는 본년도 상반기 말의 상여 국채지급운동의 실적을 징수하고, 상여 국채지급의 실행 불충분이라고 여겨지는 은행, 회사, 공장, 광산 등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번은 필히 소정의

표준 이상의 상여국채지급을 실행하도록 개별적으로 요청할 것.

- ④ 각 관공서, 은행, 금융조합, 회사, 공장, 광산 등에는 적어도 1명의 실행위원을 두어 본 운동에 관한 연락 또는 부 내에서의 실행 촉진을 담당할 것.
- ⑤ 도청은 소속 관공서, 은행, 금융조합, 회사, 공장, 광산 등으로부터 별지 제1호 양식에 따라 실시상황 보고서(2통)의 제출을 요구하고, 그 가운데 1통을 별지 제2호 양식에 따라 총괄표를 첨부하여 총독부 재무국장에게 제출할 것.

도지사 이외의 제1차 소속관서는 그 소속관공서 분을 총괄하여 제2호 양식에 따라 총독부 재무국장에게 제출할 것.

(4) 실시상의 주의사항

- ① 국채 또는 저축채권을 지급한 액수 혹은 구입한 액수는 저축조합에서 상여저축액의 일부로 계산하여도 좋다.
- ② 앞의 (2)의 지급표준은 상여의 일부를 국채 또는 저축채권으로 지급할 경우의 표준을 제시한 것으로, 상여에 의한 저축은 이로써 충분하다는 취지가 아니다. 관공서, 금융조합, 은행, 회사, 공장, 광산 등에서는 특히 상여의 고율저축을 실시하도록 아울러 고려할 것.
- ③ 소액면 국채는 가능한 한 소액 상여수급자에게만 지급 혹은 구입하도록 하고, 고액수급자에게는 가능한 한 대액면 국채를 충당시킬 것.
- ④ 지급하거나 구입할 국채, 저축채권은 상당히 풍부하게 준비해 둘 예정이지만, 증권배급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 관공서, 은행, 회사, 공장, 광산 등에서는 가능한 한 신속히 대체적인 권면(券面) 별 소요 수량을 우편국 또는 조선식산은행에 신청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연락을 도모할 것.
- ⑤ 작년도 말 또는 본년 상반기 말의 상여 국채지급운동 시에 증권입수 불능의 이유로 실행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우편국 또는 조선식산은행은 우선적으로 증권을 배급할 방침을 강구하고, 이번에는 필히 실행할 것.
- ⑥ 만일 국채 또는 저축채권의 배급이 원활하지 않거나 구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일시적으로 저(예)금하고, 차기 국채 또는 저축채권 매출 시 구입할 것(이 경우 구입예정의 저(예)금은 구입한 것으로 보고할 것).
- ⑦ 국채 저축채권을 지급하거나 구입한 경우 곧바로 이를 환가하는 것은 본 운동의 취지를 몰각하는 행위임으로 관공서, 금융조합, 은행, 회사, 공장, 광산 등의 대표자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충분히 배려할 것.

(양식은 생략)

경제전 강조운동 실시에 관한 건

1939년 11월 25일

총독부 각 국부장, 관방과장, 제1차 소속관서의 장 앞
식산국장

11월 16일자 문(文) 제112호, 정무총감 통첩인 위의 건의 별지요강 제3항의 (1)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또한 본 건은 학교교육, 경찰좌담회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배려하기 바란다.

기(記)

제1. 취지

이번 사변 이후 물가억제를 위해 폭리취제령의 개정강화, 공정가격의 설정 등 각종 대책을 강구해왔지만, 구주전란의 발발은 더욱 물가 등귀의 추세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 이에 지난 10월 27일 가격 등 통제령 및 동령 실시규칙의 공포하기에 이르렀다. 가격 등 통제령의 획기적 의의는 가격 억제를 위해 공정 가격제를 일반화함으로써 전시물가통제의 비약적 강화를 기획한 것이다. 하지만 물가정지의 효과는 모든 국민의 협력을 통해 비로소 소정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의 시책과 병행하여 업자 및 일반국민의 이해협력이 없으면 안 된다. 물가의 양등은 국민생활을 위협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군수품의 조달에 지장을 초래하고 국채의 소화를 어렵게 만든다. 또한 수출력을 저해하여 군수품 등의 중요물자의 수입력을 감살(減殺)시켜 물동계획을 불가능하게 하는 등 전시경제를 파괴시킬 우려가 있다. 저물가정책은 전시경제 운영상 절대적 요건임을 인식하고 관계 법령의 취지, 내용의 보급철저를 도모하고자 한다.

제2. 실시요항

(1) 일반국민에게는 다음 사항을 철저히 주지시킬 것.

- ① 가격 등 통제령은 일시가격 등을 정지시켜 물가의 등귀를 억제하고, 가급적 신속히 광범위하고 정확한 공정가격제도를 실시하여 우리나라 전시경제의 안정을 도모하는 발본색원적인 긴급조치라는 것.
- ② 미곡, 연초 등의 가격인상의 진짜 이유를 주지시켜 인상에 의한 저물가정책의 변경이라는 오해를 일소하도록 조치할 것.
- ③ 가격 등 통제령 및 동령 시행세칙 등의 관계 법령의 취지, 내용 및 관계 사항의 구체적 지식.
- ④ 준법정신의 아양을 도모하고,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는 물가억제의 근본을 흔드는 비국민적 행위라는 것.
- ⑤ 물가억제의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역시 소비절약, 물자의 활용에 노력하는 것 이외에 매점 매석 등의 이기적 행위를 엄하게 다스린다는 것.

- ⑥ 위의 각 항은 각 가정에서 철저히 시행하도록 특히 부인의 자각을 촉구할 것.
- (2) 업자에게는 위의 (1)의 사항 이외에 다음 사항을 철저히 주지시킬 것.
 - ① 저물가정책의 수행에 협력하는 것은 업자의 의무라는 점을 자각시키고, 업자의 궁극적인 이익과 일치한다는 것.
 - ② 업자단체를 가급적 신속히 조직하고 협정가격을 만들어 허가를 받을 것.
 - ③ 업자단체는 위반자에 대한 제명, 거래 또는 할당의 정지 등 위반자에 대한 자치적 제재를 면할 것.
 - ④ 가격의 일반적 정지에서 제외된 것도 통제령의 취지에 따르도록 노력할 것.

경제전 강조운동 실시에 관한 건

1939년 11월 28일

총독부 각 국부장, 관방과장, 제1차 소속관서의 장 앞
농림국장

11월 16일자 문(文) 제112호, 정무총감 통첩인 위의 건의 별지요강 제3항의 (3)은 다음 장책에 따라 특히 미곡의 소비절약운동을 중심으로 이를 실시하여 국민의 주요 식량 확보를 도모하도록 더욱 배려하기 바란다.

기(記)

전시식량충실운동 방책

(1) 취지

전시 하에서 국민의 주요 식량을 확보하는 것은 긴급을 요하는 일이다. 총독부에서는 배급을 통제하는 등 국민생활의 유지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지만, 본년도 미곡의 상황을 보면 우리 조선에서는 미증유의 대감수가 예상되고, 내지에서는 평년작에 불과하다. 타이완 또한 평년작 이하가 예상된다. 이번에 미곡소비절약을 중심으로 한 식량 확보의 국민운동을 철저히 강화하고 미곡수급의 조절을 도모함으로써 전시 하에서의 제국식량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대륙병참기지로서의 사명 달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한다.

(2) 실시사항

① 미곡을 존중하는 관념의 철저

미곡을 존중하는 관념을 철저히 하는 것이 근본조건임으로 민중에게 미곡의 존중심을 철저히 계배(啓培)시킬 것.

② 곡물 등 식량품의 손모(損耗) 방지

미곡 기타 잡곡 곡물 등의 저장 중의 해충, 병충해, 제조가공 기타에 의한 손실 또는 변질의 방지, 운반 중의 탈루, 취사 전의 씻는 방법의 개선 등을 통한 각종 손모 방지 상 필요한 지도를 철저히 실시할 것.

③ 혼사(混砂) 도정의 금지, 7분도미(배아미를 포함, 이하도 같음) 상용 취지의 철저

조선백미취체규칙의 취지를 철저히 보급하고, 특히 미곡의 소비절약의 견지에서 7분도미의 상용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

④ 혼식의 장려

7분도미에 맥류 기타 잡곡, 두류 등의 혼용을 일상 각 가정에서는 물론 일반식당, 음식점 등에서도 적당한 기일을 정하여 철저히 이를 장려하고 곡물 입수의 편의를 도모할 것.

⑤ 죽(粥食), 면류 등 미곡의 절약 또는 대용식을 장려할 것

⑥ 관공서, 회사, 공장, 학교, 열차의 식당, 기차역 도시락 가게, 일반식당, 음식점 등에서 남은 음식의 관리 철저

취사하는 장소에서는 수요에 따라 상당히 많은 낭비가 생김으로 충분히 사정을 고려할 것.

⑦ 공장, 학교 등 공동취사의 장려

공장, 학교 등 공동취사를 장려하고 절미의 철저를 도모할 것.

(3) 철저방법

① 본 운동은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을 중심으로 진행할 것.

② 주력을 도시부에 두고, 특히 부인의 협력을 요구할 것.

26) 경성부 내 애국일 행사 등예의 참가 건

1939년 11월 29일

총독부 내 각 국부장, 관방과장, 재경선 제1차 소속관서의 장 앞
문서과장

위 제목의 행사 의례는 다음과 같이 거행되었다. 지난번 실적에 따르면 정연맹 애국반원으로서 다수의 관공리가 솔선 참가하여 부민 일반에게 다대한 감명을 주었다. 경성연맹 이사장으로부터 특별한 부탁이 있었고 이번 실시에 즈음하여 더욱 큰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기(記)

(1) 명칭 : 국민정신총동원 정연맹 상회

(2) 일시 : 12월 1일 오전 7시 30분(모든 부에서일제히 사이렌을 울린다. 예보 15분전에 울림)

(3) 장소 : 정연맹이 예고한 지정 집합지

(4) 행사(실시소요시간은 30분을 한도로 한다)

- ① 개회
- ② 국기제양
- ③ 궁성요배
- ④ 묵도
- ⑤ 신합(申合)
- ⑥ 지난 달 보고
- ⑦ 황국신민의 서사 제창
- ⑧ 국기강하
- ⑨ 폐회

27) 경제통제에 대한 국민적 협력에 관한 건

1939년 12월 5일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이사장 앞
문서과장

위 제목의 건에 관해 11월 30일 개최된 총독부 국민정신총동원위원회 간사회에서 협의 결과, 정동운동으로서 이의 철저강화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전시태세 하에서 저물가정책 수행에 동반한 경제통제에 대한 국민의 이해 및 협력 여부는 전시물가통제의 성패는 물론, 나아가 국가의 안위와 관련된 중대 사항이다. 귀 연맹에서는 다음 사항을 배려하여 그 실효를 확보하기 바란다.

참고로 상공업자의 협력에 관해서는 별도로 고려 중이다.

기(記)

(1) 11월 16일자 문(文) 제112호, 정무총감 통첩인 경제전 강조운동실시에 관한 건 별지 제3항의 (2)에 관한 11월 25일자 식산국장 통첩의 다음 사항은 일정기간의 운동이 아니라, 전시 하 불변의 중요 시책으로서 계속하여 철저히 강화할 것.

(2) 저물가정책을 둘러싸고 한간에 생기고 있는 제반 불안을 일소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강구하고 국민의 계발을 도모하여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이해와 협력을 요구할 것.

가. 조선연맹에서는 각 임원회를 긴급 개최하여 총독부 관계관의 설명을 청취하고, 지방연맹에서도 이에 준하는 강담회 기타 적절한 실시방안을 강구할 것.

나. 식산국에서 만든 선전자료에 의거하여 인쇄물을 발행 배포하고, 기관잡지 『총동원』에 관계 기사를 등재시킬 것.

다. 다음 예에 준하여 적당한 표어를 넣은 뼈라를 제작하여 모든 조선의 애국반에 배포할 것. 또한 뼈라에 준하는 포스터를 제작할 것.

- 공정가격을 지킵시다.
- 매점매석을 엄히 다스립시다.

라. 본 운동의 강화수단으로서 각 애국반 또는 연맹마다 자치적 감시기구를 설치하여 공정가격 준수 및 매점매석의 악습을 상호 시정하는 신고를 통해 위반의 방지에 노력할 것.

3. 지방연맹대회 기타

1) 국민정신총동원 전라북도연맹 지도자대회 일정

1. 집합(전주신사) : 1939년 3월 1일 오전 8시 30분
2. 신사참배 : 8시 30분
3. 개회(도청사 강당) : 오전 9시30분
4. 국가제창
5. 궁성요배
6. 황군장병에 대한 감사묵도
7. 사변 1주년에 내려진 칙어 봉독
8. 도연맹 이사장 식사
9. 조선연맹 총재 훈시
10. 조선총독 고사(告辭)
11. 도지사 고사
12. 선언
13. 황국신민의 서사 제창
14. 천황폐하 만세삼창
15. 폐회
16. 폐회 이후 계속하여 강화
17. 참석자
 - 도연맹 임원
 - 부군읍면연맹 이사장
 - 부윤, 군수
 - 도내 초등학교장
 - 이상 약 550명

2) 국민정신총동원 전라남도연맹대회 당일의 일정

- (1) 연맹대회
 - 개최일시 : 6월 3일(토)
 - 개최장소 : 광주신사 광장

- 주최자 : 국민정신총동원 전라남도연맹
- 참석자
 - 도연맹 임원
 - 부윤,군수, 도사, 읍면장
 - 도내 경찰서장
 - 부내 중초등학교장
 - 부내 각 관공서,단체, 정연맹 임원
 - 부내 애국반장
 - 부내 중등학교 생도
 - 부내 소학교 아동(제5학년 이상)
- 내빈
 - 조선연맹 총재
 - 조선연맹 이사장
 - 총독부 문서과장
 - 기타노(北野) 조선군참모장
- 식순
 1. 집합 : 오전 8시, 광주신사 광장
 2. 개회
 3. 국기제양(나팔)
 4. 국가제창
 5. 궁성요배
 6. 황군장병 무운장구 소원 및 전몰장병 위령을 위한 1분간 묵도
 7. 황군에 대한 위문전보
 8. 사변 1주년에 내려진 칙어 봉독
 9. 도연맹 이사장 식사
 10. 조선연맹 총재 훈시
 11. 조선총독 고사(告辭)
 12. 도지사 고사
 13. 선언
 14. 황국신민의 서사 제창
 15. 해행가바(海行カバ) 합창
 16. 천황폐하 만세삼창
 17. 국기강하(나팔)
 18. 폐회

(2) 좌담회

- 일시 : 6월 3일 오전 10시부터 정오까지
- 장소 : 도청 회의실
- 좌장 : 전라남도연맹 이사장
- 출석자
 - 도연맹 임원
 - 부윤, 군수, 도사, 읍면장
 - 도내 경찰서장
 - 중초등학교장
- 임석자 : 총독부, 조선연맹 및 군부의 내빈

비고)

- (1) 개회식에서 가와시마 총재 및 시오하라 조선연맹 이사장의 강화(講話)가 있었다.
- (2) 폐회 후 같은 장소에서 식사
- (3) 오후 1시 반부터 이어서 영화회를 개최하였다.

3) 국민정신총동원 경기도 정읍면연맹 이사장대회 요항(要項)

- 명칭 : 정읍면연맹 이사장대회
- 주최 : 국민정신총동원 경기도연맹
- 기일 : 1939년 6월 6일(수요일)
- 장소 : 도청 제1회의실
- 출석자
 - 읍면연맹 이사장 236명
 - 경성부 정연맹 이사장 140명
 - 인천, 개성정연맹 이사장 : 인천 10명, 개성 5명
 - 부군연맹 임원
 - 부 내무과장 또는 부 사회과장(경성부는 총동원과장) 3명(경성, 인천, 개성)
 - 부군 담임속(屬) 23명
 - 공립소학교 교장(경성부내) 공립 40명, 사립 18명, 합계 58명
 - 군청 시학(視學) 각 1명, 합계 23명
 - 인천부 개성부 및 각 군 공립소학교장(1명씩) 2명
 - 명예 경무주임 26명
 - 계 546명
- 조선신공참배 : 오전 9시
- 대회순서

1. 개회사
 2. 국가합창
 3. 궁성요배
 4. 묵도
 5. 조서봉찬
 6. 경기도연맹 이사장 식사
 7. 경기도지사 고사
 8. 총독훈시
 9. 조선연맹 총재 훈시
 10. 결의선언
 11. 황군감사위문전문결의
 12. 내빈축사
 13. 황국신민의 서사 제창
 14. 천황폐하 만세삼창
 15. 폐회사
- 중식
 - 강연
- 시간 : 오후 1시부터 4시까지
- 회장 : 도청 회의실
- ① 국민정신총동원의 본질 :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학무국장 시오하라(鹽原時三郎)
 - ② 시국 하에서의 풍조 일신 :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조계사주지 長田觀禪

〈국민정신총동원 지도자강습회〉

- 명칭 : 국민정신총동원지도자 강습회
- 주최 : 경기도
- 일시 : 1939년 6월 8, 9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 반까지
- 장소 : 경기도 회의실
- 수강자
 - 부 내무과장 또는 사회과장(경성부는 총동원과) 3명
 - 부군 담임 속(屬) 23명
 - 경성부 소학교장(사립 포함) 58명(8일만 출석)
 - 각 부군 시학 각 1명 23명(8일만 출석)
 - 인천부 개성부 및 각 군 소학교장 각 1명 22명(8일만 출석)
 - 각 경찰서 경무주임 25명
 - 금융조합 이사 73명(9일만 출석)

- 계 226명

■ 과목

- 만민보익(1시간) : 경기도지사 간쵸 요시쿠니(甘蔗義邦)
- 국체명징(1시간) : 경성사범학교장 와타나베 신지(渡邊信治)
- 대마(大麻)의 봉사(奉祀)에 대해서(1시간) : 조선신궁 권공사 요시다(吉田貞治)
- 국민정신총동원에 대해서(2시간) : 조선연맹 전무이사 유카미 치사부로(由上治三郎)
- 해군군비 : 총독부 해군어용계 해군대좌 구로키(黒木剛一)
- 시국과 육군 : 제20사단 참모장 대좌 우스이(臼井儉吾)
- 시국 하에서의 생업보국의 길(3시간) : 대일본농우회 실습소장 마츠다(松田喜一)
- 시국과 국민저축(1시간 반) : 저축은행 두취 이모리 메이지(伊森明治)
-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근간(2시간) : 수양단 총무이사 사카모토 마사유키(坂本昌之)

■ 시간표

〈8일〉

- 오전 8시 : 개강식, 만민보익
- 9시 : 대마봉공
- 10시 :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근간
- 12시 : 중식
- 오후 1시 : 군사강담(해군)
- 2시 30분 : 국민정신총동원에 대해서
- 4시 30분 : 국체명징
- 5시 30분 : 종료

〈9일〉

- 오전 8시 : 시국 하에서의 생업보국의 길
- 12시 : 중식
- 오후 1시 : 시국과 저축
- 2시 30분 : 군사강담(육군)
- 4시 : 폐회식
- 4시 30분 : 해산

4) 국민정신총동원 강원도 군읍면연맹 지도자대회 행사

■ 제1일(6월 25일, 일요일)

1. 강원신사참배(오전 9시)
2. 대회식순
 - 개회사
 - 국가합창

- 궁성요배
 - 묵도
 - 조서봉찬
 - 강원도연맹 이사장 식사
 - 강원도지사 고사
 - 조선연맹 총재 훈시
 - 선언
 - 황군감사전문결의
 - 황국신민의 서사 제창
 - 성수(聖壽) 만세삼창
 - 폐회사
3. 강연(학무국장 또는 연맹 전무이사)
 <점심>
 좌담회(오후 1시~3시 30분)
4. 총재 초대 차담회(오후 4시~5시)
5. 영화(오후 7시~9시, 공회당에서)

■ 제2일(26일, 월요일)

1. 강화(오전 8시~12시, 이규완(李圭完), 개간지에 대해서)
 <점심>
2. 근로작업(오후 1시~3시) 강원도신사 경내
3. 폐산

■ 국민정신총동원 강원도 부읍면연맹 지도자대회 출석자

- 군연맹 상무이사(내무과장) 21명
- 읍면연맹 이사장(읍면장) 176명
- 도 과연맹 애국반장(도 각 과장) 16명
- 도연맹 임원 및 도청연맹 애국반원 60명
- 춘천읍내 각종연맹 이사장(각 관공서 회사 대표자) 30명
- 신문기자 기타 20명
- 계 323명

5) 국민정신총동원 평안북도연맹 대회

- 일시 : 1939년 6월 30일
- 장소 : 평안신사 경내

■ 차례

1. 일동 정렬
2. 개회사
3. 수발(修祓)
4. 관사주상(冠詞奏上)
5. 옥관봉존(玉串奉尊)
6. 궁성요배
7. 국가합창
8. 묵도
9. 칙어봉독
10. 식사(多田 이사장)
11. 총독 고사
12. 조선연맹 이사장 훈시
13. 평안북도지사 고사
14. 선언(多田 이사장)
15. 내빈축사 : 이토(伊藤) 법원장, 가토(加藤) 상의회 회두
16. 황국신민의 서사 제창
17. 천황폐하 만세삼창
18. 폐회사

6) 국민정신총동원 평안남도연맹 주최 연맹임원대회 및 지도자 강습회 및 타합회

■ 개최월일 : 7월 14일

■ 일정

종별	임원대회	지도자 강습회		타합회
시간	오전8시부터 9시까지	오전 9시부터정오까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행사	차례는 후기와 같음	강화	지시 주의	타합 간담

■ 임원대회 식순

- 개회사(三吉 간사)
- 국가합창
- 궁성요배
- 황군장병의 무운장구 소원 및 전물장병 위령 묵도
- 지나사변 1주년에 내려진 칙어봉찬(稻葉 이사장)
- 이사장 식사
- 총독 고사

- 조선연맹 총재 훈사
- 도지사 고사
- 황국신민의 서사 제창
- 해행가바(海行カバ) 합창
- 천황폐하 만세삼창
- 폐회사

7) 국민정신총동원 전라북도연맹 지도자 강습회 일정

월일	요일	시간	적요
7.18	화	오전 7시 30분	신사참배
		8시~9시	개회식, 지사 고사
		9시~11시	조선연맹 이사
		11시~12시	황도정신 : 고바야시(小林) 전주사범학교장
		12시~1시	중식 휴식
		1시~3시	국민정신총동원에 대해서 : 도모토(堂本) 사무관
		3시~5시	농촌진흥 : 八尋 촉탁
7.19	수	8시~9시	국민정신총동원운동과 농촌진흥과의 관계 : 노나카(野中) 사회과장
		9시~10시	황도정신 : 고바야시(小林) 전주사범학교장
		10시~11시	국민저축에 대해서 : 海老 이재과장
		11시~12시	정보선전에 대해서 : 도모토(堂本) 사무관
		12시~1시	중식 휴식
		1시~3시	농촌진흥 : 농민훈련소장
		3시~4시	강담회
		4시~6시	근로봉사

8) 국민정신총동원 함경남도연맹 대회

- 일시 : 1939년 9월 11일
- 장소 : 제1회장 함흥신사 대전, 제2회장 함흥공회당 강당
- 순서
 1. 개회사
 2. 국가봉창
 3. 지나사변 1주년에 내려진 칙어봉독
 4. 식사
 5. 총독 고사
 6. 연맹총재 훈시

7. 도지사 고사
8. 내빈축사
9. 선언
10. 결의
11. 황군에 대한 감사전문결의
12. 황국신민의 서사 제창
13. 해행가바(海行カバ) 합창
14. 성수(聖壽) 만세삼창
15. 폐회사

참고)

해산대회는 본 항과 같음으로 생략한다.

9) 한해극복 국민정신총동원 충청남도연맹대회(10월 29일 개최)

■ 옥외행사

1. 집합(오전 9시) 대전신사 대전
2. 신사참배(오전 9시 반)
 - 가. 수발(修祓)
 - 나. 연맹기수여(입혼식은 전날 거행)
 - 다. 관사주상(冠詞奏上)
 - 라. 옥관봉존(玉串奉尊, 도연맹 총재, 조선총독, 조선연맹 총재)
3. 신사참배 후 대전중학교 교정에 집합
4. 개회사(오전10시 20분) 상무이사
5. 국기계양(이사장 기립)

기미가요 합창 2회(악대 참가)
6. 궁성요배
7. 황군장병 무운장구 소원 및 전몰장병 위령을 위한 1분간 묵도
8. 지나사변 1주년에 내려진 칙어 봉찬(도연맹 총재)
9. 도연맹 이사장 식사
10. 조선총독 고사
11. 조선연맹 총재 훈시
12. 도지사 고사
13. 한해극복 및 연맹정신 양양결의(이사)
14. 황국신민의 서사 제창(도연맹 총재)
15. 해행가바(海行カバ) 합창(일동, 악대 참가)

16. 연맹가 합창(전원, 악대 참가)

17. 천황폐하 만세삼창

식사(중학교 교정)

식사 후 공회당까지 시내행진(악대 참가)

■ 옥내행사

강연회 및 강담회

- 일시 : 10월 29일 오후 1시 반부터 4시 반까지

- 장소 : 공회당

- 참가자 : 대회참가자 전원(단 학교 생도 아동은 제외)

- 강사소개 : 이사장

- 강연 : 유카미(由上) 조선연맹 전무이사

- 좌담회 : 도연맹 이사장의 사회 아래 각 부군 대표 약 10명(1명 10분간 예정)

- 폐회사 : 상무이사

■ 대회 지휘 : 학무과장

■ 준비 : 학무과원 전원

10) 국민정신총동원 경상북도연맹 대회 개최요항

■ 기일 : 12월 10일

■ 일정

오전 9시	10시~11시	11시~정오	1시 반~3시 반	6시 반~8시 반
대구신사참배 소원제	거식 공회당	강연 공회당	좌담회 공회당(소홀)	시국영화 동회당

가. 신사참배 : 오전 9시 대구신사 집합, 국위선양, 무운장구 및 부상병 평유(平癒) 소원제 종료 후, 일동 대오를 정비하여 공회당으로 향하다.

나. 좌담회 : 도연맹 간부, 부군도연맹 이사장, 기타 대표 1부군당 2명씩 참가하다.

■ 참가자의 범위

- 도연맹 임원, 도연맹 애국반장 이상

- 부윤, 군수, 부군연맹 이사장

- 경찰서장, 읍면장, 읍면연맹 이사장

- 부연맹 임원, 부내 각종연맹 간부

- 부락연맹 이사장, 애국반장의 대표자(1군당 계 5명 정도), 연맹추진대원

- 전문, 중등학교 교장, 업무소의 장

- 부내 재주 공직자

- 부내 관공서 회사 은행 각종단체의 장
 - 애국부인회 대구부 분회, 국방부인회 대구지회의 반장 이상
- 당일을 연맹일로 정하고 도내 연맹 애국반은 일제히 각각 실정에 따라 근로작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대구연맹에서는 오전 7시부터 각 애국반 일제히 도로의 청소작업 기타 단체적 작업을 실시하였다).
- 국위선양, 무운장구 및 부상병 평유(平癒) 소원제 차례
1. 입장정열
 2. 경례
 3. 수발(修祓)
 4. 헌찬(獻饌)
 5. 관사주상(冠詞奏上)
 6. 옥관봉존(玉串奉尊)
 - 봉존자 : 도연맹 총재, 총독대리, 조선연맹 총재, 참례자 대표
 7. 철찬(撤饌)
 8. 경례
 9. 퇴출
 - 대오를 정돈하여 회장을 향함

〈국민정신총동원 경상북도연맹 대회 순서〉

- 식순
1. 개회식
 2. 기미가요합창
 3. 궁성요배
 4. 묵도
 5. 지나사변 1주년에 내려진 칙어 봉찬
 6. 도연맹 이사장 식사
 7. 지사 고사
 8. 총독 고사
 9. 조선연맹 총재 고사
 10. 내빈축사
 11. 결의문 낭독
 12. 황국신민의 서사 제창
 13. 해행가바(海行カバ) 합창
 14. 천황폐하 만세삼창

15. 폐회식

- 강연회
- 시국영화
- 결의

하나. 우리 경상북도 연맹원은 존엄무비한 우리 국체를 체인(體認)하고 황국신민으로서의 신념을 견지하면서 승고지상의 일본정신의 현양실천에 노력하여 더욱 황운을 부익하고 받든다.

하나. 우리 경상북도 연맹원은 현하 중대 시국을 명찰확인하고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진의를 파악하여 내선일체 관민일치 일산생활의 철저한 쇄신을 도모하고 국력의 증강에 노력함으로써 시난극복 신동아건설의 성업완수에 매진한다.

하나. 우리 경상북도 연맹원은 당면한 미증유의 한해에 대해 거도일치, 불퇴불굴, 자분자려, 총력을 발휘하여 이의 극복에 매진하고 전화위복의 내실을 거둬으로써 홍대(鴻大)무변한 성은에 만분의 일이라도 보답한다.

1939년 12월 10일

국민정신총동원 경상북도연맹

11) 국민정신총동원 경상남도연맹 대회 개최요항

- 기일 : 1월 23일
- 일정
 - 오전 9시~10시 : 신사참배, 소원제, 용두산신사
 - 오전 10시 반~정오 : 거식, 제일소학교
 - 오후 1시~4시 : 강연, 제일소학교

신사참배는 오전 9시 용두산신사 앞에 집합하여 황군 무운장구 및 부상병 평유(平癒) 소원제를 종료한 다음, 일동은 대오를 정비하고 제일소학교로 향하였다.

- 출석자
 - 도연맹 임직원
 - 부군연맹 이사장 및 동 연맹 전무담당자
 - 부내 경찰서장
 - 읍면연맹 이사장
 - 도연맹 추진대원
 - 도내 공사립중등학교 교장
 - 부내 초등학교장
 - 부내 각 관공서, 가맹단체 대표자
- 황군 무운장구 및 부상병 평유 소원제 순서

1. 입장정열
2. 경례

3. 수발(修祓)
4. 헌찬(獻饌)
5. 관사주상(冠詞奏上)
6. 옥관봉존(玉串奉尊)
 - 봉존자 : 도연맹 총재, 총독대리관, 조선연맹 총재, 참례자 대표(부산부윤)
7. 철찬(撤饌)
8. 경례
9. 퇴출

12) 국민정신총동원 황해도연맹 사무담임자 타합회 일정

- 개최일시 : 1940년 1월 8일 오전 9시부터
- 장소 : 도청 회의실
- 일정
 - 오전 9시 : 해주신사 참배
 - 오전 9시 반 : 회의 개회
 - 총재 인사
 - 조선연맹 출석자 인사
 - 도연맹 이사장 훈시
 - 중식
 - 지시사항
 - 각 부군연맹의 상황 청취 및 의견진술
 - 오후 5시 폐회
- 출석자
 - 각 부군 38명
 - 도연맹 30명
 - 조선연맹 2명
- 지시사항
 - 국기존중의 건
 - 연맹원으로서의 긍지 건
 - 육군특별지원병 응모의 건
 - 각종 통첩의 하급연맹 및 애국반으로의 철저방안 건
 - 각종 시설사항 및 실적보고의 건
 - 부 및 읍면연맹 예산 편성의 건
 - 연맹기구의 확충 강화와 정비 상황보고의 건
 - 기관지 『총동원』의 보급 건

- 절미운동의 철저방안 건
- 추진대원의 지도 건
- 연맹에서 발송한 문서 건
- 연맹의 운동방법 건
- 현상 '광휘 2600년 승춘(承春)에 임하여' 응모 건
- 도읍연맹의 강화 건

13) 국민정신총동원 함경북도연맹 지도자 타합회 일정 (1940년 1월 29일)

■ 일정

1. 나남신사 참배(오전 9시 20분)
2. 개회(궁성요배, 오전 10시)
3. 도연맹 총재 인사
4. 조선연맹 총재 훈시
5. 군부 출석관 강연
6. 조선연맹 이사 강연
〈중식〉
7. 지시사항
8. 타합사항
9. 각 부군연맹의 상황청취
10. 간담
11. 폐회(만세삼창)

■ 출석자

- 각 부군연맹 지도자 26명
- 도연맹 총재 외 28명
- 조선연맹 총재 외 4명
- 군부 측 6명

■ 지시사항

- (1) 생활개선쇄신에 관한 건
- (2) 폐품회수운동의 철저에 관한 건
- (3) 연맹사무의 연락협조에 관한 건
- (4) 연맹운동의 보편적 강화에 관한 건
- (5) 육군특별지원자의 모집에 관한 건

■ 타합사항

- (1) 부군읍면연맹 예산편성에 관한 건
- (2) 애국반의 조직 및 그 활동에 관한 건

- (3) 연맹추진대원의 지도정신에 관한 건
- (4) 국기의 존중에 관한 건
- (5) 기관지 『총동원』의 보급에 관한 건
- (6) 연맹기 및 휘장의 보급에 관한 건
- (7) 조선연맹가의 보급에 관한 건
- (8) 부여신궁 어조영에 근로봉사대 파견에 관한 건

14) 국민정신총동원 충청북도 군연맹 지도자 타합회 및 부인단체 좌담회 일정

- 일시 : 1940년 2월 13일, 14일(오전 9시 30분)
- 장소 : 충청북도 도청 제1회의실
- 순서
 - <제1일>
 - 신사참배
 - 조선연맹 이사장 인사
 - 지시, 협의
 - <제2일>
 - 각 군연맹 상황보고 및 의견 희망 진술
 - 부인단체 좌담회
- 협의사항
 - (1) 애국반원의 훈련 및 애국반 활동상황의 사열에 관한 건
 - (2) 부여신궁 어조영 근로봉사대 파견에 관한 건
- 지시사항
 - (1) 군 및 읍면 직원의 정동사무 공조에 관한 건
 - (2) 군, 읍면연맹 민간임원 및 지방 각종연맹 간부의 활동촉진에 관한 건
 - (3) 연맹추진대원의 활동촉진에 관한 건
 - (4) 모범연맹 및 모범애국반원에 관한 건
 - (5) 애국반원의 지도철저에 관한 건
 - (6) 부녀자의 지도계발에 관한 건
 - (7) 도시 및 각종연맹의 활동촉진에 관한 건
 - (8) 군 및 읍면연맹의 예산편성에 관한 건
 - (9) 군 및 읍면연맹에서의 사무처리에 관한 건
 - (10) 국기의 존중에 관한 건
 - (11) 연맹기 및 휘장의 보급에 관한 건
 - (12) 연맹기관지 『총동원』 및 연맹가의 보급 및 기관지에의 투고에 관한 건

4. 통첩, 시설 및 행사 일람표

1) 통첩 기타 시설사항

- (1) 국민정신총동원연맹 결성 및 조직대강 제정에 관한 건(1938년 7월 22일)
- (2) 국민정신총동원연맹에 관한 건(1939년 3월 16일)
- (3) 국민정신총동원운동에 관한 건(1939년 4월 15일)
- (4) 국민정신총동원연맹에 대한 군부의 협력 건(1939년 4월 15일)
- (5) 국민정신총동원운동에 관한 건(1939년 5월 6일)
- (6) 조선연맹 이사 평의원 및 참여 추가의 건(1939년 5월 12일)
- (7) 연맹의 운동과 농촌진흥운동 기타 기존의 제운동과의 연락조정에 관한 건(1939년 5월 10일)
- (8) 국민정신총동원 연맹 필행 2칙 제정의 건(1939년 5월 10일)
- (9) 해군기념일 강연의 건(1939년 5월 19일)
- (10) 문서과 내에서의 국민정신총동원 사무처리 기구 설치의 건(1939년 5월 20일)
- (11) 조선군의 국민정신총동원연맹에 대한 규정의 건(1939년 5월 17일)
- (12) 국민정신총동원 정책에 관한 건(1939년 6월 12일)
- (13) 조선에서의 지나사변 2주년 기념행사 실시에 관한 건(1939년 6월 13일)
- (14) 지방출장시의 애국반의 활동상황 시찰요항의 건(1939년 6월 22일)
- (15) 100억 저축강조주간에 관한 건, 저축 장려에 관한 건(1939년 6월 6일)
- (16) 연맹조직도해 중 각 애국반의 하부 '개인'은 '호'가 정당하다는 통첩(1939년 6월 28일)
- (17) 고노(河野) 국학원대학장 강연에 관한 건(1939년 7월 22일)
- (18) 조선연맹 창립 1주년 기념행사시의 불비(不備) 사항의 건(1939년 7월 27일)
- (19) 국민정신양양 순회강연회 실시의 건(1939년 8월 3일)
- (20) 내각정보부 발행 통첩 원고의 건(1939년 8월 17일)
- (21) 흥아봉공일에 관한 건(1939년 8월 19일)
- (22) 총독부에서 애국일(흥아봉공일) 행사실시의 건(1939년 8월 21일)
- (23) 애국일에 총독부연맹 애국반 전원의 실천항목의 건(1939년 8월 21일)
- (24) 전사 지원병 유족에게 조위금을 증정하는 건(1939년 8월 23일)
- (25) 근로의 증진, 체력의 향상에 관한 기본정책에 관한 건(1939년 8월 25일)
- (26) 국민정신총동원운동에 관한 참고사진 송부의 건(1939년 8월 25일)
- (27) 애국반의 활동을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만드는 정책에 관한 건(1939년 9월 6일)
- (28) 공사생활을 쇄신하여 전시대세화하는 구체적 정책의 건(1939년 9월 6일)
- (29) 만주사변 기념행사에 관한 건(1939년 9월 7일)
- (30) 휴일과 겹친 애국일(흥아봉공일)의 실시방침에 관한 건(1939년 9월 13일)
- (31) 특정보고용 '조선의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개황 제작의 건(1939년 9월 14일)
- (32) 충후후원 강화주간 실시에 협력 건(1939년 9월 14일)

- (33) 애국일(흥아봉공일)의 방송자료의 건(1939년 9월 16일)
- (34) 포상(褒賞)조례 제2조에 의한 공익단체로서의 인정 건(1939년 9월 12일)
- (35) 저축선전용 리프리트 '저축봉공'에 관한 건(1939년 9월 20일)
- (36) 조선연맹 사무응원의 건(1939년 9월 21일)
- (37) 한해대책사업 실시의 건(1939년 9월 23일)
- (38) 금(金)의 정부집중운동에 관한 건(1939년 9월 25일)
- (39) 중남선지방 한해 피해자 구제의연금 모집의 건(1939년 9월 28일)
- (40) 국민정신총동원운동에 관한 특수사항 실시에 관한 건(1939년 10월 14일)
- (41) 국민정신총동원에 관한 사무분장의 건(1939년 10월 14일)
- (42) 지나사변 군마제(軍馬祭) 집행의 건(1939년 10월 16일)
- (43) 원료 짚의 건조저장 및 사용절약에 관한 건(1939년 10월 24일)
- (44) 경성부 내에서 애국일 행사 등 강화원조의 건(1939년 10월 24일)
- (45) 조선연맹 전무참사위 해촉 승인의 건(1939년 10월 25일)
- (46) 국민정신작흥주간 실시의 건(1939년 10월 25일)
- (47) 영지봉체(令旨奉體) 결핵예방국민운동 실시에 관한 건(1939년 10월 30일)
- (48) 경제전강화운동에 관한 건(1939년 11월 16일)
- (49) 경성부 내에서 애국일 행사 등 강화원조의 건(1939년 11월 28일)
- (50) 저축 장려에 관한 건(1939년 11월 16일)
- (51) 조선연맹 주최 각 도연맹 사무담당자 타합회 개최의 건(1939년 11월 21일)
- (52) 1940년도 국민정신총동원 관계 예산 계산 내시(內示)의 건(1939년 11월 17일)
- (53) 1940년도 도비 예산에 국민정신총동원비 계상의 건(1939년 11월 17일)
- (54) 경제전 강조운동 실시에 관한 건(1939년 11월 17일)
- (55) 경제통제에 대한 국민적 협력에 관한 건(1939년 12월 5일)
- (56) 1940년 1월의 애국일에 관한 건(1939년 12월 7일)
- (57) 조선연맹 주최 부군도연맹 지도자 타합회 및 부인단체 좌담회 개최의 건(1939년 12월 11일)
- (58) 신년 서사(誓詞)에 관한 건(1939년 12월 22일)

2) 각종 행사

○ 회의

- (1) 임시도지사회의(5월 29일)
- (2) 중추원 참의회의(위와 같음)
- (3)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임원 회동(5월 30일)
- (4) 전선 보도기관 대표자대회(5월 31일)
- (5) 각 도 정동 전무담당자 타합회의(12월 3, 4일)

○ 식 관계

- (1) 애국일(홍아봉공일)(매월1일)
- (2) 총독부연맹 결성식(5월 26일)
- (3) 사변 2주년 기념 칙어 봉찬식(7월 7일)
- (4) 사변 2주년 기념 및 조선연맹 창립 1주년 기념대회(7월 7일)

○ 근로봉사작업

- (1) 조선신궁 봉찬전 광장 확장공사(6월 7일~6월 27일)
- (2) 총독부 청사 정원 풀뜯기(7월 4일~7월 19일)

○ 지방 연맹대회 기타

- (1) 전라북도연맹 지도자대회(3월 1일)
- (2) 전라남도 연맹대회(6월 3일)
- (3) 경기도 정읍면연맹 이사장대회(6월 7일)
- (4) 강원도 군읍면연맹 지도자대회(6월 25, 26일)
- (5) 평안북도 연맹대회(6월 30일)
- (6) 평안남도지방 연맹대회 및 지도자 강습회 및 타합회(7월 14일)
- (7) 함남연맹(함흥대회, 혜산대회) 대회(7월 18, 19일)
- (8) 한해극복 정동 충남연맹대회(10월29일)
- (9) 경상북도지방 연맹대회(12월 10일)
- (10) 경상남도지방 연맹대회(1월23일)

〈출전 : 朝鮮總督府, 『朝鮮の國民精神總動員』, 1940년〉

2. 충남도연맹, 『국민정신총동원연맹요람』(1939)

권두언

일지사변 발발 1주년 기념일인 작년 7월 7일을 계기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이 결성되자, 본도에 서도 대전부 및 연기, 공주, 논산, 천안군연맹의 결성을 완료하고, 이를 하나로 묶은 도연맹이 8월 12일 성대한 결성식을 올렸다. 이어서 읍·면연맹, 정·부락연맹 및 각종 연맹이 결성되어 연맹의 실천망인 애국반의 조직도 완료되었다.

이를 계기로 도연맹에서는 기왕의 연맹 관계의 사실을 각 방면으로부터 망라하여 이 책자를 편집하였다.

이는 요컨대 연맹의 지도상 필요한 제반 사항을 잘 숙지함으로써 시국인식의 철저, 연맹 취지의 주지, 연맹강령 및 실천요목의 실천을 촉구하기 위함이다. 특히 연맹의 본지는 본 도연맹의 지도정신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숙독하기를 바란다.

또한 본 책자는 시간 사정상 서두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약간의 잘못이 있어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

연맹의 본질에 대해서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의 본질은 그 선언 및 취지에 의거하여 정성을 다하고 있다. 이를 요약하여 말하면 “반도의 모든 민중을 망라한 애국적 조직의 완성과 그렇게 완성된 조직에 대한 상시훈련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하 이를 나누어 살펴보자.

제1. 반도의 모든 민중을 망라한 애국적 조직일 것

1. 반도의 모든 민중을 망라한 조직일 것

모든 사회에는 각각 목적을 달리함에 따라 다른 조직이 있다. 우리 조선에도 그러한 예에서 벗어나지 않고 여러 조직이 있었지만, 연맹 출현 이전에는 위로는 총독으로부터 밑으로는 시골의 백성까지를 모두 망라한 조직은 없었다. 하지만 생각해보면 오늘날과 같은 시국 하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일심동체 국가의 의지를 체현하는 모습으로 행동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하고 특수한 목적을 지닌 조직 이외에, 모든 민중을 동일한 자격에서 한사람도 빠지지 않고 망라하는 조직이 무엇보다도 가장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 연맹이 생겨났다고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연맹은 이러한 성질의 것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도 없이 국가 최고의 이상을 목적으로 한다. 하지만 이를 다른 단체나 조직과 비교하여 말하자면, 무색투명한 존재 혹은 구체적인 고정된 목적을 지니지 않는 조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연맹의 기저조직인 애국반은 단순히 연맹의 조직으로만 머무를 수 없다. 이는 나아가 모든 사회적 조직에 대해 사회교화적인 것은 물론, 경제 문화 등에 관한 조직에 대해서도 그 세포가 될 수 있다. 또한 그 세포가 되는 것이 참으로 연맹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다. 비유적으로 말한다면 애국반은 각종 사회조직의 최대공약수적인 존재라고도 말할 수 있다. 역으로 말한다면 애국반은 벽돌과도 같은 것이다. 벽돌은 쌓는 방식에 따라 도청의 청사가 될 수 있고, 공회당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애국반은 이를 농촌진흥의 목적을 위해 조직하면 그대로 조합이 될 수 있고, 기타 특정 목적을 향해 조직하면 그 목적에 적합한 조직이 된다.

2. 애국적 조직일 것

조직에도 그 목적에 따라 다양한 색채를 띠는데, 연맹은 가장 애국적인 조직이다. 공산당 조직이 우수하다는 것은 현저한 사실이지만, 연맹의 조직은 말할 필요도 없이 이와 정반대적인 성질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서 애국적 조직이라는 것은 황국신민의 조직이라는 것과 완전히 동일하다. 만약 조직 내에 한 사람이라도 황국신민으로서 걸맞지 않은 심정을 지닌 자가 있다면, 그 연맹은 진정한 연맹이라고 도저히 말할 수 없다. 연맹의 기저 조직을 애국반이라고 말하는 것도 연맹의 성질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이다.

제2. 애국반 조직에 상시 훈련을 갖출 것

조직이라는 것은 아무리 정밀하게 결성되더라도 상시적인 훈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이는 마치 정밀한 기계일수록 수리가 필요하여 만약 수리를 게을리 하면 그 기능에 해가 가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처럼 우리는 반도에 연맹의 결성을 통해 애국적 조직이 전면적으로 만들어졌다고 말하더라도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되며, 항상 훈련하여 언제라도 국가가 바라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는 태세로 준비하는 것이 긴요하다. 연맹의 운동은 모두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따라서 일의 성격상 당연히 연맹의 고유한 운동은 물론, 그 이외의 사회적 운동 예를 들면 농촌진흥운동이나 도로의 정기 수리, 쌀보리의 적기 추수 등 모든 행사에 항상 그 말단 조직으로 활동함으로써 스스로 조직을 훈련할 수 있다. 이렇게 된다면 연맹에서는 이 일은 자기들에게 해당하는 것이고, 그 일은 자신들과 관계없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일어나는 다른 조직이나 운동과의 불필요한 충돌 또한 생겨나지 않고, 항상 자기 스스로 이들과 조화를 이루어 자신들의 조직이 지닌 힘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제3. 연맹과 농촌진흥운동과의 제휴

농촌진흥운동은 연맹 출현 이전부터 반도에서 가장 일반적인 강력한 존재로서 농촌의 진흥에 공헌해 왔다. 그 중요성은 연맹 출현 이후에도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우리는 오히려 시국 하에서 생산력 확충이 매우 필요한 오늘날, 더욱 노력하여 이 운동의 성과를 올리는데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연맹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는 앞서서도 말한 바와 같이 요컨대 일반적 존재인 연맹은 농촌진흥이라는 특수 목적을 지닌 운동의 조직과 조금도 저촉되지 않고 서로 조화하여 손을 잡고 나아갈 수 있고, 또 그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본도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방침을 통해 더욱 양자의 관계를 밀접하고 불가분의 관계로 만들었다. 특히 이는 제1선 담당자가 명심하기를 바란다. 그 요점은 연맹과 농촌진흥운동과의 사이에 인적으로도 지역적으로도 동일성을 유지시켜 양자의 병행과 조정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를 자세히 말하면 다음과 같다.

(1) 지역을 동일하게 한 것

연맹의 가지인 부락연맹의 지역은 공려조합, 갱생공려부락 및 공려조합 설치 예정부락의 구역과 동일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양자의 지역이 달라 일어나는 불편이 생길 염려를 없었다.

(2) 인적 조직을 동일하게 한 것

부락연맹의 간부는 공려조합 및 갱생공려부락의 조합장과 기타 간부와 동일한 자로 하여 지도의 일원화를 도모하였다.

특히 애국반과 5인조는 이를 완전히 동일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연맹과 농촌진흥운동은 완전히 동일한 인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진 셈이다.

이상 간략히 서술했지만 연맹의 본지는 다음과 같다. 요컨대 연맹은 새로운 것을 경쟁하면서 다른 단체와 병립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다른 기성 조직을 통해 일반적인 조직을 만들고, 이를 통해 전통적

인 일본정신을 일반에게 파급시켜 언제 어떠한 사변이 일어나더라도 이에 충실히 따르도록 만드는 것이다. 신분상의 상하차별이 없으며 일사불란한 통제 아래 국가의 의지를 봉체(奉體)하고 순일무잡(純一無雜)의 사상을 견지함으로써 진무(神武) 조국(肇國)의 국시인 팔굉일우(八紘一宇)의 대정신을 현양하는 것에 있다.

(중략)

1938년 9월 국민정신총동원연맹 타합회에서의 조선총독 고사(告辭)

본일 이 자리에 국민정신총동원연맹 여러분이 회동한 것을 계기로 본 운동에 관한 소회를 말씀드리는데 앞에 앞서 먼저 시국 하에서 여러분의 진력에 깊이 감사의 뜻을 밝히는 바입니다.

외람되게도 황실에서는 깊이 충후에 신경을 쓰면서 많은 인자함을 베풀고 계셔서 참으로 몸 둘 바 모르겠고 감격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우리 관민은 더욱 일치단결을 견고히 하여 봉공의 지성을 다하는데 유감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지나사변이 발발한지 벌써 1년 2개월이 경과하여 이제 한구(漢口)의 함락도 목전에 다가왔습니다. 그동안 능위(稜威) 아래 우리 충용한 황군은 가는 곳마다 혁혁한 전과를 거두고, 국위를 세계에 발양했습니다. 위대한 공로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일사군국(一死君國)의 마음으로 순국한 전몰장병의 영령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현재 아국이 직면한 시국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달리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국방, 외교, 산업, 경제, 교육 등 제반 사항에 걸쳐 정비 충실을 도모해야 합니다. 그 근저를 이루는 것은 황국정신으로 국민적 일대결속을 이루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관념을 명징하여 이를 일상생활 중에서 구현해야 합니다. 또한 이의 양양을 도모하는 데에는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의 중임을 맡은 여러분의 노력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국의 사명인 동양평화건설의 길은 먼저 우리 조국(肇國)의 이상인 팔굉일우의 대정신을 동아민족 사이에 알려 '동양은 동양인의 손을 통해서'라는 신념 아래, 동양의 모든 민족이 일본을 중심으로 화협 일치(和協一致)하여 손을 굳게 잡고 공존동영(共存同榮)의 내실을 올리는 것에 있습니다. 다행이도 시국 하에서 우리 반도는 관민이 제후하여 시난(時難)의 극복에 매진한 결과, 충후를 지키겠다는 동포의 국민의식이 모든 조선에 널리 퍼져 황국신민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기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변 발생과 동시에 총독부에서는 일반 민중에게 시국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부여하고, 각오를 견고히 하고자 각종 시설을 강구해왔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국민정신총동원운동입니다.

본 운동은 이를 반복 실시하여 황국정신의 현양, 내선일체의 완성, 생업보국에의 매진, 충후의 후원, 사회풍조의 쇄신, 농산어촌의 진흥, 경제정책에 협력, 생활의 혁신, 근로보국대의 결성 등 거국일치의 태세를 정비하는데 노력해오다가, 더욱이 그 효과를 응축시키기 위해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을 결성하고, 내선일체라는 진정으로 국가의 대이상 현현(顯現)을 향해 용왕매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변의 항구화에 따라 본 운동의 취지를 더욱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금후 국민정신총

동원운동은 모든 국민 사이에서 자주적으로 일어나는 순일(純一)한 정신에 의해 단결하는 집단적 행동 훈련을 본체로 삼고, 또한 강력한 연락통제를 도모하여 국가이상을 수행해야 합니다.

금년의 도지사회의에서도 본관은 3대 중요사항을 들어 혼시하면서 모든 조선의 관민협력을 요구했습니다. 그 하나는 국민운동의 통제조련입니다. 본 연맹의 결성은 즉 본 취지의 구상화(具象化)입니다. 본관은 특히 이를 중시하여 많은 관심으로 그 운영과 기능의 발휘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국민운동의 통제훈련은 제반 관계상 조선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크고 또한 필요성도 강합니다. 따라서 본 운동도 내지와 기타 지역에 모범을 제시하겠다는 의지로 매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정신총동원은 즉 일본정신의 총동원입니다. 일본정신은 단순한 마음자세가 아니라, 행동과 실천을 통해 구현됩니다. 또한 국민정신총동원은 국민 전반의 정신운동입니다. 한 정부, 한 관청, 일부 민간의 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어디까지나 모든 국민 사이에 팽배하여 끓어오르는 관민일치, 내선일체의 커다란 국민운동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상의 취지를 양해하여 본 운동의 구체적 실시계획을 수립 실행함에 즈음하여 반도의 실정에 적응할 수 있는 가장 유효적절한 방책을 공부하여 본 운동이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1938년 9월 22일

조선총독 미나미 지로(南次郎)

1938년 9월 국민정신총동원연맹 타합회에서 조선연맹 총재 혼시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이 이미 결성되었고, 지방연맹의 조직 또한 대체로 완성되어 오늘 제1회 타합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즈음하여 제 소회의 일단을 말씀드림과 더불어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음을 무척 다행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지나사변은 벌써 1년 2개월을 경과하여 황군의 위무(威武)는 장기항전에 광분하는 장개석 정권 및 공산세력을 제압하여 이제는 전국(戰局)이 유유한 진전을 보기에 이르렀습니다. 적이 견고하다고 자랑하던 무한삼진(武漢三鎭)의 운명은 정말로 풍전등화와도 같습니다. 괴멸에 직면한 항일정권 및 공산당군은 금후 아마도 제3국의 원조를 바라면서 자기적(自棄的) 저항을 시도할 것이고, 또한 지나를 둘러싼 국제정세는 더욱 험악하여 결코 낙관할 수 없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우리 국경지방에서 소련군의 폭력(暴戾)한 도전이 발생했습니다만, 다행스럽게도 황군의 용무(勇武)에 의해 이를 철저히 격퇴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제2, 제3의 장고봉(張鼓峰) 사건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폐하께서는 사변 1주년에 즈음하여 황송스럽게도 우악(優渥)한 칙어를 내리셔서 성전의 목적 달성을 위해 국가의 총력을 기울여야 할 이유를 제시하셨습니다. 이에 조선총독은 성지를 받들어 유고(諭告)를 발표하고 반도의 관민에게 새로운 각오를 촉구한 것을 여러분 모두가 숙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충용의연(忠勇義然)한 장병의 용전분투에 대해 우리 반도에서는 관민 모두 일치 협력하여 총후의 대비를 완수하고, 국민정신총동원운동도 아주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운동이 지금처럼 발전하기에 이른 것은 실로 여러분의 노력에 의한 바가 심대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깊이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연맹의 조직 완비를 위해 제2의 강력한 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만, 운동의

근본방침에 관한 저의 소신을 말씀드리니 여러분의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1. 지도정신에 대해서

어떤 운동일지라도 그 운동이 활발히 전개되기 위해서는 먼저 지도정신이 확립되고 운동의 목표와 사명이 명확히 정해져야 합니다.

이번 성전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동양평화의 확립에 있습니다. 일만지(日滿支) 3국간이 상호 친선 제휴하여 공존공영의 결실을 거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폭력한 장개석 정권은 제국의 진의를 이해하지 못하고 지나로부터 제국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 아시아 제패의 야심을 품은 여러 외국의 힘을 이용하면서 우리 나라에 저항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장 정권과는 싸우지만 지나 민중을 적으로 삼지 않았는데, 궁지에 빠진 장 장권을 대항하의 제방을 무너뜨리면서 다수의 자국 동포를 익사시키려는 뜻을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결코 타국을 침략하여 착취하기 위해 이번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건국의 대정신인 팔괘일우(八紘一宇)의 커다란 이상을 온세계에 선포하기 위해 역사적 대사명을 향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도의세계(道義世界) 건설을 위해 그 빛나는 첫걸음을 내디뎠던 것입니다. 본 연맹은 이러한 일본의 커다란 사명을 연맹원에게 철저히 인식시켜야 합니다. 이어서 이러한 커다란 이상의 실현에 즈음하여 무엇보다도 염두에 두어야 할 점은 내선일체의 대업을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내선일체에 대한 진정한 이해가 결여된다면 본 연맹운동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가장 경계해야 합니다. 내선일체라는 것은 조선이 모든 의미에서 진정으로 일본이 될 때까지 끝없이 주창하며 실행해야 할 일로써, 앞으로 더욱 그 강화철저에 힘써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조선연맹이 구현해야 할 하나의 사명은 내선일체를 완성하는 일입니다. 조선에서 내선일체가 철저히 실현된다면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목적의 반이 달성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반도인이 한사람도 빠지지 않고 우리는 모두 황국신민이라는 신념을 지녔을 때 국민정신은 유사시에 스스로 총동원될 것으로 확신하는 바입니다.

2. 전시경제정책에 대한 협력

지나사변은 장개석 정권을 철저히 응징 분쇄시키고 친일방공의 새로운 지나의 건설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한구(漢口)의 함락이 사변의 종말을 물론 의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민정신을 총동원하여 일대 전환을 수행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제계의 동향을 잘 통찰(洞察)하여 선처하고, 나아가 국가의 경제정책을 강력히 지지해야 합니다. 근대전은 병력의 싸움인 동시에 경제력의 싸움이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의 경제력의 총력이 전시에 즈음하여 더욱 증대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절약과 저축장려와 더불어 생산의 확충이라는 적극적인 방면에도 시야를 넓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 필요한 물자 및 자금을 충분히 공급함으로써 물가의 등귀를 억제하고 총후국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정부는 물가 및 자금의 조정, 무역의 통제, 노동력의 조정, 공정가격의 제정, 공채의 소화 등 경제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전시경제정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모든 국민의 총동원이 요청됩니다. 소비의 제한, 물가등귀의 억제는 법령의 힘으로 강제할 수 있지만, 국민의 마음으

로부터의 이해를 통해 실현되어야 합니다. 연맹이 국민의 국책에 대한 자발적 협력을 강조하는 것에 하나의 특색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이는 사족입니다만, 정신이라는 것도 물심일여(物心一如)를 근거로 한 정신이기 때문에 국민정신의 진작 및 그 총동원은 형태 또는 생활 내지 물질에 의해 표현되어야 합니다. 원래 물질 편중은 피해야 할 일입니다만, 막연히 일본정신을 관념적이고 추상적으로 양양하는 것만으로는 아직 부족합니다. 연맹이 시국에 즈음하여 가장 적절한 경제적 대중운동을 전개해야 합니다. 2,300만 반도국민이 하루에 1전을 저축하는 것만으로도 2,300만 원이라는 거액이 됩니다만, 장작 하나나 한 톨의 쌀을 절약할지라도 이를 총동원하여 실행할 때 절대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 점에 유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3. 총후의 후원에 대해서

우리 군이 위대한 전과를 올린 것은 무엇보다도 일신일가(一身一家)를 잊고 목숨을 홍모(鴻毛)같이 여기는 충용한 장병의 덕택입니다만, 이들 장병이 용약분전(勇躍奮戰)하는 것은 또 한편으로 총후의 열렬한 지지와 후원의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맹은 조선군사후원연맹과 서로 제휴하여 응소군인의 환송영, 무운장구 기원, 유가족의 위문 및 원조, 순국자의 위령 등에 일반민중 모두가 성의를 보이도록 지도하기를 바랍니다.

4. 생활의 혁신에 대해서

비상시는 정말로 우리의 일상생활을 반성할 유일한 기회입니다. 반도에서의 생활의 혁신 및 개선은 비상시나 평시를 불문하고 매우 필요합니다만, 민중의 생활을 전시대세에 적절히 맞추기 위해서는 반도민의 실생활에 걸맞는 비상시 국민생활의 기준양식을 제정하고, 실천사항의 보조는 모든 조선에 일치시켜 실행하는 것이 가장 필요합니다. 생활혁신의 실질은 생활의 간이 합리화에 있고, 또 생활개선은 비상시에만 한정되는 것과 영구히 지속할 것 두 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약진 조선이 실질적으로 향상하기 위해서는 반도인의 생활개선운동을 더욱 계속적으로 항구화해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의례의 간소화, 집단생활의 규율화 등은 특히 필요한 사례이고, 또 내선일체를 심화시킨다는 의미에서도 내선의 생활양식의 융합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5. 근로보국운동의 강화에 대해서

근로보국운동은 국민의 멸사봉공과 근로애호의 정신을 배양하고 더불어 내선일체를 성취하는 핵심입니다. 또 모든 반도 민중을 총단련시켜 더욱 견고한 황국신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이의 보급과 확충 및 지도자의 양성 등에 대해서는 지금 고려 연구 중입니다만, 이 운동은 이미 모든 조선에 걸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 운동은 위와 같은 취지에 따라 앞으로 더욱 강력하게 발전해야 하기 때문에 각 연맹원은 모두 이 운동에 참가할 의무가 있습니다.

조선에는 예전부터 부역제도에 따라 공공을 위해 일하는 미풍이 있습니다만, 근로보국운동은 즉 이

러한 부역의 정신을 봉사의 정신으로 이끌어 전체적, 국가적인 조직적 활동으로 고양시키고 황국국민으로서의 심신을 단련하여 근로를 애호하고 유희를 배격하여 국가에 봉사하는 정신을 양양하는 것이 그 정신이 있습니다. 한편 이 운동은 국민의 공동일치적인 단련을 근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정신총동원의 취지를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연맹의 기저 단위인 애국반이 동시에 근로보국대를 형성하는 것이 앞으로 연맹의 당시 모습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일입니다.

6. 국민의 체력향상에 대해서

현하 전시체제하에서는 물질자원의 확보와 더불어 인적 자원의 보육이 전쟁 수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긴급한 사항입니다. 국민의 체력이 저하한다면 전투에서 약해지는 것은 물론, 비전투원인 총후의 우리 국민도 모든 능력을 발휘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일국의 문명진보에 참가하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국민의 체력은 국가 소장(消長)의 관건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체력의 증강은 먼저 국민 전반이 체육에 관한 강한 관심과 올바른 인식을 파악하여 실행 용이한 체육운동부터 점차 이를 일상생활에 도입시켜 계속 실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 체육운동 시설이 완비되지 않은 지방에서는 각종 회합을 이용하여 간단한 체조 등을 선택하여 실시하기를 바랍니다. 이와 동시에 더욱 절약을 중시하고 소박한 생활을 영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의 종합적 체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집단적 체육운동의 실시로부터 체위의 향상과 단체적 훈련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연맹원은 이런 종류의 대중운동에도 적극적으로 참가하여 연맹원의 훈육 훈련에 노력해야 합니다.

7. 사상전에 대해서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시에 전후(戰後)의 사상문제입니다. 지나사변은 일종의 사상전이기도 합니다. 성전의 하나의 목적은 인류의 공적인 공산주의로부터 독일, 이탈리아 등과 공동의 보초위에 서서 동아 전체를 사상적으로 방위하는 것에 있습니다.

연맹은 방공협회 등과 밀접한 연락을 취하면서 공산사상의 절멸을 위해 앞으로 더욱 협력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상전은 국민의 일치결속과 국책에 순응하여 모든 반(反)국가적 사상을 극복하고 일본정신을 선양하는 연맹의 지도정신이 철저히 자연히 해결될 것으로 믿습니다.

8. 연맹의 조직에 대해서

본 연맹은 지금 각 도연맹 조직을 완료하고 부군도읍면연맹은 물론 정동리부락 및 각종 연맹에 이르기까지 착착 결성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 미설치 지방 및 애국반 조직에 대해서는 금후 연맹의 지도자인 여러분이 더욱 진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들 연맹조직 및 실천망이 완성되면 연맹의 제반 운영은 물론, 이를 통한 관청에의 협력과 민중지도의 능력도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은 사무의 번잡 등에 개의치 말고 조직의 완성에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실로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기간(基幹)은 이들 조직 및 실천망에 있습니다.

본 연맹에는 조선의 모든 단체가 가맹하고 있습니다만, 참가 단체가 수적으로 다수라는 것 그 자체만으로 결코 자랑거리일 수 없습니다. 막연히 여러 단체가 연합하였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통적 정신인 화(和)의 정신으로 국가를 위해 구구한 개인적인 사정을 버리고, 일치단결과 관민일체를 이루어 강철과도 같은 결속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여러 단체가 하나가 되어 유기적인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조직체를 가진 직업적 조합 등도 서서히 총동원 조직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은 현재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임무에 관한 강요(綱要)를 말한 것에 불과합니다. 운동방침, 실천강령 등 상세한 것은 관계 임원으로부터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본 회의는 조선에서의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발전에 대해 아주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운동의 전개에 대해 기탄없이 의견을 말해주시기 바라마지 않습니다.

1938년 9월 22일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총재 오노 로쿠이치로(大野綠一郎)

(중략)

◎ 시국인식 및 국민정신총동원에 관한 중요 통첩

학교에서의 애국일 설정에 관한 건

1937년 9월 29일자

부윤, 군수, 중등학교장 앞

내무부장 통첩

지난 9월 4일 임시의회 개원식에 내려진 우악(優渥)한 칙어를 봉체(奉體)하고 거국일치로 시난극복에 매진함으로써 성려(聖慮)를 편히 받들고자 정부에서는 9월 9일 내각총리대신이 일반 국민에게 유고(諭告)를 내렸다. 또한 관공리에게는 더욱 봉공의 지성을 다하여 맡은 직분에 최선을 다하라는 훈령과 동시에 반도 민중에게는 조선총독이 견인지구(堅引持久), 생업보국(生業報國)의 신념을 견지하고 협심육력(協心戮力)하여 장기의 시련을 참아냄으로써 성지에 봉대(奉對)해야 한다는 취지의 유고를 내렸다. 이에 즈음하여 교육에 종사하는 자는 더욱 조수(操守)를 견고히 하여 교육보국의 결실을 거양(擧揚)해야 하고, 더욱이 제2의 국민인 학생 생도, 아동의 훈육 지도에 인고지구(忍苦持久)의 정신으로 훈련에 특별한 뜻을 담은 물론, 시국의 추이에 관해서는 지난 8월 27일자 통첩 '학교에서의 시국인식 철저에 관한 건'의 주지에 의거하여 모든 일상적인 기회에 인식의 철저를 도모해야 한다. 특히 동 통첩의 별지 '시국에 대한 교육시설요항' (을)의 (1)항 애국일 행사는 앞으로 반복하여 실시하고, 생도 아동의 정신 긴장을 도모함과 더불어 그에 응당한 책무 수행의 조장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앞으로 매월 6일을 학교의 애국일로 정하고, 다음 요강대로 모든 조선의 학교에서 일제히 실시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잘

숙지하여 실시에 유감이 없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기(記)

학교에서의 애국일 행사 요강

1. 취의(趣意)

생도 아동에게 국체의 존엄, 황국의 지위사명의 확인 및 각자의 본분을 명확히 자각시켜 내선일체 거국일치하여 황운을 부익하여 받들겠다는 뜻을 견고히 함으로써 행동으로 봉공의 지성을 다하고 시난에 대처하는 긴장의 견지를 도모한다.

시난에 즈음하여 매일 애국일을 통해 반성할 필요가 있음은 물론이다. 특히 월 1회 행사를 실시하는 이유는 과거를 반성할 기회를 주어 당일을 계기로 특히 강조하는 정신을 통해 앞으로 더욱 시난 극복에 매진할 기회를 주려는 것이다.

2. 실시사항

1) 국체관념의 명징에 관한 사항

신사참배, 황군무운장구 기원, 사변 전몰자의 신령을 받드는 묵도 등의 행사는 제1회 애국일(9월 6일)을 기준으로 실정에 따라 실시할 것.

2) 노력봉사에 관한 사항

- (1) 학교 부근을 하고 가능하면 부락, 정, 구에 접한 도로의 개수 소제(掃除)
- (2) 신사 경내, 공원, 고적, 국가사회 공로자, 절부(節婦) 등의 사당 또는 비상(碑像)의 청소
- (3) 가로수 학교림의 보호 가지치기 등

위는 본분의 자각을 촉구함과 더불어 앞으로 생길 노동력 부족에 대한 보충적 훈련으로서 부과할 것

3) 흠병(恤兵), 호군(稿軍), 국방자재 헌납에 관한 사항

생도 아동의 자발적 위문, 헌금(물건)은 가능한 한 애국일 당일에 지참하도록 한다. 이에 필요한 경비도 이미 통첩대로 작업의 실시 혹은 장려, 용비(冗費)절약 직업과 제작품의 매각, 사료의 채집, 신탄 채취 혹은 직업과 상업실습 등의 노작(勞作)을 통해 얻은 것을 출연하고, 단지 부형(父兄)의 부담에 의존하는 금품 헌납은 하지 않도록 할 것.

4) 근검 인고심(忍苦心)의 강화에 관한 사항

- (1) 내구(耐久) 행군 또는 소풍
- (2) 학교방호연습
- (3) 지참 도시락의 간소화
- (4) 학용품의 절약 등

3. 실시에 관한 주의

- 1) 국채 관념의 명칭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행사는 매월 8일을 기해 실시할 것.
기타 행사는 시기 또는 실정에 따라 위와 함께 실시하거나 혹은 월을 달리하여 순차 계획하여 실시할 것.
- 2) 세부 계획은 실정에 따라 수립하고 또한 시난에 즈음하여 생도 아동의 훈육 지도상 유효하고 실제적인 것은 별도로 계획하여도 무방하다. 단, 당일은 정규 수업을 실시한다는 명분으로 하루를 본 행사를 위해 써서는 안 된다.

국민의식의 강조에 관한 건

1937년 10월 7일자

각 부윤, 군수, 각 중등학교장, 농촌청년훈련소장, 농촌여자강습소장
내무부장 통첩

온 지나의 전화(戰火)는 이제 날로 확대되어 출정 장병은 많은 환난을 뚫고 철저 응징의 보무(步武)에 힘쓰고, 국민 또한 지성봉공의 정성을 다하여 거국일치 시난극복에 매진하여 동양평화의 확보라는 커다란 사명의 수행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본 사변으로 인해 다가올 사태의 추이 및 국제간의 동향 또한 예측하기 어렵다. 난국을 타개하고 국운의 융창을 도모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존엄한 단체를 기반으로 진충보국의 정신을 진기(振起)시켜 국민의 일상 업무와 생활 중에 구현하는 것에 있다. 특히 제 2 국민인 학생 생도 아동 및 청년훈련소 생도 기타 각종 청소년 단체 구성원의 견고한 지조정신은 장래의 국운신장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이들 청소년이 국채관념을 명징하여 황국신민으로서의 긍지를 확보하고 본분의 자각을 촉구하기 위해 별지와 같이 일상적으로 낭송해야 할 서사를 첨부하니, 숙지하여 학생 생도 아동 청소년 단체원의 국민정신을 일으키고 국가의식을 강조하는데 노력해주기를 바라며 통첩한다.

‘황국신민의 서사’ 낭송 방법

1. 실시

- 1) 4대절 축제일 기타 의식의 경우는 국가제창 이후 낭송할 것
- 2) 학교에서는 조회 시에 낭송할 것
- 3) 학교 또는 단체의 각종 집회, 모임, 행사 기타에는 적당한 기회에 자기 재량으로 정해 낭송할 것
- 4) 서로 다른 학교 또는 구성원이 다른 단체가 동일한 장소에서 낭송할 경우, 학교는 정도가 낮은 학교부터, 단체는 나이가 어린 단체부터 낭송하고 ‘제1’과 ‘제2’에 따라 낭송할 것
학교 단체와 청소년 단체가 동일한 장소에 있을 경우도 위의 예에 따라 동시에 제창할 것

2. 낭송

장중 엄숙하고 열성으로 소리 높여 낭송할 것

처음 실시하는 학교 또는 단체가 집합하여 모두 일제히 제창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경우는 단체 대표자가 선창하고 이를 따라 낭송할 것

3. 주지

1) 학교가 교부한 학생 생도 아동의 수첩, 청훈(靑訓) 수첩, 단원(團員) 수첩, 교훈, 교규(教規), 단규(團規) 등 인쇄물 책자 혹은 통지표 등 적당한 곳에(가능하면 표지 뒷면) 게재하여 일상적으로 낭송할 것

2) 교우회지 동창회지 기관지 등에 게재하여 낭송의 주지를 도모할 것

3) 의식 기타 여러 회합의 경우만이 아니라 상주좌와(常住坐臥)의 명심으로 낭송하도록 지도하고 주지시킬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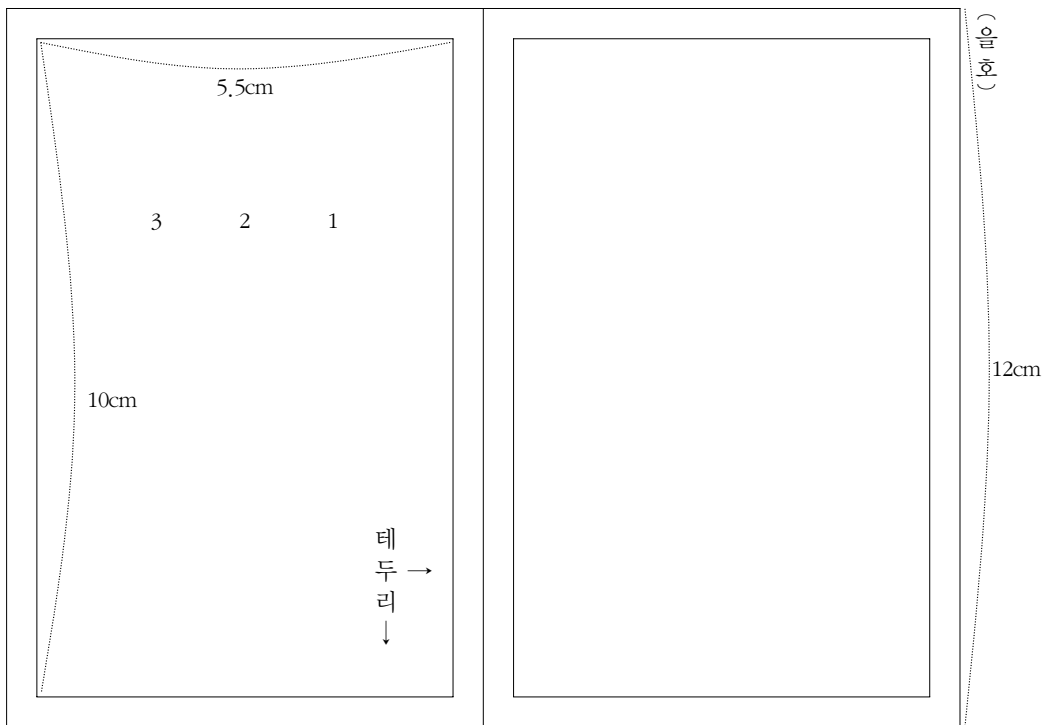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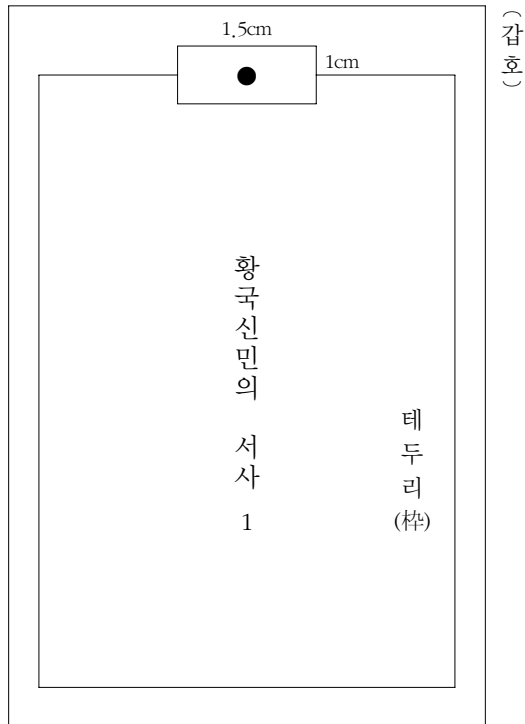
4) '황국신민의 서사 1'은 초등 정도의 학교 및 유소년 단체용으로 하고, '서사 2'는 중등학교 및 동일 정도 이상의 학교와 청년단 및 이와 동등한 유사단체용으로 낭송할 것

5) 철저한 주지를 위해 다음 규격 및 양식에 따라 인쇄한 '황국신민의 서사'를 학생 생도 아동 및 단원이 항상적으로 소지시켜 낭송할 것

(1) 규격: 세로 12센티, 가로 15센티의 지형(紙型)을 반으로 접은 것

(2) 양식(별도 기재)

6) 전 항의 '서사'는 조선교육회가 인쇄 배포할 예정임으로 귀 관하 각 학교 아동 생도 및 청소년 단원 등 희망수를 중등학교에서는 교내 희망자 수를 '서사 1'과 '서사 2'로 구별하여 오는 10월 13일까지 도교육회 앞으로 신청할 것('서사 1'과 '서사 2'는 모두 100매 당 30전 예정)



황국신민의 서사 1

1 우리 국민은 본래 천황의 신민입니다.

2 우리 국민은 만일 천황께 충성을 다한다면

3 우리 국민은 단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습니다.

황국신민의 서사 2

1 우리 황국신민이다. 충성을 다하여

2 우리 황국신민이 서로 친애 협력하고 단결을 굳게 한다

3 우리 황국신민이 단 한 사람도 힘을 잃지 않도록 선양한다

애국일의 일반실시에 관한 건

1937년 11월 26일자

부윤, 각 군수 앞

내무부장 통첩

국민정신 진작의 취지는 10월 8일자 충남지(忠南地) 제453호로 통첩(통첩은 생략)한 바와 같이 현재 내외의 정세를 고려하여 내선일체와 진정한 황국신민이라는 신념과 긍지를 각자 가슴 깊이 명심하여 각기 본분에 따라 어떠한 고통과 어려움에도 이를 극복하고 참아내는 지덕(智德)을 기르고, 신체를 연마하여 강건 불멸의 국민성과 지치지 않는 감행의 저력을 구비함으로써 황도를 팔굉에 선소(宣召)하고 국위를 세계에 발양할 기초를 수립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이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더라도 한시라도 잊지 않고 위와 같은 취지를 언제나 일상의 업무와 생활에서 실천 구현해야 함으로 이에 상응하는 행사를 시간과 장소에 맞추어 반복 실행하도록 엄밀히 지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학교에서는 이미 애국일을 설정하여 실시중이다. 그 취지는 단지 학생, 생도, 아동만이 아니라, 나아가 이를 더욱 강화하여 일반 민중에게도 파급시키고 황국정신을 선양함과 더불어 다음과 같이 신사(神社) 및 신사(神祠)의 참배, 황거요배 등을 실시하도록 하였다. 또한 앞의 통첩 요강에 따라 국민정신진작의 근본목적을 달성하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

본 건의 실시계획을 12월 10일까지 자세히 보고해주기 바란다.

기(記)

1. 명칭

애국일(각지의 사정에 따라 그날을 하나로 하기 어려움으로 예를 들어 '무슨 부락 애국일'과 같이 호칭한다)

2. 실시주체

관공서, 회사은행, 공장, 각종 단체, 정동회, 부락 등을 단위로 한다.

3. 실시일

매월 1회로 한다. 지방의 사정에 따라 적절히 이를 정하겠지만, 각지에서 매월 1일 또는 15일에 신사(神社) 및 신사(神祠)의 참배, 국기 게양 등의 행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여 그 어느 날을 대신할 수도 있다. 농산어촌에서는 부락의 월례회 날을 정하고, 그 개최시간 이전을 이용하는 등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또한 종래 이런 종류의 회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부락에서는 특히 주도한 지도를 통해 점차 철저히 보급해야 한다.

4. 장소

- 1) 신사(神社), 신사(神祠)의 대전(大前)
- 2) 신사나 신사가 없는 곳에서는 국기 게양대 앞
- 3) 위의 2항목이 없는 곳에서는 깨끗하고 모이기 편리한 곳을 골라 설정하고 항상 신성한 장소로서 유지하고 관리하도록 노력할 것

5. 행사

다음 각 항목을 참조하여 지방의 사정에 따라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정할 것. 단 번잡한 행사는 오히려 영속성이 떨어진다는 점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 1) 신사(神社) 및 신사(神祠)의 참배(신사와 신사가 없을 경우는 생략)
- 2) 황거 요배
- 3) 국기 게양(간단한 설비라도 좋음)
- 4) 국가 제창(제창이 어려운 경우는 생략)
- 5) 강화(매번 하지 않아도 됨)
- 6) 황국신민의 서사 제창
- 7) 천황폐하 만세삼창

존칭의 봉칭(奉稱)에 관한 건

1938년 5월 25일자
소속 관서의 장 앞
2부장 연서 통첩

고유명사 및 보통명사의 국어 읽기는 별도로 통첩을 내리겠지만, 특히 폐하나 전하 등의 존칭은 필히 국어로 봉칭하도록 특별히 주의하기 바란다.

국어의 보급철저에 관한 건

1938년 6월 14일자
소속 관서의 장 앞
2부장 연서 통첩

국어 보급은 별도로 통첩한 바가 있어 각각 배의(配意) 중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통해 황국신민으로서의 신념을 향상시키고 일본정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를 상용할 필요가 있다. 우선은 형용사, 동

사, 조사 등은 잠정적으로 종래처럼 조선어로 말하더라도 대일본제국의 국명은 절대로 국어로 말해야 하고, 도고 헤이하치로(東郷平八郎), 조선총독 씨명, 충청남도지사 씨명, 동경, 경성, 대전 등과 같은 고유명사 및 기차, 자동차, 산, 강, 쌀, 보리, 소, 달걀 등과 같은 보통명사는 가급적 국어로 말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아주 적절하다. 이에 다음과 같이 철저한 보급을 도모하기 바란다.

기(記)

1. 생도와 아동의 국어 상용을 철저히 할 것
2. 생도와 아동을 통해 철저한 가정으로의 보급을 도모할 것
3. 월례회, 강습회, 강화회, 기타 다수가 모인 집회에서 지도자 또는 연사가 강화를 조선어로 말할 경우일지라도 앞의 고유명사는 국어로 말하고 보통명사도 가급적 국어로 말할 것.

국민정신총동원 근로보국운동에 관한 건

1938년 7월 1일자
각 부윤, 군수 앞
내무부장 통첩

국민정신총동원 실천화의 한 방책으로 모든 조선에 걸쳐 근로보국운동을 일으키고자 별지 요강과 같이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각 지방의 실정에 따라 적절한 실시방법을 강구하여 충분한 소기의 효과를 거두기 바란다.

본 운동은 이번 달 7일 지나사변 1주년 기념을 기점으로 실시하고, 실시상황은 오는 9월 10일까지 일괄 보고하기 바란다.

국민정신총동원 근로보국운동 실시요강

1938년 7월 1일자
각 부윤, 군수 앞
내무부장 통첩

1. 취지

무릇 정신은 사물을 낳고 사물은 정신을 머금어 서로 상합(相合)하여 강력히 발전한다. 물질일체의 이상을 실현해야 할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은 이러한 실제적인 지도정신 아래 모든 국민의 자발적 분기

(奮起)와 희생적 봉사의 열의를 통해 비로소 진정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 모든 마을과 부락의 민중을 망라한 시설, 행사의 수행에는 개개인을 주체로 하지 않고 전원이 매진하여 전체의 협력일치를 중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인보단결의 정신이 더욱 진작되고 내선의 결합이 더욱 강화되어 어떠한 정세가 발생되거나 시난(時難)이 닥쳐오더라도 결코 미동도 하지 않는 국방의 근간을 확립할 수 있다. 또 반도의 청소년이 국방의 한 축을 떠안음과 동시에 사회봉사의 의미에서 근로에 힘쓰는 것은 2천만 민중이 국시의 관철에 매진할 수 있는 황국신민으로서의 신념과 긍지의 강력한 발로로서 이 또한 반도의 개발상 아주 필요하다. 다행스럽게도 조선에는 예전부터 부역(賦役) 제도와 같이 민중 일반에 공역(公役) 봉사의 습관이 있다. 이번에 부역의 관념을 봉사의 관념으로 전환시켜 본 시설에 새로운 생명을 부여함으로써 애국심을 함양하고자 한다. 이는 첫째로 국방의 증강에 도움을 줄 것이고, 둘째로 근로애호의 습관을 조장하여 황운부익(皇運扶翼)의 길을 밝힐 것이다.

2. 목표

- 1) 국가 관념의 함양, 내선일체의 심화
- 2) 근로호애(勤勞好愛), 인고단련, 희생봉공의 정신 함양
- 3) 공동일치적인 행동의 훈련
- 4) 체력의 증진
- 5) 지방의 개발
- 6) 비상시국 인식의 철저

3. 참가단체 및 조직

만 12세부터 만 40세세까지의 남녀 모두가 참가하는 것을 본지로 한다. 부락에서는 청년단, 갱생공려부락, 갱생지도부락 등 그 바탕이 있는 것부터 점차 근로보국대를 결성한다.

보국대에는 대기(隊旗)를 만들어 작업장이나 기타 대원이 집합하는 장소에 게양한다.

보국대의 조직 내용은 각지의 실정에 따르지만 장래 점차로 통제적 지도를 실시하기로 한다.

4. 봉사사항

대개 다음과 같은 종류의 작업에 봉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농(어)번기의 농산어촌민의 봉사 작업은 영농이나 어업 개선과 관계있는 부락적 일제작업(모심기, 병충해 구제, 퇴비장의 설치 또는 개선, 해변정소 및 양식장 수선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단 이 경우에는 특히 위의 작업을 통해 생산보국의 정신을 부익 함양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 1) 황무지 개발
- 2) 식림, 식수
- 3) 도로, 하천 등의 개수
- 4) 연못 또는 용배수로 준설

- 5) 신원(神苑)의 청소
- 6) 기타 본 운동의 목표와 합치하고 토지의 상황에 적응하는 작업

5. 실시방법

(1) 지도

청년단, 향약진흥회 등의 집단을 단위로 한 것은 이들 단체의 장, 기타 부락에서는 해당 부락에서 지도적 입장에 있는 자로 한다.

면, 읍, 도, 군, 부, 도의 장은 해당 관계구역의 전반을 지도한다.

(2) 작업

- 1) 부락의 애국일 행사에 본 운동을 함께 실시함을 물론, 애국일의 행사에는 지도자가 본 운동에 관한 취지를 철저히 강조하여 근로봉사의 신성한 정신에 대해 강화(講話)함과 동시에 지난 1개월간의 작업 성적에 관해 강평한다.
- 2) 지방의 실정에 비추어 남녀, 연령 등에 따라 반을 나눌 수 있다.
- 3) 작업용 기구는 작자 지참한다.
- 4) 작업 회수는 지방의 실정에 따라 결정하지만, 월 1회 애국일 집회 시에는 필히 실행한다. 봉사 시간은 매회 2시간 이상으로 하고 지방의 실정에 따라 적절히 결정한다.
- 5) 작업은 참가 연령 해당자의 잉여 노동력을 이용하고, 점차 근로량 증가의 기풍을 양성한다. 또한 작업 실시에는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 ① 부자의 자제 등 근로와 먼 자 및 실내노무자 등 평소 집밖에서 활동할 기회가 적은 자는 특별히 참가시킬 것.
 - ② 일정시간은 일심분란하게 노력하는 기풍을 기를 것.
- 6) 작업개시 전후 보국대원 일동은 모두 집합하여 대장의 지휘에 따라 점호를 한 다음, 농기구를 손에 잡고 엄숙 진지한 태도로 다음과 같은 행사를 실시한다(애국일 당일에는 애국일 행사에 따른다).
 - ① 황거 요배
 - ② 간단한 설화(說話)
 - ③ 황국신민의 서사 제창(국어를 모르는 자에게도 점차 연습시킨다)
 - ④ 천황폐하 만세삼창
 - ⑤ 작업 종료 후는 농기구를 청소하고 서로 인사한 다음 해산
- 7) 보국대원은 작업을 통해 보수를 받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이를 받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 ① 공적인 일에 현금할 것
 - ② 애국저금을 할 것
 - ③ 보국대의 비용으로 할 것
 - ④ 이상 아무 것이나 가능하지만 절대로 사용으로 소비하지 않을 것

요컨대 본 시설은 그 작업을 통해 얻은 물질적 효과만이 아니라, 실행을 통해 체득한 각 개인의 정신적 효과를 중시한다. 따라서 작업 중에는 대장의 명령에 복종하여 규율을 엄수하고 정연히 동작하도록 지도하고, 항상 정신이 쾌활하고 누그러지고 기쁜 마음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미풍을 기를 수 있도록 때때로 가요무용, 음악(조선민간 음악이나 군가도 가능), 체조, 경기 등을 적절히 가미할 수 있다.

6. 시설구성

본 시설 구성을 위해 다음 방법을 강구한다.

- 1) 기구류는 각자 소유한 간단한 것을 사용하고, 기계류는 사용하지 말 것.
- 2) 지방당국 및 지도적 입장에 있는 자는 개간할 임야와 황무지 등을 알선하여 가급적 무료 불하 방법을 강구하고, 정지(整地) 이후는 이를 부락의 공동경작 또는 세농(細農)에게 소작시켜 그 수입을 보국대의 경비로 충당할 것.
- 3) 보국대 중 성적이 우수한 자는 총독부 및 지방당국에서 선장(選獎)의 길을 강구할 것.
- 4) 지방당국은 지도를 겸하면서 장려를 위해 직원이 출장할 때는 보국대의 상황을 시찰 독려할 것.
- 5) 본 시설의 교육적 사회적 중요성을 감안하여 총독부에서는 보국대 지도관계자의 실수소(實修所)를 계획할 것.

국민정신총동원연맹 결성에 관한 건

1938년 7월 4일자

각 부윤, 군수 앞

내무부장, 경찰부장 통첩

제국은 현재 당면하고 있는 유례없는 중대 시국을 감안하여 거국일치 내선일체의 체제 아래 이를 극복하고 돌파하려는 취지로 이번에 별지의 취지에 따라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을 결성하고, 7월 7일 지나사변 발생 제1주년을 계기로 결성식을 경성부연맹의 결성식과 함께 거행하게 되었다. 이는 진정으로 내선일체의 결실을 거두어 황국정신에 투철하고 철석(鐵石)과도 같은 각오로 장기전에 대비하고, 진충보국의 적성을 다하려는 것으로 아주 시의적절한 시설이다. 이에 귀 부군에서도 시국의 추이를 살피고 지방의 정세를 감안하여 다음과 같은 대요(大要)에 따라 이번에 지급 준비하여 실현하기를 바란다. 이번 시국 하에서 내선일체로 만민이 모두 정신총동원의 대운동에 참가하여 황국정신의 양양을 통해 시난을 극복하고, 제국의 소기 목적을 향해 매진하도록 지도하기를 바란다.

더불어 시설이 실현되면 그 상세한 내용(결성식 사진 2장씩 첨부)을 보고하기 바라고, 소요경비로 부 50원, 군 30원을 부윤과 군수 앞으로 별도로 송부하니 유효히 활용하기 바란다.

기(記)

1. 부군청 소재지에 부군을 하나의 단위로 한 연맹을 즉시 설립하고, 중앙과 지방이 서로 호응하여 금성철벽(金城鐵壁)의 충후 진용을 견고히 할 것.
2. 대전부 및 읍이 있는 군(읍을 중심으로 한 곳)에서는 필히 7월 7일(조선연맹은 오전 10시에 결성식을 거행함으로 가급적 가튼 시각에 할 것)에 결성식을 거행할 것. 기타 군에서도 가급적 신속히 결성식을 거행하도록 조치할 것.
3. 연맹 설립에 즈음하여 그 취지 및 규약은 별지 국민정신총동원 ○○연맹 취지 및 국민정신총동원 규약 준칙에 의거하여 정할 것.
4. 본 연맹의 임원은 그 성격을 감안하여 관공리만이 아니라, 널리 민간으로부터도 찾아 진정으로 관민일체, 국민총동원운동의 기구가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유의할 것.
5. 연맹 결성의 행사는 대개 다음 별지의 행사표에 따를 것.
6. 연맹 결성식에는 가맹한 단체 및 개인은 물론, 기타 단체와 학교 생도 아동 및 일반 부읍면민을 가급적 다수 참가시킬 것.
7. 부군의 연맹 설립이 완료되면 이들 연맹을 망라한 도연맹을 결성하여 조선연맹과의 관계를 밀접히 할 방침인데, 도연맹이 설립되기까지는 부군연맹이 개별적으로 직접 조선연맹에 가입하고 도를 거쳐 연락을 취할 것.

국민정신총동원 ○○연맹 취지

생각건대 이번 지나사변은 동아의 화근인 항일정권을 타도하고 광휘(光輝) 있는 황도정신을 발양하여 세계평화에 공헌하려는 성전으로 우리 건국의 정신, 일본의 대사명은 바로 여기에 있다.

이후 1년간 황군은 연전연승하여 한토(漢土)의 절반을 석권하였고, 충후의 국민은 거국일치 진충보국의 정성을 다하고 있다. 우리 반도에서는 총독이 반도의 방위를 분명히 하고 민중이 나아가야할 길을 제시하였다. 또한 반도의 민중은 국민적 자각을 환기하고 내선일체가 되어 충후의 적성을 다하고 있다. 모두가 하나가 되어 존엄한 위세를 보이고, 황국신민이 되었다는 감격에 겨워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 국제정세는 복잡다단하고 점점 미묘한 사태의 추이를 보여 낙관할 수 없다. 나는 이러한 용이하지 않은 시국을 재인식하여 더욱 국민정신을 강화하고, 금후 어떠한 난국을 만나더라도 항상 견인지구하여 만난(萬難)을 극복함으로써 국가적 사명의 달성을 도모하고자 한다.

당국은 이러한 정세를 감안하여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철저히 시행하여 존엄한 우리 국체를 본받아 진충보국의 정신을 양양하고, 이를 국민의 일상생활의 실천으로 구체화하고 항상화(恒常化)하여 소기의 목적을 관철시키고자 한다. 이는 또한 국민 전체의 의지이자 의무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국민정신총동원 ○○연맹을 결성하여 사회 각 방면에 걸쳐 동일한 지도정신 아래 운동을 통제 강화하고, 진정한 관민협력 내선일체 국체에 순응하여 충후를 간고히 지킴으로써 시국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한다.

〈발기인의 예〉

■ 단체

부군군사후원연맹

애국부인회 조선본부 충청남도지부 부군분회

대일본국방부인회 부군분회

제국재향군인회 부군분회

국방의회 부군지부

부군청년단연합회

부군교화단체연합회

불교 각 종사원

수양단 ○○지부

○○의사회

○○신사 경신부인회

기타 단체

■ 개인

공직자 기타 지방유지

국민정신총동원연맹 규약 규칙

제1조 본 연맹은 국민정신총동원 ○○연맹이라 칭한다.

본 연맹의 사무소는 당분간 ○○○에 둔다.

제2조 본 연맹은 내선일체 거국일치 국민정신총동원의 취지 달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본 취지에 찬동하는 조선의 각종 단체 및 개인으로 조직한다.

제3조 본 연맹은 앞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사업을 실행한다.

1. 강연회 좌담회 등의 개최 또는 강사의 알선 및 파견
2. 인쇄물의 제작 배포
3. 가맹단체 및 개인 상호간의 연락조성 및 가맹단체 이외의 단체 및 본 운동 실시 기관의 활동 원조
4. 기타 앞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

제4조 본 연맹은 본 운동에 관해 당국의 자문에 응하거나 당국에 건의할 수 있다.

제5조 본 연맹 설립 이후 가맹하려는 자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6조 본 연맹은 ○○○직에 있는 자를 명예총재로 추대한다.

본 연맹에 고문 약간 명을 둔다.

제7조 본 연맹에 다음 임원을 둔다.

이사장 1명

이사 약간 명(이 가운데 약간 명을 상무이사로 한다)

평의원 약간 명

제8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한다.

이사장은 본 연맹을 대표하고 회무를 총리한다.

이사장 사고 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9조 이사는 이사장이 지명한다.

이사회는 평의원회의 의결에 회부되는 것을 제외한 본 연맹에 관한 중요한 사건을 심의하고,

상무이사는 본 연맹에 관한 사무를 장리(掌理)한다.

제10조 평의원은 가맹단체 관계자 및 개인 중에서 이사장이 위촉한다.

평의원회는 본 연맹의 중요한 사건으로 이사장이 논의를 회부한 사건을 심의한다.

제11조 고문과 이사회에서 추천한다.

제12조 이사회와 평의원회는 이사장이 소집한다.

이사회와 평의원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맡는다.

제13조 본 연맹에 필요한 직원을 두고 이사장이 임명한다.

〈부칙〉

본 연맹 설립 당초의 이사장은 설립 발기인이 추천한다.

〈비고〉

명예총재는 경우에 따라 없을 수도 있다.

〈행사표 개요〉

- 일동 집합
- 일동 경례
- 개식사
- 국기 게양(국가제창)
- 동방 요배
- 결성경과 보고
- 규약협정
- 가맹단체 및 개인 소개
- 임원 선정
- 이사장 인사
- 지사 고사(告辭)
- 선언문 낭독
- 황국신민의 서사 제창
- 천황폐하 만세삼창

폐식사

- 일동경례, 단 신사(神社)나 신사(神祠) 대전에서 거행할 경우는 신전을 향해 정렬하여 수발(修祓), 시사주상(視詞奏上), 옥관봉존(玉串奉尊)을 실시하고 다음 행사를 할 것.
- 순국용사의 위령제 집행
- 가두행진

〈선언문 예〉

지금 비상시국에 직면하여 우리 국민정신총동원 ○○연맹은 내선일체 및 거국일치와 투철한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기하며, 존엄한 우리 국체를 본받아 더욱 진충보국의 정신을 양양하고 일상생활에의 실천구현을 통해 건인지구하여 시난의 극복에 매진할 것을 맹세한다.

국민정신총동원연맹 결성에 관한 건

1938년 7월 13일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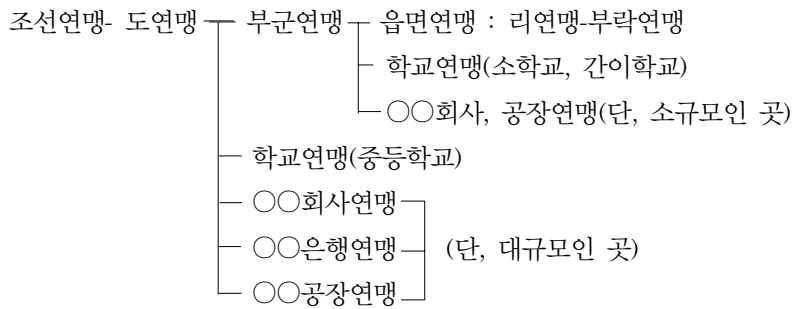
각 부윤, 군수, 경찰서장 앞

내무부장, 경찰부장 통첩

본월 7일에 대전부 및 연기, 공주, 논산, 천안군과 12일에 대덕과 청양군에서 각각 결성식을 거행하여 내선일체와 관민일치를 통해 황도의 선양에 매진하고자 굳게 결의한 것을 경하해마지 않는다. 하지만 본 연맹의 중대한 사명을 감안하여 기타 군에서도 적어도 본월 20일경까지는 결성식을 거행하도록 조치하고, 결성식 일자가 결정되면 신속히 그 일시 및 장소를 보고하기 바란다. 또한 이미 결성식을 거행한 연맹의 가입자 상황을 보건대, 그중에는 주요 단체 및 유력한 개인을 아직 망라하지 않은 곳이 있다. 적어도 부군을 단위로 하는 단체는 물론 군청소재지의 주요 단체 및 부군 내에 거주하는 유력한 개인이 가급적 가입하도록 신속히 조치하기 바란다. 또한 앞으로 결성되는 군은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하기 바란다.

더불어 본 연맹은 단지 부군을 단위로 결성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각 읍면은 물론 나아가 오는 9월 18일 만주사변 기념일까지는 모든 소부락, 소집단 또는 학교, 회사, 은행, 공장 등에서도 빠짐없이 결성하도록 준비하여 순차적으로 결성식을 거행하거나 또는 당일 일제히 결성식의 거행을 통해 철저한 조직망을 조직할 수 있도록 지도하기 바란다. 또 본 연맹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이들 세포연맹에는 각종 단체는 물론, 애국심에 불타는 개인을 모두 가입하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연맹의 기구는 대개 다음과 같지만, 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순위가 다른 2개 이상의 연맹에 가입하여도 무방하다.

기(記)



국민정신총동원연맹 결성 및 조직대강 제정에 관한 건

1938년 8월 4일자

각 부윤, 군수, 경찰서장 앞
내무부장, 산업부장, 경찰부장 통첩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의 결성 및 그 취지의 철저한 주지에 대해 귀 부군에서도 각각 지방의 실정에 비추어 가장 포용력이 크고 강력한 단체를 통해 총후국민민의 완비를 도모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맹은 도내는 물론 널리 반도 내의 단체 및 개인을 망라함으로써 황국정신의 양양과 내선일체의 심화를 도모하여 진정한 거국일치 진흥보국의 심충(深衷)을 본받아 반도국민의 총동원 아래 희생적으로 봉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의 목적 수행을 위해 별지처럼 조선연맹에서 그 조직대강을 결정한 바, 앞으로 이를 통해 다음 사항에 유의하면서 8월 20일까지 귀 관하 연맹의 조직을 완료하도록 지도하기 바란다. 또한 읍의 시가지에는 정리연맹, 촌락에는 면에 준하는 부락연맹을, 면에는 리연맹을 결성하지 않고 곧바로 갱생공려부락, 공려조합 및 설치 예정부락을 단위로 하는 부락연맹을 결성하고, 간부는 구장 및 공려조합, 진흥회 등의 간부로 충당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가급적 사업 상호간의 긴밀한 연락통합을 도모하도록 조치하기 바란다. 또한 쓸데없이 새로운 인물을 발탁하여 기설 단체와의 조직상의 마찰이 일어나 앞으로 운용상의 지장이 생겨나지 않도록 유의하기 바란다.

더불어 7월 13일자 통첩의 연맹 결성상의 기구는 본 통첩에 따라 수정하기 바란다.

기(記)

1. 7월 4일자 통첩의 식의 차례에서 동방요배에 이어 7월 7일자 하사받은 칩어를 봉독하고, 식이 종료한 다음 '순국열사에 대한 묵념'을 넣을 것.
2. 읍면연맹 결성식의 일시 및 장소는 적어도 10일 이전에 도에 필착하도록 날짜를 고려하여 보고할 것.
3. 연맹이 결성되면 지체 없이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 관계인쇄물(취지, 임원명부) 각 2통을 첨부하여 보고할 것.

- 1)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2) 규약 및 임원, 가맹자 명단
 - 3) 발회식의 상황(참가자 수 및 기타 참고사항, 사진이 있으면 각 2매씩 첨부할 것)
 - 4) 기타 참고할만한 사항
4. 부락연맹 결성은 해당 읍면 내의 모든 부락의 완료를 기다려 다음 양식에 따라 각 부읍면 별로 일괄하여 정부(正副) 2통을 보고할 것.

국민정신총동원 부락연맹 결성보고

○○군 ○○면(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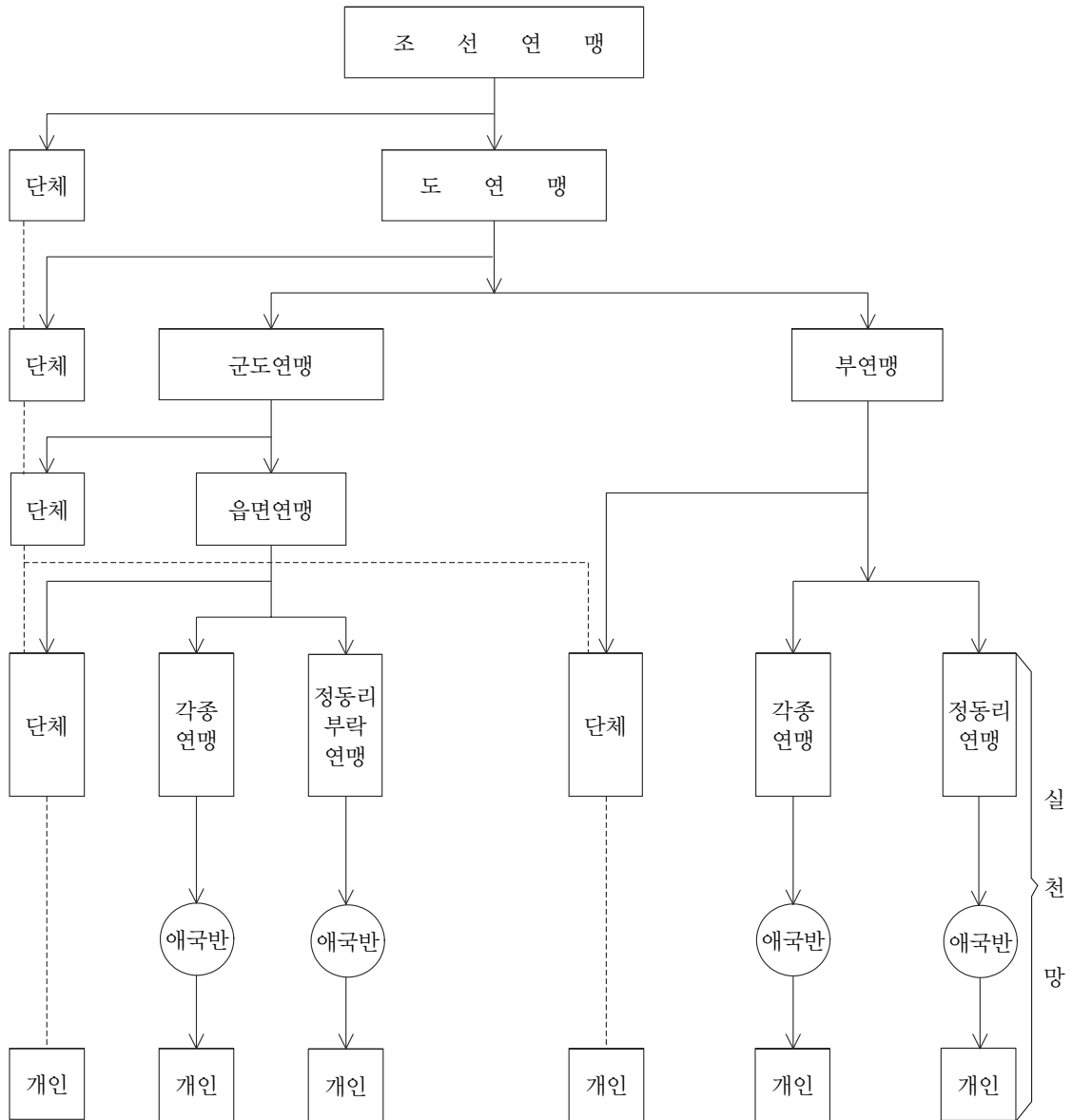
부락명	명칭	설립연월일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씨명	애국반수 및 그 반수

비고)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 조직대강

1. 조선연맹 : 도연맹 및 전 조선을 구역으로 한 단체로 구성한다.
2. 도연맹 : 부군도연맹 및 도를 구역으로 한 단체로 구성한다.
3. (1) 부연맹 : 정동리연맹 및 부를 구역으로 한 단체, 기타 부내의 각종 연맹 및 개인으로 구성한다.
 (2) 군도(郡島)연맹 : 읍면연맹 및 군도를 구역으로 한 단체로 구성한다.
 (3) 읍면연맹 : 정동리 부락 및 읍면 내의 각종 단체, 기타 각촌 연맹 및 개인으로 구성한다.
4. (1) 정동리 부락연맹 : 부에서는 정동리, 부락을 구역으로 하고 구역 내의 개인으로 구성한다. 읍은 토지의 정황에 따라 부연맹의 조직에 준할 수 있다.
 (2) 각종 연맹 : 부읍면 내의 관공서, 학교, 회사, 은행, 공장, 대상점 등 일상적으로 다인수를 포용하는 것으로 각기 소속 인원으로 구성한다.
5. 애국반
 - (1) 정동리 부락연맹 및 각종 연맹은 그 기저 조직으로서 애국반을 조직한다.
 - (2) 정동리 부락연맹의 애국반은 모두 10호로 조직한다.
 - (3) 각종 연맹의 애국반은 해당 연맹의 정황에 따라 적당히 구분하여 조직한다.
 - (4) 애국반은 인보 협력하여 본 연맹의 기저 조직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한다.
 - (5) 빌딩, 아파트 기타 일상적으로 다인수를 포용하는 사무소 등에서는 실정에 따라 앞의 각 항에 따라 연맹 또는 애국반을 조직할 수 있다.
 - (6) 연맹의 정황에 따라 애국반의 조직을 생략할 수 있다.

조직계통도해는 다음과 같다.



비고) 부군연맹에서 각종연맹이란 학교, 공장, 백화점, 은행 등과 같이 평상시 다수를 포용하는 집단의 연맹을, 단체라는 것은 농회, 교육회, ○○연합회 등과 같은 것을 지칭한다.

국민정신총동원 정동리부락연맹 규약 규칙

제1조 본 연맹은 국민정신총동원 ○○연맹이라 칭한다.

본 연맹의 사무소는 '어디'에 이를 둔다.

제2조 본 연맹은 내선일체 거국일치 국민정신총동원 취지의 달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본 연맹은 ○○도, ○○부, ○○정동리(○○군도, ○○읍면, ○○정동리, ○○부락)를 구역으로 한다.

제4조 본 연맹 가맹자는 모두 10호씩으로 하나의 애국반을 조직하고 일치단결하여 그 실천을 도모한다.

제5조 본 회에 다음 임원을 둔다.

이사장 1명

이사 약간 명

반장 약간 명

제6조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이를 추천한다.

이사장은 본 연맹을 대표하여 회무를 총리한다.

이사장의 사고 시에는 이사장이 지명한 이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제7조 이사는 이사장이 이를 지명하며 본 연맹에 관한 사무를 장리(掌理)한다.

제8조 반장은 1개의 애국반에 1명으로 하고, 반원 중으로부터 이사장이 이를 지명한다.

반장은 반원을 통솔하고 전달, 연락에 종사한다.

반장 사고 시에는 반장이 지명한 반원이 이를 대리한다.

제9조 본 연맹에 필요한 직원을 두고 이사장이 이를 임면한다.

부칙

본 연맹 설립 당초의 이사장은 설립발기인에서 이를 추천한다.

서약서

국민정신총동원연맹
애국반

우리는 이번 국민정신총동원 ○○연맹에 가맹하고 ○○애국반을 조직하는데 있어 국민정신총동원의 취지에 따라 그 목적의 관철을 도모하고 각원 일치 협력하여 본 연맹 기저단체로서의 임무를 완수할 것을 여기에 서약한다.

년 월 일

주의) 월일 다음에 도부군읍면정동리부락명을 기입하고 반원이 전원 서명 날인할 것.

학교의 국민정신총동원 취지 철저에 관한 건

수제(首題)의 건에 관해서는 종래 누차 시달한 바가 있다. 시국이 점점 항구화하여 국민정신총동원의 강조가 긴요해짐에 따라 교원은 그 직책과 지도적 입장에 비추어 자숙자계를 통해 생활의 물심양면에 걸쳐 장기 지구의 결의가 필요하고, 생도 아동 또한 사변 하에서 자강자분(自疆自奮)을 통해 본분에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황국신민으로서의 신념과 투철한 거국일치의 정신에 유감이 없도록 이번 에 특별한 지도를 실시함으로써 이들 교직원 및 생도 아동의 기풍 진숙(振肅)을 도모하여 더욱 확실한 교풍의 발양에 힘쓰고, 나아가 일반사회에 대한 모범으로서의 내실을 거두는데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이러한 취지의 실현을 위해 다음 사항의 면행을 도모하고, 또한 각 학교에서도 적절한 방도를 강구하여 본 건의 취지를 철저히 도모하기 바란다.

기(記)

1. 지방에서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이 설립될 경우는 소재지 교직원이 앞서서 협력할 것.
2. 지방의 근로보국대에 대해서는 소재지 직원이 앞서서 지도할 것.
3. 교직원의 일상생활은 일반의 모범이 되도록 지극히 합리적이고 간소화를 도모할 것. 특히 경조사 의 반례(返禮), 증답(贈答), 송영(送迎), 연회 등 단순하고 의례적인 것에 불과한 풍습을 폐지하도록 지도할 것.
4. 교직원의 복제는 여자의 경우 이미 규격을 제정하였고, 남자의 경우도 곧 제정될 예정인데 이에 따라 착용할 것. 단 종래 착용한 것은 당분간 이를 착용하여도 무방하나 가급적 수리하여 통합시킬 것.
5. 교직원 및 생도, 아동의 취미나 오락은 고상하고 검소한 것을 장려하여 휴일 등에는 수양 행사, 등산, 소풍, 보건운동 등의 실시를 장려할 것. 또 나아가 자연적으로 불건전한 오락이나 요리점, 음식점에 출입할 여지가 없도록 지도하여 명랑 조달(調達)한 기풍의 양성을 도모할 것.
6. 생도, 아동의 용모는 질소단정(質素端正)을 원칙으로 하는 기풍의 진숙(振肅)을 기할 것.

국어의 전면적 보급에 관한 건

1938년 12월 17일자
소속 관서의 장 앞
2부장 연명 통첩

국어의 보급은 단지 일상생활의 편리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진정한 일본정신을 파악하고 국체에 대한 신념을 견지함으로써 내선일체의 근기(根基)로 삼으려는 반도통치상의 중대 시책이다. 지난번 도지사회의에서도 특별히 총독 각하는 모든 기관을 이용한 철저한 도모를 지시하였다. 본도의 실정을 보건대 도내의 조선인 가운데 1937년말의 국어 해독자는 총인구의 8분 5리에 불과하다.

장래의 인구증가율을 감안할 때 공립소학교 증설계획만으로는 도저히 이의 급속한 보급을 기하기 어렵다. 모든 기회와 기관을 이용하여 이를 철저히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전에 소학교 또는 간이학교를 중심으로 한 간이 국어강습회의 개최에 대해 부윤과 군수 앞으로 통첩을 내린 바가 있지만, 나아가 현재 계몽시설로서 실시하는 언문보급회를 개조하여 국어보급회로 만들고, 종래 동 회에서 교수하던 언문의 읽기와 쓰기를 국어 교수로 바꿈으로써 전면적이고 철저하게 국어를 보급하기로 하였다. 이에 1938년도부터는 다음에 같이 계획을 수립하고 신속히 실시 조치하기 바란다.

기(記)

1. 본 강습은 1938년도부터 향후 10년간, 본년 3월 말 현재 11세 이상 30세 이하인 자로서 국어를 모르는 자 전부에 대해 보급하고자 한다. 단 1호 중에 국어를 아는 자가 없거나 해당 연령인 자가 없는 집에 대해서는 특별히 가족 중 1명을 선정하여 각 호가 빠짐이 없이 보급하도록 한다.

보급 계획은 다음과 같다.

1) 부읍면에서는 부락별로 수강 해당자의 수강 연차별 남녀별 명부를 작성하여 완벽한 보급을 도모할 것.

2) 수강 연차의 결정은 가급적 먼저 각 호 1명씩에게 보급하도록 하고, 다음에 수득 능력이 왕성한 자부터 점차 보급하는 것을 고려할 것.

3) 부군에서 위의 명부를 모아 다음의 제1호 및 제2호 양식에 따라 보급계획을 수립하여 1939년 1월 말까지 보고할 것.

〈제1호 양식〉

읍면 (정)명	리명	부락명	부락 총인구	이 중에서 국어를 모르는 자	11세 이상 30세 이하 총인구	이 중에서 국어를 모르는 자	적요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계						
계							

〈제2호 양식〉

리명	부락명	연차별 국어보급예정인원수										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6년차	7년차	8년차	9년차	10년차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계												

비고)

1. 제2호 양식에서 연차별 국어보급 예정 인원수의 합계는 제1호 양식의 11세 이상 30세 이하인 자 중에서 국어를 모르는 자의 수와 합치시킬 것.
2. 실시는 당초부터 가급적 다수를 수강시키고 점차 복습의 기회를 많이 주도록 고려할 것.
3. 본 강습회 주최는 각 리 또는 부락의 진흥회(진흥회가 없는 곳은 해당 리 또는 부락)로 하고, 소요 경비는 주최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주최자가 지급 곤란할 때는 독지가의 기부를 받아도 무방하다.
4. 강습회 개최 기일은 매년 12월부터 다음 해 3월까지 60일 이산으로 한다.
5. 교과서는 본년도는 조선교화단체연합회가 편찬한 간이 국어독본을 사용한다. 단, 관계 소학교장과 협의하여 간이 학교독본 또는 적당한 독본을 작성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6. 간이 국어독본을 사용하는 경우는 본년도 소요 부수를 12월 말일까지 보고할 것. 단, 강사용은 무상이고 강습생용은 유상(1부 10전 이내 예상)임으로 이를 구분할 것.
7. 강습회 개최는 매년 8월 말일까지 1913년 1월 15일자 총독부령 제3호 사설 학술강습회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1936년 4월 14일자 충청남도 내훈(內訓) 제3호 제5항(동 향 중 언문강습회는 국어강습회로 개정 수속 중)에 의거하여 처리할 것. 단, 이의 처리에 대해 군수는 경찰서장과 협의할 것.
8. 강사의 인선은 공립소학교(6년제) 졸업 정도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가운데 국어회화에 정통한 자를 선발하고 사상 환경에 가장 주의를 기울일 것.
9. 강사는 강습회 개최 이전에 적당한 기회에 소학교에 소집하여 학교장 및 기타 직원으로부터 지도 요령을 전수받을 것.

국민정신총동원 근로보국운동에 관한 건

1939년 2월 2일자
부윤, 각 군수, 각 경찰서장 앞
3부장 연명 통첩

국민정신총동원 실천을 위한 하나의 정책으로 1938년 7월부터 제목과 같은 운동을 실시하였다. 만 12세부터 만 40세까지의 남녀 모두의 참가를 본지로 부락에서는 갱생공려부락, 갱생지도부락 등의 소지(素地)가 있는 곳부터 점차 근로보국대를 결성하여 소정의 행사를 실시하였다. 지금은 각지 모두 단체 및 개인을 망라한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의 결성이 완료되어 황국정신의 양양과 내선일체의 심화를 도모하고 진정으로 거국일치, 진충보국의 심충(深衷)을 본받고자 일반적 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에 앞으로는 근로보국대를 부락연맹 또는 각종 연맹의 근로봉사에 관한 실천형태로 하여 무슨 연맹보국대라고 부른다. 이와 함께 연맹원(가족 포함)이 애국반으로 일제히 근로봉사에 출동할 시에는 이를 근로보국대 봉사로 하여, 그 기저조직은 애국반이 되도록 통제함으로써 한층 본 운동의 철저한 강화를 도모하기 바란다.

더불어 청년단은 별도로 연맹을 결성하지 않더라도 근로봉사에 출동할 때는 무슨 진흥청년보국대라고 부르도록 한다.

〈출전 : 國民精神總動員 忠淸南道聯盟 『國民精神總動員聯盟要覽』,
1939년 3월 7~12일, 53~61쪽 · 95~128쪽〉

3. 김대우, 역사적 대국민운동(상 · 중 · 하)

도의(道義)동양의 신건설 -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진로(상)

본부 사회교육과장 김대우(金大羽)

1. 전언(前言)

지난 7월 7일 '지나사변(支那事變)³⁾ 1주년 기념일을 기하여 관민이 서로 일치협력하여 내선이 글자 그대로 일치일심(一致一心)이 되어가지고 국가 최고의 이상과 성전(聖戰) 궁극의 목적을 향하여 종래의 추상적이요, 분산적이던 시국관계의 모든 운동을 동일한 지도정신과 동일한 원리 목표 하에 통제 강화하는 단일 기관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의 발회식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은 창립 후 불과 2개월 만에 7월 15일 경기도를 위시하여 9월 18일 함북(咸北)을 최종으로 각 도(道)연맹의 조직완성을 보았을 뿐 아니라 전선(全鮮) 각 부·군·도(府郡島)와 읍(邑)·면(面)등지는 물론이요, 각지 정(町)·동(洞)·리(里) 부락(部落)에 이르기까지 수만의 연맹이 조직되었고 또한 이 세포단체인 애국반이 20여만 반이나 조직되었으며 지난 9월 22일에는 총동원지도정신의 실천강령과 기타 운동방침에 관한 협의타합을 위하여 오노(大野)총재 통제(統裁)하에 수백 명의 관계자 일동이 총독부 제1회의실에 모이어 제1회 타합회(打合會)를 개최하였고 개회 벽두에 미나미(南) 총독 각하께서는 시국의 중대성에 감(鑑)해서 일본정신총동원의 역사적 의의와 필요를 강조하여 연맹 금후의 지도원리를 명백히 지시하여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본 연맹의 지도정신은 건국의 대이상인 팔괘일우(八紘一宇)에 현양(顯揚)하며 황도정신을 전 세계에 선포하여 대 일본제국을 중심으로 한 도의동양(道義東洋)의 신건설과 평화세계의 현출(現出)을 사명으로 하는데 있고 따라서 이러한 제국부동의 국시국책(國是國策)을 실현하여 동양영원의 평화와 행복을 건설하기 위한 이번의 성전(聖戰)이 궁극의 목적을 달성 관철하도록 인적·물적의 총력을 집중 발휘하는 것이 연맹본래의 중대한 임무라고 하는 것을 훈시(訓示) 설파해 주셨습니다.

중일전쟁은 벌써 1년 2개월을 경과하였고 황군장병의 위무충용(威武忠勇)에 의하여 장기 항일(抗日)

3) 1937년 발발한 중일전쟁을 뜻함.

에 광분중인 장개석(蔣介石)정권과 공산주의(共產主義)세력을 여지없이 타파 제압 중에 있다는 것을 매일 매일 신문의 보도하는 바와 같거니와 견고무쌍(堅固無雙)을 자랑하는 무한삼진(武漢三鎭)의 적진도 마치 풍전(風前)의 등화(燈火)와 다름이 없는 운명에 빠졌고 적군의 제2수도인 한구(漢口)의 함락에 따른 전폭적 전승에 의하여 혁혁장쾌(赫赫壯快)한 국력·국위의 세계적 현양(顯揚)을 보는 것은 가까운 장래의 일이라고 믿는 바입니다. 그러나 항일정권에 소속당군은 아직도 제3국의 원조를 획책 신뢰하는 자포자기(自暴自棄)의 저항을 계속하고 있으며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정세는 역시 복잡다단하여 낙관을 불허하는 점이 없지 아니합니다.

더구나 최근국경지방에 있어서는 소련군의 횡포무도(橫暴無道)한 도전적 행동이 비일비재한 형편에 있고 다행히 황군의 무용(武勇) 선처에 의하여 언제나 철저한 격퇴를 가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금후에 있어서 제2, 제3의 장고봉(張鼓峰)사건이 발생할 염려가 없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철저히 단언할 수 없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현하 대일본제국의 당면한 시국이 얼마나 중대성을 띠고 있다고 하는 것은 다시 설명을 거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혹은 국방으로나 혹은 외교로나 산업·경제·교육 등 모든 점에 대하여 완벽 충실을 기하지 아니하면 안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의 근본적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은 무엇이나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황(皇)정신을 기초로 한 국민적 일대 결속에 있다고 저는 한 마디로써 단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황국정신을 기초로 한 국민적 일대 결속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저 국가국민의 총역량을 집중 발휘하는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의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변 발생 이래 일반 민중에 대하여 시국의 적확한 인식을 통해서 황국신민으로서의 신념과 각오를 굳게 하기 위하여 음(陰)과 양(陽)으로 여러 가지의 시설과 사업을 거듭해 오는 본부 당국이 특히 국민정신총동원운동에 전력을 가하며 일체 운동의 중심을 삼아오는 이유가 또 여기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중대한 역사적 사명과 만인공동의 기대를 일신에 걸머지고 있는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은 금후 어떠한 목표와 어떠한 지도원리 하에 나가야 하겠느냐 다시 말하면 우리의 건국 이상을 전 세계에 선포하여 도의(道義) 동양 건설의 신건설을 위한 광영의 첫 걸음을 걸어나온 조선연맹의 금후에 향하여 나아가야 할 바 목표와 진로가 무엇이겠느냐 하는 점에 대하여 잠시 저의 희망과 의견을 말씀 드려볼까 합니다.

2. 본론

1) 황국정신의 현양(顯揚)과 국제명징(國體明徵)

저는 조선연맹은 첫째로 황국정신의 현양과 국제명징을 위하여 일단의 노력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국 삼천년의 황도정신을 반도산하 방방곡곡에 선포하며 국민 심신에 투철간명(透徹肝銘)하게 해가지고 반도민중으로 하여금 황국신민으로서의 신념과 광영에 도취할 수 없게 하여 항상 황실을 존숭(尊崇)하고 국가를 사랑하며 경신숭조(敬神崇祖)의 정신을 함양하는 동시에 국체의 존엄을 감득(感得)하여 자기 자신의 소아(小我)를 떠나서 멸사봉공(滅私奉公)의 적성(赤誠)으로써 국가 전체에 합류일치(合流一致)하는 숭고지상(崇高至上)의 정신을 연성(鍊成) 현양하는 것이 연맹결성의 최초의 동기

요, 또한 최후의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2) 내선일체(內鮮一體)의 완성

다음 내선일체의 완성이올시다. 이 내선일체에 대해서는 지난 고적(古蹟) 애호일의 전 날인 9월 9일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인종적으로 혹은 문화적으로 내선일체의 역사적 사실을 자세히 말씀 드린 바와 같이 일본과 조선(朝鮮)은 본래 동근동조(同根同祖)의 족속이요, 또한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서 결연일체(結聯一體)가 되어온 것은 역사상으로 보아 현저한 사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본과 조선의 수천 년 전 옛날서부터 조정에 있어서나 민간에 있어서나 실로 혼연일체, 융합일가(融合一家)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옛날로 말씀하면 여러분이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교통이 대단히 불편하였기 때문에 지리, 풍토의 관계상 서로 빈번한 왕래를 계속하지 못하였고 따라서 부지불식간에 언어 풍속을 서로 달리하게 된 것이올시다.

그러나 말씀 드리옵기도 황공한 일이오나 명치대제(明治大帝)께옵서는 내선병합의 대조(大詔)를 환발(渙發)하시옵시사 양지(兩地) 1억만 동포로 하여금 황도인정(皇道仁政)에 의한 일시동인(一視同仁)의 성지(聖旨)를 봉대(奉戴)하여 이제 다시 일가일체(一家一體)를 재현하고 천년전 옛날의 내선(內鮮) 관계로 다시 원원귀일(遠元歸一)할 기회를 사(賜)하셨습니다.

대일본 제국은 동아의 맹주로서 일체의 희생을 불고(不顧)하고 대륙에 호젓이 있는 영년(永年)의 요기(妖氣)를 일소하여 명랑 견실한 신생 동아시아 건설을 향해서 견인지구(堅引持久), 시간극복(時艱克服)의 일로(一路)를 돌파하는 이러한 초비상시를 당하여 제국이 당면한 중대사명의 전진기지인 조선 독자(獨自)의 책임이 또한 얼마나 중대하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라고 믿는 바이나 특히 국민정신총동원연맹으로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진정(真情)과 열의를 가지고 내선이 서로 이해하며 융합하여 일체일심(一體一心)이 되고 반도 민중으로 하여금 충열선량(忠烈善良)한 황국신민으로서의 각오를 한층 더 새롭게 하여 신동아시아 건설의 성업에 몸소 참가 협력하는 것이 무쌍(無雙)의 영광일 뿐 아니라 동시에 반도영원의 행복이라는 것을 깊이 자각할 수 있도록 진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조선연맹이 내선일체의 대업을 철저히 강화실현한다고 할 것 같으면 국민정신총동원 운동은 이것만으로도 반도의 목적을 달성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믿는 바입니다. 만약 반도 2천만민이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나는 황국신민이라는 신념을 가지게 되고 조선이 정신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일체의 의미에 있어서 진정한 일본화가 될 것 같으면 국민정신은 스스로 총동원이 될 것이요, 따라서 조선연맹의 사업과 경륜(經綸)은 용이하게 실현 강화를 보게 될 것인 만큼 내선일체의 완성은 조선연맹의 최대사명이요 중심간선(中心幹線)이라고 하는 것이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계속)

역사적 대국민운동 -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진로 (중)

본부 사회교육과장 김대우(金大羽)

3) 전시경제정책에 대한 협력과 생활 혁신

저는 조선연맹의 중대한 사명으로서 셋째로는 전시경제정책에 대한 협력과 생활혁신운동을 말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대전쟁은 다만 제1선 장병이 총과 검을 들고 싸우는 전투력에 의하여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국민의 정신적 물질적 총력량을 전쟁목적에 최고도로 집중 동원하는 종합적 국력전이 아니면 도저히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 없는 것이올시다.

따라서 근대전은 병력의 전쟁인 동시에 경제력의 전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로 혹은 소비절약, 혹은 저축 장려를 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생산 확충에 노력하여 전쟁에 필요한 물자와 자금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게 하며 물가조절과 무역통제, 노동력의 조정, 공채의 소화 등으로써 총후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여 전시경제정책의 원만한 수행을 기하는 것은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의 중요한 임무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소비의 제한과 물가조절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미 실시되고 있는 터이지만은 이러한 것은 결코 법령의 힘으로 강제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열성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이해가 아니면 도저히 완전한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조선연맹은 이러한 국책에 자발적 순응과 노력을 강조할 의무가 있다고 믿는 바입니다.

다만 우리는 일본정신을 관념적으로나 추상적으로만 양양(昂揚) 신봉(信奉)할 것이 아니라 조국을 위하는 일가일신(一家一身)의 여하한 곤란이라도 감수(甘受) 돌파한다는 진충보국의 정신을 함양하여 이러한 경제적 대중운동에도 연맹이 선두에 서지 아니하면 안 되겠다는 말씀이올시다.

언제든 평상보다도 지금과 같은 비상시에는 우리 일상생활을 반성·개선할 절호의 기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조선연맹에 있어서는 한층 더 새로운 각오와 노력으로써 일반 민중생활을 전시 체제화하고 비상시 국민생활의 기준양식을 제정하여 전체 일치보조(一致步調)를 맞추어 일상생활에 실천 구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반도인의 생활은 정신적으로는 좀 더 긴장 규율화할 필요가 있고 물질적으로는 한층 간이(簡易) 합리화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항상 기회 있는 대로 누구에게나 말씀해오는 바이지마는 특히 이러한 비상시에 있어서는 혹은 의례의 간이화라든가 혹은 내선생활 양식의 융합 접근은 물론이거니와 전반적으로 장기경제력의 충실유지에 협력하는 것이 국민의 일원으로서의 당연한 책임인 동시에 조선연맹이 부하(負荷)한 중요사명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4) 근로보국과 생업보국

그 다음 넷째로는 근로와 생업을 통한 보국운동에 대하여 말씀드리려 보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근로보

국과 생업보국에 관해 말씀이올시다.

우리가 국민정신총동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떤 분이 이것은 다만 일종의 종교운동과 같은 정신운동에 불과한 것이라고 오해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나 일본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물심일여(物心一如)를 근거로 하고 진충보국(盡忠報國)을 토대로 한 황도정신을 가르쳐 말하는 것이 만큼 이것은 다만 정신작흥(作興)운동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역시 국가자원의 풍족과 전시국책의 진섭(進涉)을 위하여 국력의 총동원 운동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겠고 따라서 우리 조선연맹이 이러한 운동에도 참가 협조할 의무가 있다는 것은 다시 설명을 가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근로보국운동은 국민의 멸사봉공(滅私奉公)·근로호애(勤勞好愛)의 정신을 배양하며 특히 비상시국에 있어서는 국민적 훈련이라는 점으로서도 또한 중대한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이 근로보국 운동은 이미 전선(全鮮)적으로 상당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운동의 보급 확충에 대한 것과 운동의 중심이 될 만한 지도자의 양성에 관하여는 총독부에서 여러 가지로 목하 조사연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조선에는 옛날로부터 부역에 관한 제도가 있어서 혹은 관공청 거물을 건설할 때든가 도로나 하천을 개수(改修)한다든가 할 때에 민가 각 호에서 이러한 공사(公事)를 위하여 부역을 하는 미풍(美風)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러한 고래(古來)의 미풍인 부역의 정신을 자진 봉사의 정신으로 지도하여 일종의 국민적 활동을 삼는 동시에 한 걸음 나아가서 국가봉사의 대 정신을 함양·훈치(訓致)하는 일대 국가적 운동을 삼으려는 것입니다.

우방(友邦) 독일에 있어서는 1932년 1월 30일 세계 정치사상에 특서대필(特書大筆) 할만한 '나치스'당 '히틀러'가 정권을 파악한 이래 일반국민으로 하여금 부역의 의무와 마찬가지로 만 19세로부터 만 25세에 해당하는 독일청년은 학식과 빈곤·문벌과 귀천을 가릴 것 없이 누구나 근로봉사단에 가입하여 국가가 명하는 공익작업에 6개월간의 노동봉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고 이것이 신흥독일 사회교육의 근간이 되어 있는 동시에 민족부흥의 일대 원동력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천하가 공인하는 사실입니다. (계속)

국민정신총동원조선연맹의 진로 (하)

본부 사회교육과장 김대우(金大羽)

물론 근로를 존중히 여기는 사상과 풍습은 서양에도 없지 아니합니다. 가령 예를 들어 말씀하면 “항상 쓰고 있는 호미는 광채가 나고 한 곳에 모여 있는 물은 썩은 냄새가 난다”는 의미의 속담이 있습니다.

특히 독일로 말씀하면 최근에 있어서는 물론이러니와 고래로 노동에 대하는 관념이 다른 나라와 같지 아니합니다. 유명한 ‘프리드리히’대왕은 말하기를 “한 개의 싹이 나던 곡식으로 하여금 두 개의 싹이 나게 하는 사람은 전쟁에 승리한 장군이상의 국가적 공로자라”고 하였습니다.

금일 독일의 노동봉사단에서 두 개에 싹이 그려있는 삽을 사용하는 것은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독일이나 기타 모든 국가에서 노동을 존중시키는 것은 본질을 말씀할 것 같으면 다만 필요에서 나온 일이 옳습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를 위하여서의 필요와 방편에서 생긴 사상입니다. 여기에 일본민

족의 근로봉사사상과 근본적 차이가 있습니다. 일본인의 근로봉사에 대한 민족적 신념은 어떠한 필요와 방편에서 생긴 것이 아니고 실로 신적(神的) 입국(立國)의 대의요 민족적 인생관의 근원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일례를 들어 말씀하면 국어로 시고토(シゴト, 仕事)⁴⁾라고 하는 ‘사(仕)’라는 자와 ‘사(事)’자를 붙여보면 ‘쯔카에마츠리(ツヘマツリ)’라고 읽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일본의 시고토(シゴト)에 대한 민족적 이념을 글자 그대로가 동시에 하등의 대가와 일체의 타산을 초월한 근로봉사라는 말씀이 올시다. 우리는 이러한 봉사적 신념을 가다듬어가지고 근로애호의 정을 배양하는 동시에 국가적 대분업의 체제에 있어서 각기 자기의 생업을 통하여서 국력증강의 부서를 유감없이 담당하여 국가총동원의 일대 전사(戰士)가 되기를 힘써야겠습니다.

5) 총후후원과 방공방첩

끝으로 저는 특히 조선연맹이 총후의 후원과 방공방첩의 중대임을 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로 건국 이래의 미증유라고 할 만한 초비상시국에 즈음하여 우리 국민이 이와 같이 평소와 다름이 없는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은 굉대무변(宏大無邊)한 황실의 은덕이라고 하겠으며 또한 황은의 보호와 능위(稜威)하에 일어분투중인 제1선 장병의 의전(義戰)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로 국민정신연맹에 있어서도 가맹단체의 하나인 조선군사후원연맹과 제휴협력하여 응소 군인의 황송연이라던지 유족에 대한 위문과 무운장구(武運長久)의 기원 등에 성의와 진심을 다하는 동시에 방공협회와 기타 관계단체와도 밀접한 연락을 취하여 인류의 공적인 공산주의사상의 절멸을 기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전시에 있어서는 상상이상의 교묘한 수단과 방법으로 적국의 실정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적국의 군사는 물론이요 내정과 외교 기타 여러 가지의 기밀을 조사하는 것이 직접간접으로 제1선전투력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것은 지나간 세계대전을 통하여 누구나 기억에 새로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설명할 여지가 없이 금후의 중일전쟁은 일종의 사상전이올시다. 일류의 공적이요 세계사상의 악마적 존재인 공산주의사상을 박멸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동아 전체의 사상적 방위에 역전(力戰)중이올시다. 따라서 조선연맹은 일체의 반국가적 사상광 행동을 극복하는 신생동아의 건설의 중요한 역할을 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으며 대체로 보아 이상 다섯 가지가 조선연맹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3. 결론

지난 사변 1주년 기념일을 맞아 황공하옵게도 금상폐하께옵서는 친히 칙어(勅語)⁵⁾를 하사하옵시사 금차 성전의 목적달성을 위하여는 국가의 총력을 거양하여야 할 이유를 명시해 주셨습니다.

미나미 총독 각하께서도 이 성지를 봉대(奉戴)하고 즉시로 유고(諭告)⁶⁾를 발하여 반도관민의 시국에 대한 각오와 신념을 일층 더 새롭게 하였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라고 믿거니와 국민정

4) ‘シゴト’는 ‘작업’, ‘일’을 의미한다.

5) 임금의 몸소 이름. 또는 그런 말씀이나 그것을 적은 포고문.

6) 나라에서 결행할 어떤 일을 여러 사람에게 알려 줌. 또는 그런 알림.

신총동원연맹은 반도 산하에 인적과 물적의 총력을 집중발휘하여 반도민중의 황민화를 도모하며 진흥 보국과 시간극복의 대이상을 향하여 집단적 행동을 통해 훈련하는 일대 국민운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면 국민정신총동원은 즉 일본정신의 총동원이 옳습니다. 그리고 일본 정신은 다만 기분과 관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생활과 공사 각반에 항상 실천화하여야 될 것은 먼저도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국민정신운동은 관공청이나 혹은 일부 민간의 사업이 아니고 국민 전반의 정신운동이요, 관민일치, 내선일체가 되어가지고 물심양면에 걸쳐 군영(軍營)발취되어야 할 역사적 국민운동이 되지 않으면 안되겠습니다.

따라서 총동원운동의 구체적 실시계획을 수립실행함에 있어서는 반도의 실정과 각지의 사정을 쫓아서 가장 유효적절한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러분께서도 이 운동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과 노력을 가지고 연맹의 취할 바 진로를 향하여 절대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황국정신을 기초로 한 국민적 결속이 있기를 바라는 바이올시다.

〈출전: 金大羽, 「精神總動員朝鮮聯盟의 進路」(上·中·下), 『매일신보』, 1938년 9월 27~29일〉

4. 김문집, 『총동원』의 권두언

막대한 비용을 들여—예컨대 가뭄 대책의 하나로서의 총동원 식량문제 특집호이다. 세간에는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두는 부모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일개 조선을 구하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자신의 몸을 깎아내고 있는 부모 마음을 갖고 있는 이가 대체 누구란 말인가? 다른 누구도 아니다. 입에 담은 일조차 황송하기 그지없다. 한 분(御一方)이 저 신이시기 때문이다. 은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너무나 큰 이 은혜를 우리는 몇 대에 걸쳐 그 1만분의 1이라도 갚을 수 있을까?

내선일체는 이상도 이론도 아닌, 생생한 자기 현실이다. 문화적으로 혈연적으로 완전하고 영구히 일본 국체에 융합(溶合)하는 것 외에 그 어떤 가상(假想) 하에서도 우리 조선은 있을 수 없다.

위대하도다! 영광이로다. 미천한 이 몸으로 하여금 팔괘일우(八紘一宇)의 세계 지배자이게끔 하신 능위(稜威) 또한 위대하도다. 성스럽도다! 그저 멀리서 엿드려 감읍낙루(感泣落淚)할 따름이다.

쌀 기근 따위가 어쨌단 말이냐! 국체는 무진장하다. 천하(六合)를 먹이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은 고사기(古事記)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1집은 고전의 한 구절을 여러 각도로 바꾸어 부연한 데 지나지 않는다. 고마운 미즈호노쿠니⁷⁾여! 또 다시 흐르는 이 눈물을 어찌할꼬?

〈출전: 金文輯, 「卷頭の言葉」, 『總動員』 第1卷 第6號, 國民精神總動員朝鮮聯盟, 1939년 11월, 1쪽〉

7) 미즈호노쿠니(瑞惠の國)는 일본의 미칭(美稱)이다.

5. 이승우, 정연맹(町聯盟)에 박차 - 실행하고 싶은 제안 하나 둘

조선연맹 이사 이승우(李升雨)

1

정신총동원운동은 내지도 조선도 농촌보다 도회지의 성적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는데, 이는 과연 무슨 일일까.

물가가 올라갔다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도 손쉽게 생활필수품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이에 필요품 이상의 것을 마음대로 소비하기 때문에 전시장의 능력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닐까. 백화점을 둘러보면 진열된 각종 물건, 특히 화장품이나 다양한 장식품과 장신구, 각종각양의 기호품 등을 볼 때마다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절약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농촌 특히 반도의 농촌생활은 실로 비참하며 운택하다는 흔적은 조금도 찾아볼 수 없다. 물론 반도의 총동원운동은 농촌사람이 반도인의 8할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농촌운동이다. 비록 가난한 농가일 지라도 종이 한 장이나 금속 하나를 내서 전 조선적으로 모은다면 곧바로 다대한 양이 되기 때문에 농촌의 정동운동을 무시할 수 없다. 또 농촌사람들은 지도자의 명령을 잘 준수하기 때문에 지도를 잘하면 눈에 띄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2

하지만 도회지는 사정이 약간 다르다. 도회지 사람들은 지식정도가 높고 굳이 어느 쪽인가 말하면 비판적이다. 지금까지 국책에 대해 추종적일 뿐, 자발적이거나 적극적으로 나선 적이 그다지 없었다. 특히 반도인의 지식계급은 이전에 비해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아직도 '정동운동'에 관해서는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도회지에는 지식계급층이 많고 아동은 학교 선생으로부터 '정동'에 관해 이런저런 가르침을 받더라도 가정에 돌아가면 부모가 냉담하여 정동적인 것을 실행할 수 없다는 말을 자주 듣는다. 따라서 도회지의 정동이 활발히 전개되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도회지의 지식계급을 동원해야 한다. 대성질호(大聲叱呼)하여 각성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

3

마을(町)에 애국반이 조직되었다. 우리는 정연맹이 만들어져 애국반원이 되었지만, 아직도 정연맹은 의의 있는 모임을 주최한 적도 없고, 회원을 모이게 했다는 것도 듣지 못하였다. 애국부인회와 국방부인회의 사람들, 또는 정회(町會)의 총대(總代)는 자주 총후의 제1선에 서서 활동하고 있지만, 정신총동원연맹의 활동은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정연맹의 사무소는 정회 사무소 안에 있어야 한다. 하지만 도연맹과 부군연맹조차 독립된 사무소나 직원이 없이 임원을 겸하는 업무여서 그 취지의 철저가 곤란하다. 또 이는 경비의 문제와 관련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정회의 기능을 정동연맹으로서 활용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다음과 같은 간단한 것부터 실행해나가면 어떨까.

정연맹 주최로 마을의 적당한 빈 곳 또는 집회소에서 매월 애국일에 연맹원이 전부 집합하여 신궁요배, 궁성요배, 국가합창, 영령에 대한 묵도 등을 실시한 다음 강화(講話) 등을 열고, 집합일에는 1호 1품의 폐품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는 마을이 넓은 곳이라면 애국반 4-5개가 함께 모이든가 혹은 애국반별로 실시해도 좋을 것이다. 폐품을 모으는 것도 이번 달은 쇠부스러기(鐵屑), 다음 달은 빈 깡통, 그 다음 달은 냄마 조각이라는 형태로 실시하는 것도 효과적이다.

이 밖에도 경비가 들지 않고 가능한 정동운동을 몇 개라도 고안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간단하지만 이상을 제안하는 바이다.

4

시골에서 진지하게 실행되고 있는 색복착용과 같은 것도 경성에서는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농민은 경성에 올 때면 갈아입을 목적으로 백의를 한 벌 준비해둔다. 시골에서는 음력을 폐지하였지만, 경성에서는 아직도 빈번히 사용하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자기들만 강요받는다 고 말한다. 이를 어떻게든 빨리 바꾸어야 하고, 도회지 특히 경성에서 지금부터 정동의 모범을 보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경성부와 경찰서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다. 지식계급의 분발도 필요하지만, 일반 대중에게는 관청이 독려해야 한다. 색복 장려와 같은 것도 시골의 경찰관이 강요함으로써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어느 정도까지는 강제적으로 실시하지 않으면 언제나 똑같다. 내년 설부터 모든 경성의 한사람도 빠짐없이 신정으로 신년을 맞이하도록 지금부터 운동해 나가야 할 것이다.

도회지에서의 정동운동은 이상의 것 이외에도 여러 가지 말할 것이 많지만 이번에는 이 정도해 두겠다.

〈출전 : 李升雨(朝鮮總聯盟理事), 『町聯盟に拍車, 實行させたい提案 1, 2』, 『總動員』第1卷 第2號, 17~18쪽〉

6. 정교원, 연맹 가입에 대하여

전무이사 정교원(鄭僑源)

연맹 가입은 나에게 실로 예상하지 않았던 일이다. 나는 관직 재직 당시, 임원을 그만둔다면 자연스럽게 여유도 생김으로 인생으로서의 수양을 쌓고 싶었고, 또 심사숙고해야 할 다소간의 문제도 안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인연으로 아무런 준비도 없이 연맹에 가입하고 말았다. 원래 관직을 그만두었다고 해서 소위 한운야학(閑雲野鶴)을 벗 삼은 시경적(詩境的) 생활을 보내겠다는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않았다. 흥아(興亞)의 성전수행의 한 가운데에서 병참기지인 반도에서 삶을 보내는 자로서는 어떠한 입장에 있더라도 그 입장에 상응하는 활동을 해야 하며, 단지 안일하게 놀고먹어서는 안 된다. 연맹 관계로 말한다면 선량한 한사람의 애국반원이 되고자 결심한 것이 사실이다.

생각건대 국민정신총동원연맹의 임무는 조선에 관한 한, 민중의 황민적인 자각이 전제조건이어야 한다. 이 점에 대해서는 미나미(南) 총독 각자가 이미 내선일체라는 커다란 이상과 방침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단지 그 방침과 이상의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이 최대 임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내선일체의 결실을 거두기 위해서는 현재의 시국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황민 각자에게 부과된 임무를 완전히 수행하는 것이 물론 첩경이다. 또 역사적인 유래를 규명하여 혈족적, 윤리적 관계에서 내선일체의 필연성을 명확히 밝힘으로써 현재 눈앞의 일들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일반에게 인식시키고 실천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어야 한다.

내가 연맹인으로서 노력해야 할 방향도 대략 이러한 두 가지 방면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민중을 상대로 하는 일 그 자체에는 얼마간의 경험이 있어야 한다. 내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민중을 상대로 하는 일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지도와 성원을 바라마지 않는 바이다. 나는 다만 뒤를 따라다니며 성심성의로 목표를 향해 최선을 다하자는 마음뿐이다.

〈출전: 鄭(喬)源(朝鮮聯盟 專務理事), 「聯盟入りに當りて」, 『總動員(非常時國民生活改善問題特輯)』
第1卷 第3號 17쪽〉

7. 최린, 총동원 강화에 대한 사건

이사 최린(崔麟)

오늘날 밤낮으로 시시각각 계속하여 변화하는 세계의 동향은 단예(端倪)할 수밖에 없는 전시체제에 의해 인류가 예전에 경험하지 못한 미증유의 세계대전(世界大戰)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 규모는 애당초 25년 전의 유럽대전에 비할 바가 아니다. 따라서 그 전과(戰果)가 미치는 바는 인류의 상상을 훨씬 초월할 것이다.

비상시라고 말하면서 시세에 맞추어 적당히 사고해서는 안 된다. 특히 오늘날과 같이 세계적인 동란이 눈앞에서 어른거리는 세계적인 비상시국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개혁운동이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한다. 혼란 뒤에 다가올 신질서의 건설을 위해 모든 운동이 동원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여기에 정신총동원의 중대성이 강조된다. 이를 어떤 일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민중과는 관계없는 일이라고 바라보거나 혹은 정신총동원의 지도적 입장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비상시국을 인식하지 못하고 민중을 계발 지도하는 것을 게을리 한다면 정신총동원운동은 형식으로만 흐를 위험성이 있다.



반도에서 정신총동원의 강화는 이상의 점에서 그 대상을 소년과 아동에 두어야 한다. 여기에 그 교화력을 가정에서의 부인 계몽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싶다. 반도의 장래를 짚어질 제2의 국민에게 깊은 황도정신을 체득시키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 더불어 가정에 있는 부인의 교육 역량을 발휘시키는 것이 더욱 중대하기 때문이다.

물론 제2의 국민 교육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빈틈이 없을 정도로 철저히 노력하고 있지만, 학교 교육

이 지닌 커다란 결함이라고 말할 수 있는 주입주의는 감수성이 강한 소년과 아동에게 덮어씌워져 언뜻 보기에도 숨쉬기 힘들다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날 반도의 학교 교육의 현황이다. 이러한 어려움은 가정에서 부인의 훈도(薰陶)를 통해 빛나는 약동성을 아동의 마음속으로 침투시키지 않는다면 도저히 황도정신의 미과(美果)를 거두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믿는다.



하지만 이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오늘날 조선의 가정에서의 부인의 지적 표준은 아동을 잘 계발하는 데까지는 이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교양에서도 지적(智的)에서도 유감스럽지만 모두 저위(低位)에 머무르고 있다고 말할 수밖에 없다. 이는 조선의 부인이 홀로 방안에 갇혀있는 것을 좋다고 바라보고, 외부로의 적극적 진출을 저해하는 환경에 신음해왔기 때문이다. 이러한 잘못된 종래의 관습적인 악기류(惡氣流)를 돌파하여 역으로 명랑 가정부인의 사회적 공헌력의 우위성을 강조하는 것만이 조선부인의 계몽에 있어 특히 절실한 문제이다. 여기에 총동원의 커다란 사명이 있고, 부인의 계발과 교육을 위해 힘써야할 의의가 있다. 내가 총동원의 강화에 대한 사견으로서 가정부인의 교육문제를 새삼 제안하는 것도 사실은 바로 이 때문이다.



예전부터 조선에서는 남자보다도 여자가 뛰어나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그 사상에서도 외국의 부인처럼 다채롭지 않고, 사물을 사고하는 방식이 솔직하며 성격적으로도 소박하기 때문에 부인을 대상으로 한 총동원운동은 분명 훌륭한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믿는다.

예를 들면 생활개선 문제도 남자보다는 가정의 주부가 중심이 되어 주부의 힘으로 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조선의 가정부인을 보면 거의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도 없이 정말로 열심히 일한다. 그들의 노력과 근면은 진정으로 감탄할 정도로, 이러한 강한 부인의 활동력을 오늘날과 같은 낭비로부터 구제하여 비상시에 걸맞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면 총동원의 사명은 충분 이상으로 달성될 것이다.



오늘날 비상시라는 말은 이제 표어가 아니다. 국민은 이제 거대한 군함을 건조하더라도 바늘 하나의 절약부터 요청된다는 것을 자각해야 할 때이다. 더욱이 지나 대륙의 정야(征野)에 대군을 보내고 있는 일본은 산터미와도 같은 황군장병의 식량예조차 사실은 부업에서의 한 톨의 쌀의 귀중함에서 시작된다는 것이 요청되는 오늘날, 온 나라를 달구는 정신총동원운동은 종래의 성인층과 남자 편중의 지도방침으로부터 180도 전환해야 한다. 가정부인의 각성과 제2의 국민의 강건한 의지에 기초함으로써 정신총동원운동은 비로소 그 진면목을 당연히 발휘할 것이다. (1939년 12월 14일)

<출전: 崔麟(朝鮮聯盟理事), 「總動員 強化への私見」, 『總動員』 第2卷 第1號, 26~27쪽>